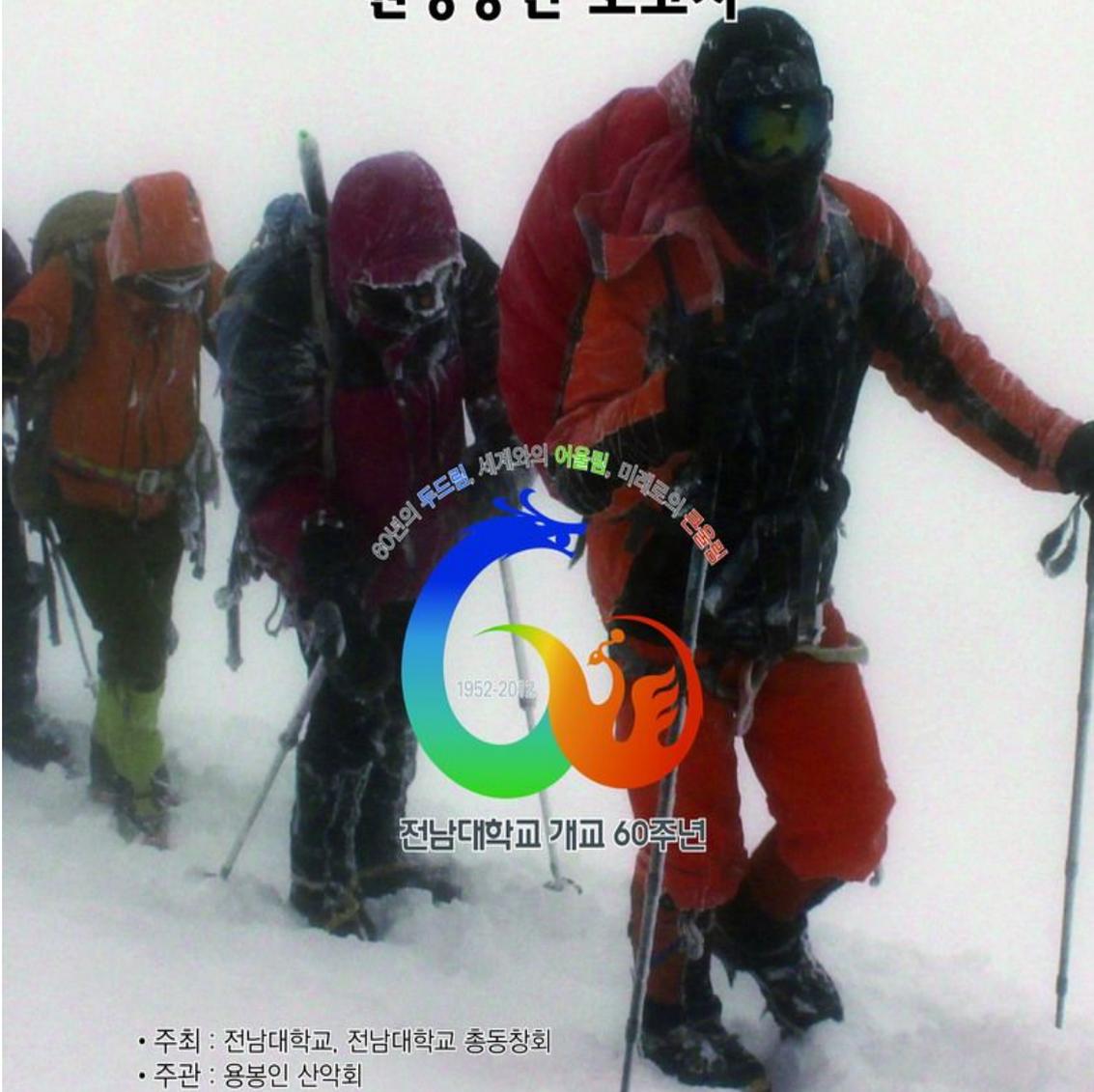


개교60주년 기념

# 2012 전남대학교 세계7대륙 최고봉(유럽 엘브루즈) 원정등반 보고서



60년의 두드림, 세계와의 어울림, 미래로의 큰을림



전남대학교 개교 60주년

- 주최 :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 주관 : 용봉인 산악회  
(전남대학교 산악회, 전남대학교 총동창산악회, 전남대학교 서울동창산악회, 전남대학교 교수산악회, 전남대학교 교직원산악회, 전남대학교병원 산악회, 전남대학교 OB산악회, 전남대학교 의대산악회)
- 후원 : 전남대학교 서울동창회, 우리로광통신(주), (주)에이케이태양광, 에덴병원, 새천년종합건설(주), (주)민코코리아, 영진종합건설(주), (주)지오투정보기술, 중앙한의원, 베네치아 월드컵점, 전남대학교출판부

개교60주년 기념

2012 전남대학교 세계7대륙 최고봉  
(유럽 엘브루즈) 원정등반 보고서



# - 목 차 -

원정화보	-----	1
<b>인사말</b>		
전남대학교 총장	-----	15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장	-----	16
원정단장	-----	17
원정대장	-----	18
<b>제1장 원정 추진 및 준비</b>		
1-1. 원정 추진배경 및 경과	-----	19
1-2. 훈련일지	-----	20
1-3. 발대식	-----	29
<b>제2장 원정개요</b>		
2-1. 원정결과	-----	30
2-2. 운행결과	-----	31
2-3. 원정대원	-----	32
2-4. 엘브루즈 개요	-----	36
2-5. 접근 및 등반루트	-----	38
<b>제3장 운행기록</b>		
3-1. 전체운행기록	-----	40
3-2. 대원별등반기	-----	51
<b>제4장 분야별 보고</b>		
4-1. 행정	-----	80
4-2. 회계	-----	83
4-3. 장비	-----	85
4-4. 식량	-----	89
4-5. 수송	-----	92
4-6. 의료	-----	94
<b>제5장 부록</b>		
5-1. 코카서스 산맥의 산	-----	100
5-2. 원정에 도움주신 분	-----	105
5-3. 해단식	-----	108
편집후기	-----	109

# 원정화보



엘브루즈 정상 (5,642m) 표지석

( 강풍과 폭설로 다른 사진은 촬영하지 못하고, 설낙순 대원이 현지시각 2012년 8월 15일 10시 54분에 정상표지석만 촬영함 )

# CERTIFICATE

This is to certificate th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h Seong-ge (leader) and 5 members*  
successfully climbed Mt. Elbrus 5642 m  
.....  
*on 15.08.2012*.....

Guide *Viktor Komarichev* Director *Elena Beletskaya*



 **LENALPTOURS**  
OUTDOOR ACTIVITY AND ADVENTURES

[www.russia-climbing.com](http://www.russia-climbing.com)

정상 등정증



대원단체사진 (전남대학교 깃발)



대원단체사진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깃발)



대원단체사진 (개교60주년 엠블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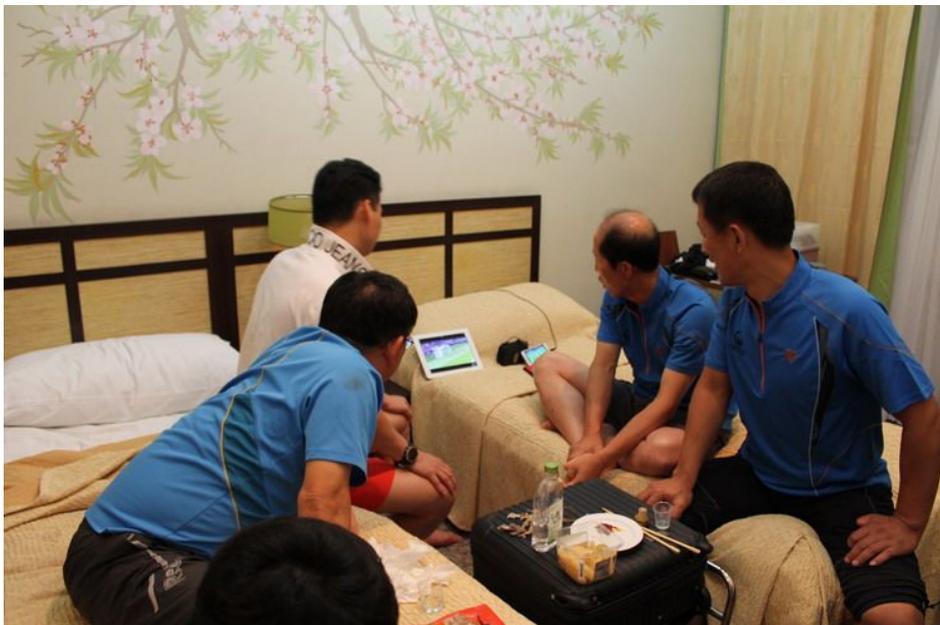
전남대학교 총동창산악회 깃발

## 원정과정 사진

### ● 원정1일 (전남대-인천공항-모스크바)



전남대 대강당 앞 환송나온 선후배들과 단체사진



모스크바의 호텔에서 올림픽 3,4위전(한,일전) 관람

● 원정2일 (모스크바-미네랄니예보디-체겟마을 2,107m)



미네랄니예보디 공항



박산계곡의 티르니아우즈 마을에서 시장보기

● 원정3일 (1차 고소적응: 체겟봉 3,404m)



고소적응을 위하여 체겟봉을 오르는 대원들



체겟봉 하산길에 엘브루즈를 배경으로 맥주 한 잔

● 원정4일 (BC입성, 2차 고소적응: 프리웃 산장 4,157m)



고소적응을 위해 프리웃산장(4,157m)을 향하여 오르는 대원



Base Camp (해발 약 3,800m)  
왼쪽부터 요리사숙소, 식당, 대원숙소1, 대원숙소2

● 원정5일 (3차 고소적응 : 파스튜코바라 4,690m)



설상차를 이용하여 이동  
(설상차는 뒷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고소적응을 위하여 파스튜코바라(4,690m)으로 오르는 대원들

● 원정6일 (정상 등정 5,642m)



정상을 향하여 눈보라를 뚫고서



정상 등정 후 BC로 귀환하여 상호간에 인사하는 대원들

● 원정7일 (하산 : BC-체겡마을)



곤도라를 이용하여 테르스콜로 하산중



체겡마을에서 성공 자축연 - 총동창회 허정 이사장님께서 지원해주셨다.

● 원정8일 (체켓마을-미네랄니예보디-모스크바)



엘브루즈 동봉(5642m) 초등자 킬라 카쉬로프 동상 앞에서  
(1829. 7. 10 초등 -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등산의 생일"로 기념함)



모스크바 참새언덕(구 레닌언덕)의 신혼부부

● 원정9일 (모스크바 관광 - 인천공항)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탑 - 총검을 형상화하였다.



아르바뜨의 거리 악사



러시아 근대문학의 창시자 푸쉬킨 부부동상

● 원정10일 (인천공항-전남대)



전남대학교에 도착하여 환영 나온 선후배들과 인사하는 대원들



환영 단체사진

# 축 사

## 시대를 앞서 나가는 도전



주신(主神) 제우스가 감추어 둔 불을 훔쳐 인간에게 내줌으로써 인간에게 맨 처음 문명을 가르친 장본인, 바로 프로메테우스입니다. 그가 코카서스의 바위에 쇠사슬로 묶여 날마다 독수리에게 간을 찢여 먹히는 벌을 받은 그 신화가 서려 있는 곳이 유럽의 최고봉인 엘브루즈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개교 60주년을 맞는 전남대학교가 엘브루즈 원정 등반에 나선 이유입니다.

전남대학교는 개교 60주년을 맞아 시대를 앞서 나가는 대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전통의 그늘 속에 안주하거나 잘 했던 일, 성공했던 일을 반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문을 활짝 열고, 사이 길을 더 넓히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세계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을 통해서만 열고 맞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2006년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8,848m)를 품에 안았고, 2009년 북미 최고봉인 데날리(6,914m)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이런 도전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랑스럽게 60주년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유럽 최고봉에 올라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안았습니다.

전남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 그리고 원정대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정대가 무사히 돌아와 전남대학교가 도전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미래로의 큰 울림’을 전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가 먼저 생각하며 시대를 앞서간 프로메테우스임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신의 가호가 함께 하소서!

2012년 09월

전남대학교 총장직무대리 송 경 안

# 축 사

## 새로운 꿈에 대한 도전

초속 35m의 강풍과 영하 25°를 넘나드는 악천후에도 굴하지 않고 유럽최고봉 러시아의 엘브루즈(5,642m) 정상등정에 성공한 용봉인들의 용기와 기개에 경의와 축하를 보냅니다.



전남대학교 7대륙 최고봉원정대는 2006년 세계의 지붕인 초모랑마(에베레스트) 등정 성공에 이어 다시금 용봉인들의 기개를 세계에 과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은 개교 60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해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원정대의 보고에 의하면 등정 이틀 전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정상등정에 성공한 팀이 없었고 당일 기상 역시 진눈깨비와 강풍으로 사실상 등산이 불가능하였으나 생명을 담보로한 굳은 의지와 투철한 사명감으로 도전해 성공했다고 합니다. 인생 역시 마찬가지로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성공하겠다는 의지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고, 끈기와 인내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성공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교는 금년을 전환점으로 삼아 세계 100대 대학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60년의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로운 꿈을 이루고자 도전에 나선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기치 못한 많은 걸림돌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이며, 숭한 역경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엘브루즈의 환경보다 더 참혹한 기후와 맞닥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용봉인들은 지혜와 용기와 단결로 그 난관을 극복하고 정상에 설 것으로 확신합니다.

엘브루즈의 성공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아직 남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날개짓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표한 7대륙 최고봉에 서는 그날까지 용봉인의 도전과 모험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 09월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장 최 상 준

# 인사말



이번 2012년 전남대학교 세계 7대륙 최고봉 원정등반(유럽 엘브루즈)은 전남대학교 개교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서, 전남대학교 산악회(재학생)와 OB산악회, 의과대학산악회, 교수산악회, 교직원산악회, 병원산악회, 총동창산악회, 서울동창산악회 등 용봉인들의 8개 산악회가 연합하여 개교 60주년을 맞는 전남대인의 용기를 세계 속에 알리고 후학들에게 용봉인의 도전정신을 고취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학번의 대선배부터 2010년대 학번의 후배까지로 구성된 14명의 원정대원들은 그 자체가 “60년의 두드림”을 상징합니다. 60년이 어울려 있는 선후배 대원들의 지혜와 용기를 모은 아름다운 등반을 통해 미래를 향한 새로운 울림을 시작해내었습니다.

엘브루즈(5,642m) 등반과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통해 지혜란 고통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산병을 이겨내고 폭풍설을 뚫고 엘브루즈 정상에서 “도전의 불”을 가져온 14명의 원정대원들의 용기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원정등반을 통하여 후학들에게 전해진 “도전의 불”이 더 힘차게 타 올라 전남대학교의 미래를 밝혀주리라 기대가 됩니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대원선발과 훈련을 통해 정상등정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22만 동문과 8개 산악단체 회원님들의 물심양면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등반을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노심초사하며 기다렸던 원정대원의 가족들에게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발간해 주신 전남대학교 출판부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 09월

개교60주년 기념 2012 전남대학교 세계7대륙 최고봉(유럽 엘브루즈) 원정대  
단 장 이 정 옥



# 인사말

## 도전의 불을 전합니다.

60년 동안 밝혀 온 지성의 산실, 전남대학교의 찬란한 불꽃위에 엘브루즈 정상에서 가져온 프로메테우스의 용기와 지혜의 불을 전합니다.

개교 6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준비를 시작한 지 1년, 대원들의 첫 훈련을 시작한지 6개월 만에 22만 용봉인의 꿈인 엘브루즈 정상에 올랐습니다. 행사의 취지에 맞추어 용봉인으로 구성된 많은 산악단체를 아우르는 대원선발이라는 쉽지 않은 과정과 힘든 훈련을 거쳐서 우리의 꿈을 성취했기에 더욱 더 알차고 보람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프로메테우스 형벌의 산에 걸맞은 강한 눈보라를 뚫고 엘브루즈 정상에서 가져온 ‘도전의 불’은 전남대의 미래를 밝혀줄 성화로서 더욱 더 의미있고 가치있는 행위였습니다. 엘브루즈는 결코 만만하게 정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영하의 날씨와 초속 35m의 강풍은 불라벤급의 눈보라를 상상하시면 얼마나 혹독한 환경이었는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무사히 등정을 허락하신 엘브루즈 신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고소증세와 설산을 경험하는 대원들과 경험이 많은 대원들의 조화, 59학번으로부터 11학번에 이르는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한 14명의 대원들이 이루어낸 성과는 앞으로 전남대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쾌거입니다. 이 번 원정에서 얻어진 값진 경험과 성장을 바탕으로 7대륙 최고봉 중에서 남은 2개의 목표를 이루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마지막 남극 빈슨매시프봉은 더 많은 희생과 노력이 뒤따르는 목표이기에 7대륙 최고봉 등정을 이루는 그 날까지 힘을 모아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개교 60주년 기념 2012 전남대학교 세계 7대륙 최고봉 원정등반(유럽 엘브루즈)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특히 김윤수 전임총장님과 학교관계자, 최상준 총동창회장님과 임원님들, 허정 총동창회이사장님, 김국웅 직전회장님, 정인채, 노동일 상임부회장님, 박승현 부이사장님 그리고 김성전 서울동창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남대학교산악회와 OB산악회, 의과대학산악회, 교수산악회, 교직원산악회, 병원산악회, 총동창산악회, 서울동창산악회등 8개 산악단체 회원님, 박현주 중앙한의원장님, 혜조정오승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팀닥터를 파견해주신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국훈 원장님, 재활의학교실 이삼규 주임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면상 일일이 열거하지 못한 많은 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남대학교의 미래를 밝혀 줄 프로메테우스 불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게 된 큰 영예를 안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교60주년 기념 2012 전남대학교 세계7대륙 최고봉(유럽 엘브루즈) 원정대  
대 장 오 성 개

# 제1장 원정 추진 및 준비

## 1-1. 원정 추진배경 및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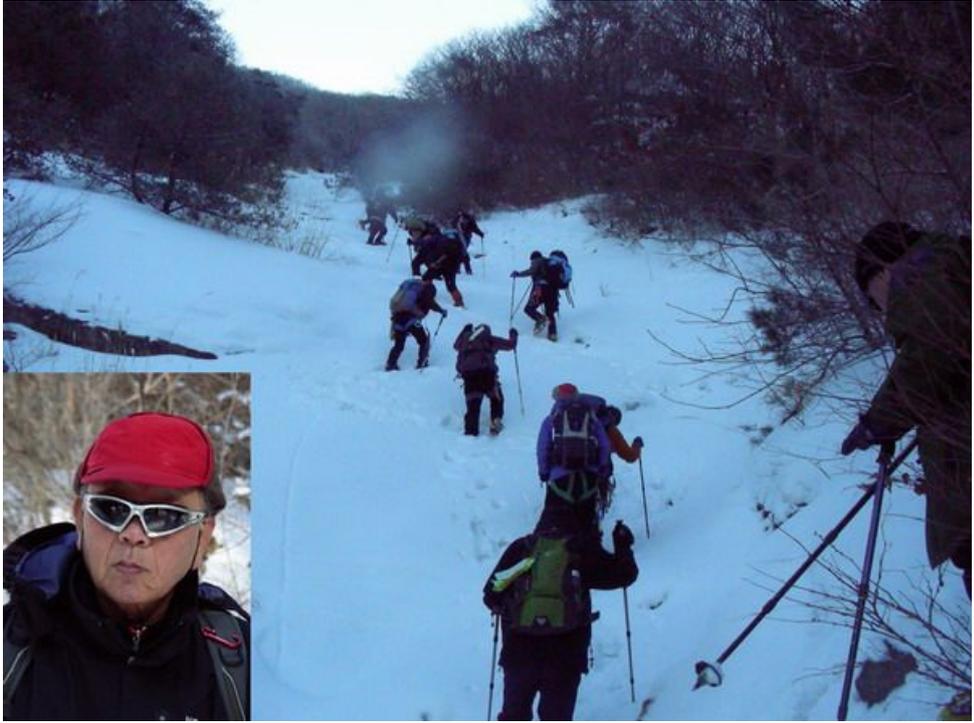
연도	월	구 분	비고
2011	1/28	전남대학교 OB산악회(회장 송희태) 총회에서 정순택, 이정옥 회원 등이 '2012년 모교 개교60주년을 기념하여 해외원정등반'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였고,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결의하고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함	
	2월	전남대학교 총동창산악회(회장 최희동)에서도 최희동 회장의 제안으로 개교60주년 기념 해외등반을 추진하기로 함	
	6월	'개교60주년 기념 해외원정등반추진위원회'를 구성함( 전남대총동창산악회 최희동 회장과 전남대OB산악회 송희태 회장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함)	
	8월	전남대학교 기획조정과에 개교60주년 기념사업으로 본 원정등반 기획안을 제출함	
	12/26	'전남대학교 개교6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에서 본 사업의 의제로 상정되어 논의되고 확정됨.	
2012	1/31	8개의 용봉인 산악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대원 모집함 원정단 임원구성 완료 (단장 이정옥, 부단장 최희동, 훈련대장 오성개, 훈련부대장 박현주 김영필)	
	2/7	1차 훈련 (원정개요 설명회), 강남회관	
	2/18	2차 훈련 (설상훈련, 1박2일), 병풍산 북벽	
		대행사 선정 : 혜초여행개발(주) 광주지점 대표 정오승	
	3/18	3차 훈련 (중주 및 암벽), 무등산 일원 및 새인봉	
	4/21	4차 훈련 (야간등반, 1박2일), 안양산 ~ 무등산	
	5/19	5차 훈련 (교수산악회와 동행), 보성 제암산	
	5/26	6차 훈련 (1박2일, OB산악회와 동행), 담양 금성산성 산행 후 대원회의 결과 정식 원정대로 전환하기로 하고 원정대장에 오성개, 원정부대장에 김영필을 선출함.	
	6/23	7차 훈련 (총동창산악회, 병원산악회와 동행), 임실 성수산	
	7/31	발대식(전남대학교 본부 국제회의동 1층 1세미나실)	
	8/4	최종 점검모임 ( 장비점검 외 )	
	8/10	출국 ( 원정대장 오성개 외 13명 )	
	8/19	귀국 ( 원정대장 오성개 외 13명 )	
	9월	보고서 편집	
10월	보고서 출간 및 발송		

## 1-2. 훈련일지

### ■ 제1차 훈련(원정설명회)

일 시	2012. 2. 7(화) 19:00
장 소	광주시 동구 장동 “강남회관”
참 석 자	김훈봉(고문), 이정옥(단장), 오성개(훈련대장), 박헌주(훈련부대장), 김영필(훈련부대장), 김나연, 김경선, 설낙순, 유용호, 장영주, 고제석, 이재국(기록), 김용욱(OB운영위원장) - 총 13명 -
훈련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원 및 대원 상호 인사, 단장 인사말(이정옥)</li> <li>2. 원정개요설명 (김영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포한 인쇄물을 중심으로 설명함</li> <li>- 원정비용은 450~500만원정도이며, 일단은 전액 대원이 부담함.</li> <li>- 추후 학교, 동창회 등의 지원이 있을 경우 대원부담금이 차감될 예정임</li> <li>- 등반장비 소개 및 구입안내 : 안전벨트 세트, 빙벽화, 크램폰 등</li> </ul> </li> </ol>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훈련(설상훈련)을 2월 18~19일에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필수 준비물 : 이중화, 12발 아이젠 )</li> <li>- 2차 훈련 후 대원선발 완료할 예정임</li> <li>- 훈련대원 신청자 전원은 신청금 10만원을 납부하기로함 (환불 불가)</li> </ul> <p>※ 원정대계좌 : 농협 601140-52-062941 김영필(원정)</p>
사 진	
사진설명	제1차 훈련 (원정설명회) 모습

■ 제2차 훈련

일 시	2012. 2. 18(토) ~ 19(일)
장 소	전남 담양군 “병풍산” 일원
참 석 자	김훈봉(고문), 이정옥(단장), 오성개(훈련대장), 박헌주(훈련부대장), 김영필(훈련부대장), 김나연, 김경선, 장희, 설낙순, 유용호, 장영주, 김태중, 이재국(기록), 윤상화 - 총 14명 -
훈련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날 : 임원 및 대원 상호 인사, 원정장비 사용법</li> <li>- 둘째날 : 설상 아이젠 위킹, 설벽하강, 암벽하강, 안자일렌, 설사면 추락시 제동법</li> </ul>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훈봉(59학번) 고문님이 훈련 후 뒷풀이 식사를 찬조하였음.</li> <li>- 매월 3번째 주말에 단체훈련을 하기로함.</li> <li>- 2월 24일 전남대 총동창회 총회에 적극 참석하기로함</li> </ul>
사 진	
사진설명	제2차 훈련 (설상훈련) 모습

### ■ 제3차 훈련

일 시	2012. 3. 18(일)
장 소	광주광역시 “무등산” 일원 ( 증심사 - 바람재 - 중봉 - 서석대 - 장불재 - 새인봉 - 증심사 )
참 석 자	이정옥(단장), 오성개(훈련대장), 박헌주(훈련부대장), 김영필(훈련부대장) 김나연, 김경선, 장희, 설낙순, 유용호, 장영주, 김태중, 김가영, 이재국, 노경미, 박주현, 윤상화 - 총 16명 -
훈련내용	- 멤버쉽 고취 - 하중훈련 : 배낭무게 10kg, 운행거리 약 8km - 암벽훈련 : 새인봉 슬랩에서 하강 및 주마령
특기사항	- 김나연(69학번) 대원이 훈련 후 뒷풀이 식사를 찬조하였음. - 다음 훈련은 4월 21(토)~22(일) 중에 실시하기로 함.
사 진	
사진설명	제3차 훈련 (하중훈련 및 암벽훈련) 모습

## ■ 제4차 훈련

일 시	2012. 4. 21(토) 20:00 ~ 22(일) 09:00
장 소	1. 산행 : 무등산 일원 (둔병재-안양산-백마능선-장불재-중봉-사양능선-늦재삼거리-원효사) 2. 야영 :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동 1089-1 동광주LPG충전소 인근 산속
참 석 자	김훈봉(고문) 이정옥(단장), 오성개(훈련대장), 김영필(훈련부대장) 김경선, 장희, 윤성룡, 윤현식, 이재국, 윤상화 - 총 11명 - 장영주 대원은 BC로 합류함.
훈련내용	- 정상공격을 대비한 야간산행 적응훈련 - 하중훈련 - 야영을 통한 멤버쉽 고취
특기사항	이중호(전남대OB산악회, 82학번) 동문이 산행시작과 말미에 승용차로 어프로치를 도와주었음.
사 진	
사진설명	제4차 훈련 (둔병재에서 산행을 시작하면서)

## ■ 제5차 훈련

일 시	2012. 5. 19(토)
장 소	전남 보성군 제암산 일원
참 석 자	오성개(훈련대장), 김영필(훈련부대장) 김나연, 김경선, 장희, 윤성룡, 김태중, 윤현식 - 대원 7명 - 전남대학교 교수산악회(회장 김석현) 회원 약 15명
훈련내용	- 용봉인 산악회 중 “전남대학교 교수산악회”와 동행 산행 - 하중훈련 - 멤버쉽 고취
특기사항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산행 후 교수산악회(회장 김석현) 회원들께서 성대한 뒷풀이 식사를 제공하셨습니다.
사 진	
사진설명	제5차 훈련 (제암산에서 전남대 교수산악회원들과 함께)

■ 제6차 훈련

일 시	2012. 5. 26(토) ~ 27(일)
장 소	전남 담양군 금성산성 일원
참 석 자	김훈봉(고문), 이정옥(단장), 오성개(훈련대장), 김영필(훈련부대장) 김나연, 김경선, 장희, 장영주, 김태중, 윤현식 - 대원 10명 -  전남대학교 OB산악회(회장 오성개) 회원 약 20명
훈련내용	- 야영을 통한 멤버쉽 고취 - 용봉인 산악회 중 “전남대학교 OB산악회”와 동행 산행 - 대원 회의 ( 훈련대에서 원정대로 전환, 대원확정, 원정대 업무분장, 발대식 준비, 학교의 공문협조, 대행사 원정설명회 )
특기사항	- 이정옥 단장과 대원들이 자발적으로 양주, 맛난 음식 등을 찬조하였음.
사 진	
사진설명	제6차 훈련 (금성산성 주차장에서 야영하는 대원들)

■ 대행사 원정설명회

일 시	2012. 6. 21(목) 18:30
장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4-1 (2층) 헤초여행개발(주) 광주지점
참 석 자	설명자 : 점장 정오승 김훈봉(고문), 이정옥(단장), 오성개(대장), 김영필(부대장) 김경선, 김태중, 윤현식, 이재국, 윤상화 - 총 10명 -
설명내용	- 원정대 행정처리 절차 안내 - 원정대 전체일정 및 등반일정 설명 - 원정준비물 안내 - 주의사항 등 안내
특기사항	- 김태중 대원이 뒷풀이 식사 등을 찬조하였음.
사 진	
사진설명	헤초여행개발(주) 광주지점 정오승 점장(맨 우측)이 원정 전반을 설명함

■ 제7차 훈련

일 시	2012. 6. 23(토)
장 소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산 일원
참 석 자	김훈봉(고문), 이정옥(단장), 최희동(부단장), 오성개(대장), 김영필(부대장) 김경선, 설낙순, 김태중, 윤현식, 이재국 - 대원 10명 - 전남대학교 총동창산악회(회장 최희동) 회원 약 5명 전남대학교병원 산악회(회장 정성두) 회원 약 20명
훈련내용	- 용봉인 산악회 중 “전남대학교병원 산악회”와 동행 산행 - 하중훈련, 멤버쉽 고취
특기사항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산행 후 전남대병원산악회(회장 정성두) 회원들 께서 성대한 뒷풀이 식사를 제공하셨습니다.
사 진	
사진설명	전남대총동창산악회, 전남대병원산악회 회원들과 단체사진촬영

## ■ 최종 장비점검

일 시	2012. 8. 4(토) 11:00
장 소	전남대학교 대강당 앞 잔디밭
참 석 자	김훈봉(고문), 이정옥(단장), 오성개(대장), 김영필(부대장) 김경선, 김태중, 윤현식, 이재국, 윤상화 - 9명 -
점검내용	- 개인장비 항목별 준비여부 점검 - 전체 개인장비 무게 점검 (추후 공동장비와 식량을 감안하여 개인 카고백의 총 무게를 15kg 이내로 조정하도록 함)
특기사항	- 김태중(수의과대학 교수) 대원이 뒷풀이 식사 등을 찬조하였음.



### 1-3. 발대식

일 시	2012. 7. 31(화) 14:00	사회 : 김영필 부대장
장 소	전남대학교 본부 국제회의동 1층 1세미나실	
참 석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 원 : 이정옥(단장) 오성개(대장) 김영필 김훈봉 김나연 김정선 장영주 윤성룡 설낙순 김태중 윤현식 이재국</li> <li>▪ 학 교 : 김윤수(총장) 복문수(기획처장) 이준웅(학생부처장) 김석현(교수산악회 회장)</li> <li>▪ 총동창회 : 허정(이사장) 박승현(부이사장)</li> <li>▪ 전남대병원 : 정명호(교육연구실장, 순환기내과 교수) 교육연구실(황정혜 임희선 정유진)</li> <li>▪ 광주산악연맹 : 김제정(전무이사)</li> <li>▪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 이정현(전무이사) 서상진(사무국장)</li> <li>▪ 조선대학교 산악회OB : 이도형 박태규 김용철 전의천 유미정 신광철</li> <li>▪ 송원대학교 산악회OB : 정우연</li> <li>▪ 전남대학교 OB산악회 : 박종현 송희태 이명숙 이은수 김민철 김용욱 김수영 한창균</li> <li>▪ 전대신문 : 이재근 최지은</li> <li>▪ 기타 대원 가족 등 다수</li> </ul>	
식 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회선언</li> <li>2. 국민의례</li> <li>3. 내외빈소개</li> <li>4. 격려사 : 전남대학교 김윤수(총장), 총동창회 허정(이사장)</li> <li>5. 인사말 : 이정옥(단장) 오성개(원정대장 )</li> <li>6. 대원소개 : 오성개(원정대장)</li> <li>7. 원정개요 소개 : 오성개(원정대장)</li> <li>8. 꽃다발 및 격려금 전달</li> <li>9. 폐회선언</li> </ol> <p>- 기념촬영 및 기념품 배포</p>	



발대식 후 기념촬영

## 제2장 원정개요

### 2-1. 원정결과

1. 명 칭 : 개교60주년기념  
2012 전남대학교 세계7대륙 최고봉(유럽 엘브루즈) 원정등반
2. 대 상 산 : 유럽 최고봉 엘브루즈(Elbrus. 5,642m)  
행정적위치 : 러시아연방의 카바르디노-발카리아 공화국  
지리적위치 : 코카서스 산맥 (43°21'N 42°26'E)
3. 등반루트 : 남면 - 중앙안부 - 서봉
4. 원정기간 : 2012년 8월 10일 ~ 19일 (9박 10일간)
5. 원정대원 : 원정대장 외 13명
6. 등반목적 : 가) 전남대학교 개교 60주년, 총동창회 창립 56주년 기념  
나) 후학들에게 용봉인의 도전정신 고취  
다) 용봉인 산악회 세계7대륙 최고봉 5번째 등반

지역	최고봉	용봉인 산악회 등정자(학번)
① 아시아	에베레스트 (사가르마타, 초모랑마 8,848m)	2000년 박현주(86) 2006년 이현조(92) 이형관(95)
② 남미	아콩카구아 (6,959m)	2000년 서은호(84) 2001년 이현조(92)
③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5,895m)	1996년 이정옥(69) 2000년 김훈봉(59) 2009년 박주현(07)
④ 북미	데날리 (맥킨리 6,194m)	2009년 김가영(02)
⑤ 유럽	엘브루즈 (5,642m)	2012년 오성개(76) 윤성룡(82) 설낙순(84) 김태중(88) 윤현식(96) 이재국(04)
⑥ 오세아니아	칼스텐즈 (푼각자야 4,884m)	2014년 예정
⑦ 남극	빈슨매시프 (4,897m)	2016년 예정 (총동창회 60주년)

7. 등반결과 : 현지시각 2012. 8. 15. 10:54 오성개 대장 외 5명 등정

8. 연 락 처 : 원정대장 오성개 010-8547-8125

8. 대 행 사 : 혜초여행개발(주) 광주지점 ( 점장 정오승 ) 010-3645-7986

T: 062-511-6959 F: 02-6918-6959 E-mail : worldmountain@gmail.com

## 2-2. 운행결과

날짜	내용	교통	일 정	취침 고도
1일	이동	스쿨버스 비행기	05:00 전남대 대강당 → 인천공항 12:50 인천공항 출발 18:00 모스크바 도착 (시차 -5시간, 비행 9시간25분)	
2일	이동	비행기 승합차	•오전: 모스크바 공항 → 미네랄니예보디 공항 (2시간) •오후 : 미네랄니예보디 → 체겟마을 (4~5시간)	2,100
3일	1차 고소적응	리프트 산행	•오전(고소적응 등반) : 체겟마을 → 체겟봉(3,404m) → 체겟마을 •오후 : 장비점검 및 휴식	2,100
4일	이동 2차 고소적응	승합차 케이블카 리프트 산행	•오전 : 체겟마을 → 아자우역→미르역→가라바쉬역 → BC •오후 : (고소적응등반) BC → 프리웃산장(4,157m) → BC	3,800
5일	3차 고소적응	설상차 산행	•고소적응 등반 : BC → 파스튜코바락(4,690m) → BC 17:00 다음날 정상등정을 위해 일찍 취침	3,800
6일	등정	설상차 산행 설상차	01:00 기상 후 조식 02:30 출발(설상차로 이동) 03:20 파스튜코바락(4,690m) 도착 08:40 동봉과 서봉의 안부(Saddle/5,416m) 도착 10:54 정상(서봉/5,642m) 등정 13:20 파스튜코바락 도착 - 설상차로 하산 14:20 BC 도착	3,800
7일	하산	리프트 케이블카 승합차	•오전 : BC → 가라바쉬역→미르역→아자우역 → 체겟마을 •오후 : 자유시간 •석식 : 등정 자축 만찬	2,100
8일	이동	승합차 비행기 관광버스	•오전 : 테르스쿨(체겟마을) → 미네랄리보디 → 모스크바 •오후 : 모스크바 관광(참새언덕, 모스크바 대학)	
9일	관광 이동	관광버스 비행기	•오전 : 모스크바 시내관광 (붉은광장, 성바실리 대성당, 전승기념공원, 아르바뜨 거리) •오후 : 공항으로 이동 21:35 모스크바 출발	
10일	이동	스쿨버스	10:50 인천공항 도착 → 공항신도시에서 중식 14:00 공항신도시 출발 18:00 전남대 대강당 앞 도착 후 해산	

## 2-3. 원정대원

직책/성명	사 진	주 요 경 력
고 문 김훈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9 전남대학교 산악회 입회</li> <li>● 1980~1985 전남대 OB산악회 회장</li> <li>● 1997~1998 광주전남 산악연맹 회장</li> <li>● 1981 유럽 알프스 등반 ● 1997 키나발루 등정</li> <li>● 2000 킬리만자로 등정 ● 2002 칼라파타르 등정</li> <li>● 2012 엘브루즈 등반</li> </ul> <p>현재 ▶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전남대학교 총동창산악회 명예회장 ▶ 김훈봉회계사무소 대표</p>
단 장 이정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9 전남대학교 산악회 입회</li> <li>● 1971 전남대학교 산악회 회장</li> <li>● 1989 89-90동계에베레스트 등반</li> <li>● 1996 킬리만자로 등정</li> <li>● 1997 한국 초오유 원정대장</li> <li>● 2003~2004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회장</li> <li>● 2006~2009 전남대학교 OB산악회장</li> <li>● 2012 엘브루즈 원정대 단장</li> </ul> <p>현재 ▶ 까치화원 대표</p>
부단장 최희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4 전남대학교 입학</li> <li>● 2001~2006 광주광역시체육회 감사</li> <li>● 2003~2010 전남대학교 사무총장</li> <li>● 1990 일본 북알프스 동계 등정</li> <li>● 1991 대만 옥산 등정, 1993 키나발루 등정</li> <li>● 2006 전남대 초모랑마(에베레스트) 원정대 부단장</li> <li>● 2007 '자랑스러운 전남대인 상' 수상</li> <li>● 2012 엘브루즈 등반(부단장)</li> </ul> <p>현재 ▶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 전남대학교 총동창산악회 회장 ▶ (주)지오투정보기술 총괄부사장</p>
원정대장 오성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6 전남대학교 산악회 입회</li> <li>● 1990 낭가파르밧 등반대장</li> <li>● 2000 키나발루 등정</li> <li>안나푸르나 트래킹, 락시피크 등정</li> <li>● 2008 한국청소년오지탐사대 대장</li> <li>● 2009~2010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회장</li> <li>● 2012 엘브루즈 등정(원정대장)</li> </ul> <p>현재 ▶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명예회장 ▶ 전남대학교 OB산악회 회장 ▶ 살레시오중학교 교사</p>
원정부대장 김영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8 전남대학교 산악회 입회, 등산학교수료</li> <li>● 1994 무등산사랑 환경대학 제1기 졸업</li> <li>● 2003~2010 광주산악연맹 상임이사 및 사무국장</li> <li>● 2006 전남대 초모랑마(에베레스트) 원정대 부대장</li> <li>● 2006 용봉인 영예대상 수상</li> <li>● 2008 전남대 가셔브롬 I, II 원정대 대장</li> <li>● 2012 전남대 엘브루즈 원정대 부대장</li> </ul> <p>현재 ▶ 전남대학교 총동창산악회 산악대장 ▶ 전남대학교 OB산악회 부회장 ▶ 조경회사 "(주)그린월드" 대표</p>

직책/성명	사 진	주 요 경 력
<p>사진기록</p> <p>김나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9 전남대학교 산악회 입회</li> <li>● 1972 전남대학교 산악회장</li> <li>● 1982~1985 전남대OB산악회 서울지회 회장</li> <li>● 2012 엘브루즈 등반</li> </ul> <p>현재 ▶ 전남대학교 OB산악회 회원 ▶ 무역회사 “동일상사” 대표</p>
<p>의료</p> <p>김경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6 광주전남 등산학교 수료</li> <li>● 1990 낭가파르밧 등반</li> <li>● 2000 키나발루 등정 안나푸르나 트래킹, 락시피크 등정</li> <li>● 2004 백두산 등반</li> <li>● 2011 라닥 트래킹</li> <li>● 2012 엘브루즈 등반</li> </ul> <p>현재 ▶ 살레시오중학교 보건교사</p>
<p>장비</p> <p>장 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7 전남대학교 산악회 입회</li> <li>● 1997 전남대 초오유 등반</li> <li>● 2008 전남대 가셔브롬 원정대 훈련대장</li> <li>● 2012 엘브루즈 등반</li> </ul> <p>현재 ▶ 전남대학교 OB산악회 회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무</p>
<p>식량</p> <p>장영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2년 출생</li> <li>●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자과정 43기</li> <li>● 2008 광주전남 등산학교 수료</li> <li>● 2009 광주산악연맹 부회장</li> <li>● 2009 전국체전(산악) 광주시 선수단장</li> <li>● 2012 엘브루즈 등반</li> </ul> <p>현재 ▶ 전남대 총동창산악회 부회장 ▶ 베네치아 월드컵점 / 천하컨벤션 대표</p>
<p>장비</p> <p>윤성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2 전남대학교 산악회 입회</li> <li>● 2012 엘브루즈 등정</li> </ul> <p>현재 ▶ 전남대학교 OB산악회 회원 ▶ (주)용성 대표</p>

직책/성명	사 진	주 요 경 력
기록 설낙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4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입학</li> <li>● 2002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트레킹</li> <li>● 2006 코타키나발루 등정</li> <li>● 2007 백두대간 중주, 후지산 등정</li> <li>● 2010 백두산 등정</li> <li>● 2011 몽골 체체궁산 등정</li> <li>● 2012 엘브루즈 등정</li> </ul> <p>현재 ▶ 전남대학교병원 산악회 총무 ▶ 전남대학교병원 교육연구행정팀장</p>
동영상기록 김태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8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입학</li> <li>● 2012 엘브루즈 등정</li> </ul> <p>현재 ▶ 전남대학교 교수산악회 총무 ▶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p>
팀닥터 윤현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6 전남대학교 의대산악회 입회</li> <li>● 1998 백두대간 중주</li> <li>● 1998 용서폭 개척등반 (10개 루트 개척)</li> <li>● 2000 안나푸르나 트레킹, 락시피크 등정 랑탕 트레킹, 나야강 등정</li> <li>● 2006 전남대 초모랑마(에베레스트) 원정</li> <li>● 2006 용봉인 영예대상 수상</li> <li>● 2012 엘브루즈 등정</li> </ul> <p>현재 ▶ 전남대학교 의대산악회OB 회원 ▶ 전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전임의</p>
수송 이재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 전남대학교 산악회 입회 광주전남 등산학교 수료 하계 및 동계 장기등반 7회</li> <li>● 2012 엘브루즈 등정</li> </ul> <p>현재 ▶ 광주전남 등산학교 강사 ▶ 전남대 공과대학 응용화학공학부 재학</p>
수송 윤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 전남대학교 산악회 입회 광주전남 등산학교 수료 하계 및 동계 장기등반 2회</li> <li>● 2012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3위</li> <li>● 2012 엘브루즈 등반</li> </ul> <p>현재 ▶ 전남대학교 산악회 총무 ▶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임산공학과 재학</p>

## 가이드

직책/성명	사 진	주 요 경 력
총괄 정오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2년생</li> <li>● 1990년 파키스탄 낭가파르밧 등반.</li> <li>● 2000년 대산런 맥킨리 원정대 등정.</li> <li>● 2001년 한국오지탐사대 카프카스탐 지도위원 엘브루즈 등정, 잔투칸 한국초등, 카프카스산군 등반</li> <li>● 2002년 월드컵 성공기원 에베레스트 등반</li> <li>● 2005년 임자체 등정</li> <li>● 2005년 휴먼원정대 초모랑마등반</li> <li>● 2006년 로체샤르 등반</li> <li>● 2012년 엘브루즈 등정</li> </ul> 현재 ▶ 바자울 회원 ▶ 헤초여행개발(주) 광주지점 대표
현지가이드 엘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대행사 총괄가이드</li> <li>● 유창한 영어실력</li> </ul>
등반가이드 (리더) 빅토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2년생</li> <li>● 엘브루즈 100회 이상 등반</li> <li>● 거주지 : 엘레즈(Elez)</li> <li>● 전화 : 8 (47467) 6 3572</li> <li>● 영어 잘함</li> </ul>

### 동행하신 분들



박원빈, 유신열, 정완진

### 모스크바 관광 가이드



권정택(현지 유학생)

## 2-4. 엘브루즈 개요

명칭 : 엘브루즈(Elbrus, 5,642m)  
 행정적 위치 : 러시아연방의 카바르디노-발카리아 공화국  
 위도 : 43°21'N  
 경도 : 42°26'E  
 고도 : 5,642m(서봉), 5,621m(동봉)

### 1. 개관

엘브루즈(Elbrus)는 페르시아어로 ‘눈 덮인 산’이라는 뜻이며, 지역주민들은 ‘행복의 산(Mountain of happiness)’이라고 부른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다. 그 벌로 바위에 사슬로 묶인 채 독수리에게 심장을 파먹히는 형벌을 당한다. 바로 그 산이 엘브루즈이다.

엘브루즈가 속해 있는 코카서스는 러시아어로 카프카즈(Kavkas)라 불리며 구소련 남부의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있는 산계와 지역의 총칭이다. 엘브루즈는 코카서스 산맥의 주봉으로 위도 43°21'N, 경도 42°26'E에 위치해 있고 서봉(5,642m)과 동봉(5,621m) 등 두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졌으며 활동을 멈춘 사화산이다. 따라서 적설량이 많은 겨울을 제외하고는 등반중 화산 흔적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해발 4,800m의 파스튜코바락 부근은 화산활동이 멈추면서 굳은 돌이 많이 쌓여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러시아의 카바르디노-발카리아 자치공화국에 속해 있으며, 서쪽으로 흑해, 동쪽으로 카스피해, 그리고 남쪽으로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공화국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코카서스 산맥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설산고도는 남쪽사면이 3,200m, 북쪽사면이 3,500m이다. 동쪽 기슭에는 아직도 유황가스가 분출되며 광천이 많다. 면적이 183km<sup>2</sup>에 달하는 이 화산에는 22개의 빙하지역이 있으며, 이 빙하에서 나오는 물과 눈은 쿠반강과 테레크강의 수원으로 흘러든다.

일반적으로 몽블랑(4,807m)을 유럽 최고봉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지리학적인 면에서 보면 코카서스 산맥의 주봉인 엘브루즈가 유럽의 최고봉이다. 등반을 하는데 기술적인 면에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 역시 해발 5,000m를 넘는 고산이니 만큼 고소적응과 변덕스런 날씨가 중요 변수이다.



유럽의 강역도

## 2. 자연환경

코카서스의 지형은 중앙부의 볼쇼이코카서스 산맥을 경계로 북부는 넓은 저지대와 스타브로폴고원, 남부는 카스피해 서안의 쿠라아라스크 저지대, 흑해 동안의 콜히다 저지대 그리고 두 저지대 남쪽의 말리카프키스 산맥으로 이루어진다. 북부 저지대와 스타브로폴고원은 대서양 연안의 프랑스평원, 동유럽평원, 서시베리아평원에서 이어지는 수평지층의 구조평야 가장자리에 있으며 볼쇼이코카서스 산맥은 코카서스 산맥의 주능선을 이룬다.

주능선 남쪽의 쿠라아라스크 저지대와 콜히다 저지대는 한때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였으며 그남쪽에는 말리코카서스, 자카프카스구릉, 화산성 아르메니아고원이 복잡한 산계를 이루며 위치해 있다. 해발 고도는 카스피해 연안 저지대부터 엘브루즈까지 지형과 높이의 기복이 매우 심하다.

카스피해에 접해 있는 독립국가연합의 아제르바이젠 공화국 수도 바쿠에서 북서쪽으로 흑해를 향해 1,500km의 길이로 뻗어있는 코카서스산맥은 동서양을 나누는 역할을 한다. 러시아인들이 카프카스산맥이라 부르는 이 산맥은 또한 남북으로도 110~180km에 이르는 넓은 산자락을 펼치고 있어 전체적으로 커다란 산군을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의 1월 평균기온은 영하 2~6℃, 7월 평균기온은 23~28℃이며 2,000m 이상의 산간지역 1월 평균기온은 영하 8℃, 가장 더운 달인 8월은 13℃이다. 최고봉 엘부르즈를 중심으로 중부 코카서스 지역에는 카즈백(5,047m), 시하라(5,200m), 디치타우(5,198m), 코시탄타우(5,150m) 등 5,000m급 봉우리가 여러 개 솟아있다.

## 3. 세계등반사

공식적인 등반대에 의한 엘브루즈의 첫 등정 시도는 1829년 러시아의 엠마누엘 장군(General Emmanuel)이 했다. 원정대는 러시아 과학학회 과학자들과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지인들이 원정을 도왔다. 북면 말카(Malka)강 상류에 베이스캠프를 친 원정대는 기상 조건이 좋아지자 '가장 눈이 많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기 시작했고, 대원들은 정상에 오르려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킬라 카쉬로프(Killar Khashirov)'라는 현지인 사냥꾼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원이 등반을 포기하고 하산했다. 홀로 등반을 계속한 킬라 카쉬로프는 오전 11시경 정상에 도달했고, 등반에 사용했던 지팡이를 정상에 돌로 고정시킨 후 하산했다. 이렇게 하여 1829년 7월 10일 최초로 동봉이 등정되었다. 러시아에서는 이날을 '러시아 등산의 생일'로 기념하고 있다.

그로부터 39년 후인 1868년 7월 31일에는 영국인 등산가 더글라스 프레쉬필드(Douglas Freshfield)와 A.W.무어(Moore)가 아키야 소타이예프(Akiya Sottayev)의 안내를 받아 박산의 베이스를 출발, 남면을 통하여 정상인 서봉을 최초로 등정했다. 이들이 오른 등반 루트는 현재 노말루트(Normal Route)가 되었다. 러시아에서는 아키야 소타이예프를 서봉 초등자로 기록하고 있다.

## 4. 한국등반사

국내에서는 1989년 소련의 소빈터스포츠에서 개최한 소련 코카서스 국제산악캠프의 공식 초청에 의해 등반이 이루어지기 시작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 2-5. 접근 및 등반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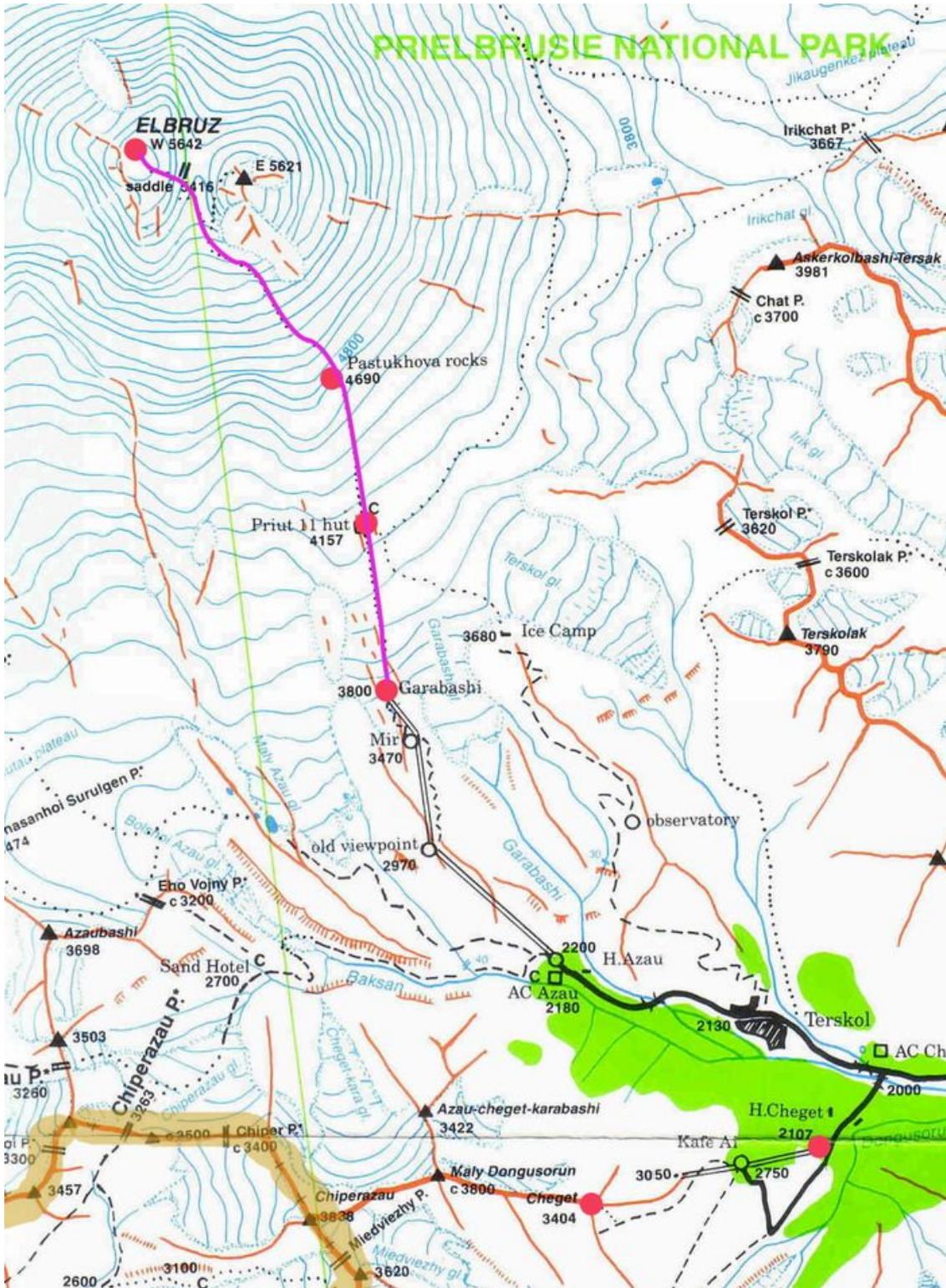


접근루트 (한국 - 모스크바 - 엘브루즈)



등반루트 개요

(남면에서 접근하여 동봉을 우회 한 후 중앙안부에서 서봉으로 올라간다.)



엘브루즈 기본등반로 지도

# 제3장 운행기록

## 3-1. 전체 운행기록

전남대학교 산악회(11학번) 윤상화

### 원정 1일째 : 8월 10일 (금) 전남대 - 인천공항 - 모스크바

05:00. 전남대학교 대강당 앞에 대원들이 모인다. 이정옥 단장님과 많은 선후배님들이 원정대를 환송하러 와주었다. 이 꼭두새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다니... 많은 분들의 환송을 받으며 버스가 출발하고 새벽에 못한 잠을 청한다. 나는 정말로 원정을 간다. 이제야 실감이 난다.

9:30 인천공항에 도착. 서둘러 짐을 내리고 공항 안으로 짐을 가져가 최종적으로 무게를 잰다. 수화물인 카고백 하나당 무게는 20kg 이하여야 하고 초과할 경우 overcharge를 내야한다. 대체로 모든 대원들이 16~18kg 사이였고, 나는 15kg으로 여유가 있어서 공동 짐을 더 넣을 수 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인 12시 반까지는 시간도 많이 남아서 여유롭다. 다만 수화물 무게를 측정할 때 카고백의 무게가 개인당 20kg를 넘으면 안 되는건지 모든 대원들의 카고백 무게를 합쳐 그 무게가 20kg×인원수를 넘으면 안되는 건지 후자로 잘못 알았다가 탑승수속대에서 카고백의 짐들을 이리저리 옮기는 수고를 해야 했다. 카고백은 ‘개인당’ 20kg를 넘으면 안된다.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기다리는 대원들

12:30 비행기에 탑승한다. 이코노미 좌석이라 좁고 불편한데 러시아 항공사 비행기여서 그런지 안내방송에서의 한국말이 너무 어수룩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힘들다.

13:30 원래 12시50분 이륙 예정이던 비행기가 40분 늦게 이륙한다. 비행기에서 9시간 동안이나 있어야 하는데 정신없이 잠자고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18:00. 드디어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셰레메티예보 공항이다. 러시아와 한국의 시차는 5시간으로 지금 한국은 밤 11시다. 공항에서 수화물을 찾고 한국인 학생가이드 권정택씨와 만난 후 버스로 이동한다. 이동 중에 가이드에게 러시아 말을 배우고 한식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는다. 러시아에 도착하기 전부터 기내식으로 러시아의 맛을 느꼈는데, 입맛에 맞지

않아 고생이었다. 그 때문인지 김치찌개가 굉장히 맛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버스로 이동한다.

21:20 호텔에 도착한다. 체크인 후 짐을 풀고 샤워를 한 후 대원들은 한 방에 모여 축구 한 일전을 보며 이정옥 단장님이 사주신 양주도 마시고 얘기를 나눈다.



모스크바의 셰레메티예보 공항과 한식당이 있는 호텔

#### 원정 2일째 : 8월 11일 (토) 모스크바 - 미네랄니예보디 - 테르스콜의 체켓마을

4:30 기상. 체크아웃

5:20 1층 로비로 내려간다. 가이드 권정택 씨가 준비해온 아침식사 샌드위치, 빵, 사과 등을 받고 버스에 오른다. 어제 한일전 축구를 보면서 술을 마셨는데 그 때의 숙취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아침 식사로 받은 것들이 도저히 넘어 가지 않는다. 결국 조금만 먹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고 버스 안에서 잠을 청한다. 가이드 권정택씨가 호두까기인형 노래를 틀어 주었는데 자장가 삼아 잠이 든다.

6:30 다시 셰레메티예보 공항에 도착한다. 이번엔 러시아 국내선을 타고 미네랄니예보디로 이동하는데, 다시 수화물 무게를 체크해야 한다. 국내선의 경우 개인 수화물 무게가 15kg 초과 시 overcharge를 내는 줄 알았는데 똑같이 20kg만 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짐을 다시 싸는 수고 없이 그대로 수화물을 처리한다.

8:50 비행기 탑승.

11:20 미네랄니예보디 공항이다. 약 2시간 반이 걸렸다. 수화물을 찾고 밖으로 나간다. 현지 가이드 엘레나와 등반가이드 빅토르가 마중나와 있다. 짐을 승합차 2대에 실어 출발한다. 박산으로 가는 도중 도로변 간이 휴게소에서 김훈봉 선배님이 사주신 맥주를 마셨다. 조금 더 가다가 식당에서 점심으로 백숙을 먹었다. 해바라기밭이 끝없이 펼쳐진다. 장관이다. 박산검문소에서 거주지 증명신고를 했다. 남동쪽으로 우회전하여 박산계곡으로 들어선다. 한 참 달리다 티르니아우즈의 전통시장에서 과일과 고기를 구입했다. 박산계곡의 끝에

있는 테르스콜 지역의 체켓마을에 도착했다. 미네랄니예보다 공항에서 5시간 걸렸다.

17:30 체켓마을 도착. 원래 볼프람 호텔에서 묵기로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에센호텔로 바뀌었다. 볼프람 호텔은 예전에는 최고의 호텔이었는데 요즘에는 다른 좋은 곳이 많이 생겼다. 호텔에서 짐을 풀고 샤워를 한 후 호텔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카카오톡도 하고 보이스트agram을 이용하여 가족과 통화를 한다.

19:00 호텔 1층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빵, 수프, 볶음밥. 차례로 나왔는데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볶음밥의 밥은 먹기가 힘들 정도이다.

식사 후 팀닥터인 윤현식 선배에게서 고소 적응에 도움이 되는 약을 받은 후 숙소로 들어가 따뜻한 물을 조금씩 꾸준히 마셨다.

### 원정 3일째 : 8월 12일 (일) - 제1차 고소적응 훈련(체켓봉 등반)

7:00 기상.

7:20 룸메이트인 장영주 선배님이 밥을 하러 먼저 나가신다. 러시아 현지 음식에 힘들어 하고 있는 대원들을 위해 장영주 선배님이 아침에 밥을 하는 것이다. 어젯밤 회의에서 결정됐단다.

8:00 아침식사를 하는데 매실장아찌에 티르니아우즈에서 장봐온 고기까지 같이 먹으니 식단이 훨씬 풍성해진다.

8:50 호텔 앞에서 집합. 고소적응 훈련으로 체켓봉을 오르는 날이다. 바로 옆에 리프트 시설이 있다. 그것을 타고 바로 올라가면 된다. 좌우로 설산들이 보이는데 잠깐이지만 엘브루즈도 모습을 드러난다. 리프트 2번으로 체켓봉에 더 가까이 올라갈수 있지만 우리는 훈련을 위해 리프트는 한번만 타고 나머지는 걸어 오른다. 날씨가 맑아서 주위 풍경이 잘 보인다. 체켓봉 오르는 길 왼쪽으로 돈구조륜과 나크라타우가 보인다. 웅장하다. 가파른 산과 그 아래로 모레인 지대가 보인다. 돈구조륜과 나크라타우에는 눈이 많이 쌓여있다. 반면 체켓봉은 눈이 없다.

13:10 체켓봉 도착. 정확히는 전위봉이다. 정상은 암벽이라 갈 수 없다. 단체사진과 개인사진 촬영을 하였다. 부대장인 영필 형이 티르니아우즈에서 사온 스케치북을 꺼낸다. 대원들의 환심을 유도한다. 가족사랑 문구들 적어서 엘브루즈 정상에서 촬영해준단다. 한 사람당 단돈 5만원이라고 유혹한다. 판매대금은 내 장학금(격려금)으로 사용한다. 이것만 있으면 앞으로 가정생활이 편안하다는 말들에 모두 솔깃해한다. 몇몇 대원이 구매한다. 나중에 이 스케치북은 큰 사고를 불러올 뻔 하게 된다.

하산할 때는 무리하지 않게 리프트 2번을 모두 이용하여 내려간다.

15:50 하산완료. 하산하자마자 바로 근처 식당으로 가서 손 씻고 늦은 점심식사를 한다. 역



체켓봉 정상과 부근의 조형물

시나 처음엔 언제나 빵과 샐러드 같은 걸 내오고 나중에 주 메뉴인 양고기 나온다. 원래 닭고기를 시켰는데 중간에 전달이 잘못 되어서 양고기가 나온 것이다. 식사 후 쭉 자유시간이다.

20:00. 호텔 1층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다. 식사 후 해초여행사 가이드인 정오승 선배님이 다음 날의 일정소개를 해준다.

#### 원정 4일째 : 8월 13일(월) - BC입성, 2차 고소적응 훈련(프리웃산장)

7:00 기상. 밖에서 노크소리가 들린다. 부대장 영필 형이다. 등반에 필요 없는 짐은 호텔에 맡겨야 한다. 복장을 점검하고 카고백에 짐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신다.

8:00 아침식사. 식당 직원들과 언어가 불통이다. 김태중 교수님이 김훈봉 선배님을 위해 계란 후라이를 직접 주문한다. 유창한 영어 대신에 바디랭귀지로 소통한다.

9:30 승합차 2대를 이용하여 케이블카 기점인 아자우(2,180m)로 이동.

9:45 아자우 도착. 체켓마을에서 15분 거리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케이블카에 오른다. 일단 첫 케이블카는 나, 재국이형, 현식이형 이렇게 3명이 먼저 타고 올라간다. 올라가서 도착하면 다음 케이블카를 기다렸다가 짐을 내린다. 중간 정거장에서 내려 다시 두 번째 케이블카에 짐을 일일이 옮기기를 반복한다. 케이블카에 올라 순식간에 고도가 높아지니 주위에 나무는 없어지고 점점 삭막한 검은 바위 지대가 나타난다. 이제 케이블카 아래에도 눈과 얼음이 보인다. 카프카스 산맥의 날카로움이 느껴진다. 아자우역에서 종착역인 가라바쉬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케이블카 2회, 리프트 1회를 이용해야 하는데, 케이블카를 이용할 때는 짐들을 케이블카에 넣어 같이 이동하면 된다. 리프트를 이용할 때에는 그게 되지 않았다. 리프트는 사람 하나만 겨우 탈수 있을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 카고백은 리프트 하나에 통째로 넣어 무인으로 올려 보냈다. 그래서 몇 사람은 먼저 가서 카고백을 받았다. 대원이 많은 우리팀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11:10 가라바쉬역(3,800m) 도착. 드럼통 모양의 배럴산장이 보인다. 우리 숙소는 아니다.

가라바쉬역에서 BC(숙소)까지 짐과의 씨름을 하는데, 3800m 고도에 적응을 못해서인지 한 걸음 한걸음이 힘들고 숨이 차오른다. 체켓봉에서 고소증상이 없었기에 여기에서도 당연히 팬츠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고소의 무서움이 느껴진다.

11:50 BC 입성. 배럴산장 건너편에 있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묵는다. 실내는 좌우 2층 침대이다. 12명까지 사용 가능하다. 우리는 8인 1실로 사용한다. 넉넉하게 쓰기 위함이다. 12명 쓰기에는 비좁아 보인다.



숙소 내부모습과 화장실

12:40 점심식사를 하러 간다. 바로 아래 컨테이너가 식당으로 사용된다. 기다란 직사각형 식탁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라면을 먹는다. 고도가 높다 보니 라면이 붙어 있다. 그래도 라면은 맛있다.

13:30 산행 준비를 시작한다.

14:00 산행 시작. 이번 산행은 프리웃 산장(4,157m)까지 등반하는 고소 훈련인데, 정상 등정일과 똑같은 차림으로 입고 간다. BC에서 조금 올라가니 얼음지대가 나온다. 아이젠을 착용한다. 김나연 선배님이 아이젠으로 고생하신다. 아이젠 사이즈 조정이 안되어있다. 겨우 착용하여 출발한다. 아이젠을 신고 설산을 걷는 훈련을 하는데 워낙 천천히 오르는 터라 고소 증상은 전혀 오지 않는다. 그냥 평소보다 조금 몸이 둔한 건 있는데 이 정도는 고소 증상이라고 할 것 까지도 없게 느껴진다. 문제는 오르는 와중에 날씨가 안 좋아진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처음엔 조금 내린다. 오버자켓을 아직 안 꺼낸다. 천둥과 함께 우박이 쏟아진다.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도 상당히 나빠진다. 등반가이드 빅토르가 위험하니 하산해야 한다고. 여기서 가이드의 등반 관련 지시는 곧 법이다.

15:30 하산 시작.

16:00 하산완료. 젖어 버린 장비와 의류를 펼쳐놓고 휴식시간을 가진다.

내 옆자리에 계시던 성룡이 형은 술이 고프시란다. 장희형을 불러 소주를 조금 하신다. 나도 반잔을 얻어먹는다. 안주로 전복 장조림도 얻어먹는다. 죽인다.

19:00 저녁식사. 밥과 된장국에 김치까지 완전한 한국식이다. 장희 형님이 맛난 밥을 먹게

해준 식당 아주머니 레일라에게 박수 치잔다. 일동 박수. 방에 돌아와서 우모복을 꺼입고 따뜻한 물이 담긴 수통으로 젖은 장갑을 말린다. 고산병은 잠자고 있을 때 심해지기도 하는데 나도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 오늘 밤이 고비라는데 무사히 지나가길..

## 원정 5일째 : 8월 14일 (화) - 3차 고소적응 훈련 (파스튜코바락)

6:50 기상.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간다. 어제도 속이 좋지 않았는데 속이 낫지가 않는다. 화장실을 갔다 와서 내 수통으로 물을 마시려니 차가워서 속이 좋지 않을 것 같다. 각 숙소에는 따뜻한 물이 담긴 포트를 하나씩 갖다 놓았는데 거기에 있는 물을 내 수통에 있는 물과 섞으니 먹을만해진다. 물 마시고 쉬고 있는데 동행하신 분 중 한 명이 고소증상이 있는 모양이다. (혜초여행사를 통해 일반인 3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어제 저녁에는 엄청 심해서 비아그라까지 먹고 잤단다. 좀 나아지긴 했다고 하신다. 그래도 아직 머릿속이 흔들린다고 말하신다. 그리고보니 설사도 고산병의 하나라는 말을 들었는데 내 속이 안좋은 것도 고산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7:40 아침 식사를 하였다. 밥을 미역국에 말아 먹는다. BC에 와서는 한국 식단으로 많이 먹게 된다. 정상 등정 날까지 대원들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시키려는 노력 같다. 식사를 마치고 배가 아파 또 화장실을 간다. 어제 저녁부터 화장실을 4번이나 갔다.

8:50 설상차를 타러 간다. 설상차 근처에 가서 아이젠을 신고 올라탄다. 우리가 이용하는 설상차는 2대로 하나는 지붕이 있고 하나는 지붕이 없는 것이다. 나는 지붕이 없는 쪽을 탔는데 날이 밝고 해가 비추고 있어서인지 전혀 춥지 않다. 정상 등정 날은 새벽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버틸만 할 것 같다.



고소적응을 위하여 파스튜코바락을 오른 대원들

설상차가 출발한다. 한 참을 오른 후 멈춘다. 차를 한 번 갈아타야 한단다. 중간에 설상차가 오르기에는 위험한 지역이 있단다. 차에서 내려 비탈길을 걸어 올라간다. 조금 걸으니 설상차가 대기하고 있다. 탑승한다.

10:00 설상차에서 내려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한다. 한 줄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올라간다. 느린 속도로 오른다. 조금 빨리 움직이면 고소 증상이 바로 나타날 것 같아서 불안하다. 그

래서 아예 거의 마지막에서 천천히 따라간다. 올라가다 평평한 지대에 멈춰 사진을 찍고 하산하기로 한다. 여기가 어디냐고 빅토르에게 물어보니 파스튜코바라 꼭대기라고 한다. 조금 더 아래에서 영필 형은 포토존을 찾고 있다. 적당한 포토포인트가 있으니 전 대원 빨리 내려오라고 무전이 날라온다.

11:45 하산시작. 뒤에서 성룡 형님이 아이젠을 벗고 내려가려 하신다. 그러나 주위의 강압에 의해 다시 신고 내려가신다. 경사가 가파른 곳도 없어서 아이젠을 벗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설산에서 아이젠을 벗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인지 다시 신으라는 목소리가 많다. 조금 내려가다 단체 포토타임을 가진다. 깃발을 번갈아가며 사진을 찍는데 깃발이 끝도 없이 나온다. 몇 십 개를 찍은 건지 모른다. 포토타임 후 기운이 빠진 대원들은 서둘러 내려간다. 내려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 상당히 먼 거리다. 올라올 때는 설상차를 타고 와서 몰랐다. 끝없이 내려간다. 대원들 모두 힘들어 한다.

14:25 하산완료. 대장님이 나보고 먼저 가라고 하셔서 먼저 내려왔다. 뒤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먼저 와있는 사람부터 늦은 점심식사를 시작한다. 메뉴는 튀긴 닭이라고 들었는데 삶은 닭인 것 같다. 주위에서 너무 짜다는 평이 자꾸 나오는데 난 짭짤한 게 맛있다. 점심식사라기보다는 간단한 간식 개념으로 가볍게 먹으라고 해서 조각 하나만 먹는다.

15:50 하산이 늦어졌던 대원들이 도착한다. 생각보다 늦어지지 않고 모두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다. 자유시간을 가지게 되어 낮잠을 잔다. 난 잔지 안잔지도 헷갈리는데 성룡이형이 코까지 골면서 잤다고 한다. 하산길이 길고 피곤하긴 했나 보다.

17:00 저녁식사로 또다시 반가운 한식이 등장한다. 김치찌개와 계란후라이, 김 부각을 먹었다. 식사를 마치니 대장님이 일정과 알림사항을 말씀해주신다. 내일은 드디어 summit. 정상 등정날이다. 옷을 더 두껍게 신경 써서 입으라고 하신다.

## 원정 6일째 : 8월 15일(수) - 정상등정

01:00 기상. 성룡 형님이 “아이씨, 비오네” 하신다. 큰일이다. 다행히 비가 엄청 쏟아지지는 않는지 사람들이 숙소를 나갔다 들어오곤 한다. 부대장 영필 형이 예정대로 출발하니 준비하라고 하신다. 모두들 바쁘게 복장을 챙긴다.

01:30 계란후라이와 누룽지로 간편하게 식사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 이중화를 신고, 아이젠을 착용 그리고 오버자켓을 입는다.

02:10 설상차에 오른다. 지붕이 없는 설상차여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느껴진다. 비가 엄청 많이 내리지는 않아서 비를 맞고 있는 게 힘들거나 하지는 않지만 영덩이와 허벅지가 젖어 들어가는 느낌은 좋지 않다. 낮에 탈 때 보다 새벽에 타는 설상차는 훨씬 춥다. 그렇다고 추워서 못 견딜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비에 젖은 상태에서 추우니까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설상차를 갈아타기 위해 저번 훈련 때 처럼 중간에 내려야 한다. 내리고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앞에 있던 성룡 형님의 아이젠이 앞쪽과 뒤쪽이 분리된다. 다행히 나사볼트를 손보니 고쳐진다. 문제는 설상차 위에 올라가서 다시 손본다고 나사볼트를 뺐다가 그 나사볼트를 떨어뜨려 잃어버린 것이다. 그냥 깡으로... 행운에 맡기고 올라간다고 하신다.



정상 가는날 새벽

설상차에서 모두 내린 후 줄지어 올라가기 시작한다. 사방이 어두컴컴해서 헤드랜턴 불빛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는데, 젖은 상태에서 바람도 불어와 굉장히 춥다. 특히 오버미튼이 완전히 젖어 손가락이 너무 시렵다.

안그래도 추워서 힘든데 왠지 앞사람을 따라가는게 벽차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가는 거지 할 정도로 앞사람이 빨리 가는 것 처럼 느껴진다.

고소적응 훈련 때 쓰지 않았었던 고글도 처음 써본다. 그 때문인지 머리가 어지러운 것 같다. 그리고 이 어지러움이 고소증상이라는 걸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알게 되었다.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게 정상인 상태가 아니다. 추가로 고용된 가이드가 "Are you okay?"를 반복한다. 아무래도 시간이 더 지나면 완전히 맛이 가버릴 것 같다. 앞에 있는 김나연 선배님을 부른다. "제가 가지고 있는 깃발을 누구에게든 건네야겠습니다." 재국이형이 오셔서 깃발을 받아가신다. 그 과정에서 대원들의 사연이 담긴 스케치북이 비탈면으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재국 형이 잡으려고 달려 간다. "안되 잡지마." 김나연 선배님이 위험하다며 제지하신다. 스케치북이 눈보라와 함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다.

더 올라가고 싶다. 힘이 있을 때 하산해야한다. 당장 하산하라 하신다. 결국 김훈봉, 최희동 선배님이 혼자 하산할 저를 위해 같이 하산을 시작한다.

06:20 하산완료. BC에 도착하니 머리가 조금 나아진다.

시간이 지나니 점점 정상등정을 포기한 대원들이 BC에 도착하기 시작한다. 고소 때문에 포기한 분들은 거의 없었고 약천후로 인해 하산하게 되었다. 내려온 대원들이 하는 말이 하나 같이 날씨가 너무 좋지 않다는 것이다.

14:20 정상등정에 성공한 대원들이 내려온다. 오성개 대장님을 비롯한 6명의 대원이 오전 10시 50분경에 약천후를 뚫고 정상등정에 성공하였다. 대원들이 무사히 내려 왔다는게 기쁘고 다행이다. 한편으로는 내가 올라가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다.

17:00 이른 저녁식사를 하며 축하주를 마시고 맥주를 사와 밖에서 술자리를 가진다.



강풍으로 눈사람이된 대원, 하산 후 즐거운 식사

### 원정 7일째 : 8월 16일(목) BC철수 (가라바쉬 - 체겟마을)

7:00 기상. BC에서의 마지막 아침을 먹고 짐을 싣는다.

착하고 푹부러진 식당아주머니 레일라와 사진을 찍고 아쉬운 작별인사를 한다.

10:00 가라바쉬역에서 1인용 체어리프트로 미르역까지 내려간 다음 낡은 케이블카로 2번 갈아타 내려간다. 케이블카에서 내려온 후 차를 타고 전에 묵었던 체켓 마을 호텔로 돌아왔다. 점심을 먹고 오후는 장비점을 둘러서 구경도 하고 낚시도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다.

한편 모든 대원들이 오후 내내 편안안 휴식을 즐기는 동안에도 김영필 부대장님만 홀로 호텔방에서 노트북으로 보고서를 편집하고 계신다. 최희동 부단장님이 국내의 총동창회 임원들에게 원정 성공을 알린다. 임원님들은 모두 기뻐하셨단다. 특히 허정 이사장님께서서는 현지의 자축파티 비용을 지원하겠노라 하셨다고 한다. 등정 성공을 자축하는 만찬이 화기에 애한 분위기 속에 이루어진다.



요리사 레일라와 한 컷



성공 자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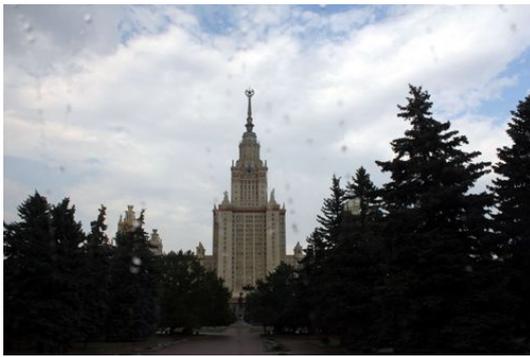
### 원정 8일째 : 8월 17일(금) 체겟마을 - 미네랄니예보디 - 모스크바

06:00 기상과 함께 밥을 먹고 짐을 챙겨 올 때와 같이 차 2대로 나뉘어 출발한다. 어제 대행사와 의논하여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모스크바로 향하게 된 것이다.

10:20 미네랄니예보디 공항에 도착한다. 엘레나, 빅토르와 작별인사를 한다.

14:40 모스크바 공항. 수화물을 찾는데 박원빈씨가 비행기 내에 짐을 놔두고 그냥 내렸단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짐을 놔두고 내리면 스튜어디스가 바로 주인에게 찾아주는데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못 찾는 경우가 많다 한다. 그 짐을 골격 해버린다는 것이다. 혹시나 했는데 결국 짐은 사라져버리고 찾을 수 없다.

15:45 한국인 학생가이드 권정택씨를 다시 만나 모스크바대학을 관광을 한다. 한식당에서 육개장을 먹는다. 육개장이 얼마나 맛있는지 육개장을 시킨 사람들은 남기는 법 없이 깔끔히 먹어 치운다. 육개장을 싫어한다던 설낙순 선배님 까지도 맛있게 드신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즐거운 술자리를 가진다.



모스크바 대학

## 원정 9일째 : 8월 18일 (토)

07:00 기상 후 호텔 2층 뷔페에서 식사.

09:00 짐을 모두 챙겨 차에 싣고 모스크바 관광에 나선다. 붉은광장, 크레믈린궁, 성바실리카성당,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탑, 지하철, 아르바트 거리 등 가이드 권정택씨를 따라 모스크바를 관광한다.



크레믈린궁 안에서 관광객을 위하여 펼쳐지는 사열의식과 러시아 아가씨의 멋진 사진포즈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탑의 조각상



아르바뜨 거리의 화가

16:00 어제 갔었던 한식당에 똑같은 메뉴인 육개장을 시켜먹는다.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공항으로 직행, 공항수속을 끝내고 비행기 탑승을 기다린다. 멤버쉽 좋은 우리 대원들은 공항에서 오랜시간 대기하는 방법을 금방 찾아낸다. 치맥이다. 치킨+ 맥주



모스크바 공항에서 즐거운 대원들

21:30 드디어 비행기 이륙

## 원정 10일째 : 8월 19일 (일)

10:50 인천공항 도착. 이정옥 단장님과 송희태, 유명희 선배님, 대원 가족들이 마중 나와 계시고, 좀 있으니 김재우 선배 부부도 오신다. 공항신도시의 감자탕집에서 점심을 먹으며 즐거운 자리를 가진다.



인천공항에 마중나오신 분들과

13:30 공항신도시에서 출발. 서울에 사시는 최희동 부단장님, 김나연 선배님과는 헤어지고 광주로 향한다.

17:30 전남대 대강당 앞에 도착하니 많은 분들이 마중나와 계신다. 대원 가족들, 산악회 선후배님들까지 많은 분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 단장님께 귀국보고 후 공식 해산한다. 재학생과 OB산악회원들은 근처 식당으로 간다. 다시 만난 즐거운 얼굴들과 대화를 나눈다. 나의 첫 해외원정등반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다.

**언제나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시고, 많은 도움 아끼지 않으신 모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3-2. 대원별 등반기

용봉인의 기상으로 엘브루즈를 열다.



최희동

(부단장,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총동창산악회장)

엘브루즈는 두 얼굴을 가진 산이었다. 날씨가 좋을 때면 고소적응 능력과 강건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면 큰 어려움 없이 오를 수 있는 산이지만, 날씨가 흐리거나 바람이 불 때면 전문산악인조차도 쉽게 오를 수 없는 산이었다. 우선 만년설로 인해 장비를 제대로 챙겨야 하고, BC에서 정상까지 하루에 극복해야할 고소 차이나 거리가 만만치 않으며, 강풍과 눈보라가 보통 산에서 느끼기 어려운 정도로 세차기 때문이다.

개교 60년을 맞이한 전남대 7대륙 최고봉 원정대는 2006년 세계의 지붕이라는 초모량마(에베레스트)를 등정했던 기세를 모아 60년의 어울림을 이루고자 59학번인 김훈봉 선배부터 11학번인 윤상화 후배까지 14명의 대원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진눈깨비가 내리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새벽 2시 BC를 출발하여 10시 57분 오성개 대장을 비롯한 6명의 대원이 초속 35m의 강풍과 영하 20°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눈보라를 극복하고 정상등정에 성공하여 용봉인의 진취적 기상을 확인하였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원정의 계획, 사전 훈련을 철저히 하여 정상등정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고, 대원들 또한 절반 이상이 이미 엘브루즈 고도 이상을 오른 경험과 대학 단일팀이라는 강력한 팀워크를 갖추고 있어서 사기가 충천한 상태였다. 또한 현지(테르스콜)에 도착하여 1차 고소적응을 위한 체켓봉(3,404m) 등정이나 파스튜코바락(4,690m)까지 마무리 고소적응 훈련을 할 때까지 전 대원이 정상을 오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다. 특히 출발하기 전 다녀왔던 사람들의 대한 글이나 KBS 2의 영상앨범 산에서도 혹한의 추위나 강풍으로 등정이 어려웠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개념상 쉬운 산이었다.

그러나 막상 정해진 날에 등정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엘브루즈의 신은 가혹하기만 했다. 이틀 전부터 등정자가 없을 정도로 날씨가 나빠졌다. 결코 만만한 산이 아니라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그래도 우리 원정대는 강인한 의지와 풍부한 고산 경험을 바탕으로 목숨을 담보한 위험을 감수하였다. 정상 직전에는 기어오를 정도의 열정과 의지로 등정에는 성공했지만 정상사진마저 찍을 수 없을 정도로 강풍이었다. 만약 개교 60년이라는 대명제가 아니었다면 과연 정상을 오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했다. 하산 후 알았던 사실이지만 당일 체코대원 한 명이 정상의 길목인 새들에서 5m 앞도 볼 수 없는 가시거리와 강풍으로 인해 대열에서 이탈하여 사망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도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7월 31일 엘브루즈원정대 발대식을 마친 우리 일행은 사전 장비검사와 비상식량 등 휴대 품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드디어 8월 10일 새벽 5시 모교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에어로프리트, 러시아항공), 10여 시간의 비행 끝에 모스크바 셰르메티예보 공항에 도착했다. 입국수속을 하는데 별도의 서류 없이 여권을 제출하니 비자를 확인한 후 체류허가서를 발행해 주었다. 이 서류는 러시아에 체류하는 동안 국내 여행을 하는데 꼭 필요한 서류이며 출국할 때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한식당에 들러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마치고,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테르스콜로의 이동을 위해 국내선을 타려면 내일 새벽 호텔을 나서야 한다. 그러나 대원들은 내 방으로 모였다. 맥주를 마시며 노트북을 앞에 놓고 런던올림픽 축구 한·일간의 동메달 결정전을 보았다.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아 화상이 자주 끊긴다. 2:0의 승리다. 우리들의 등정에도 좋은 징조라는 덕담을 나눈다. 잠자리에 들었다. 서너 시간쯤 잤을까 아침도 거른 채 6시 호텔을 출발했다. 공항에서 샌드위치로 아침을 때웠다.

2시간 반의 비행 끝에 미네랄니예보디(민보디)에 도착했다. 현지 여행사 여사장(러시아인)과 산악 수석가이드인 빅토르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다. 미네랄니예보디 공항은 입국장과 출국장이 별도의 건물로 구분되어 특이했다. 도심을 지날 때는 차가 지체되어 짜증이 났다. 시내를 벗어나자 우리의 김제평야보다 훨씬 더 넓은 평야가 나왔다. 옥수수 밭과 해바라기 밭이 연이어 있다. 햇살을 받은 해바라기 밭의 장관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국토가 넓어 마을들이 밭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느낌이다. 러시아 인구가 6억쯤 되어야 이러한 땅을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2,700만 명이 희생되었다는 2차 세계대전의 흔적이 아직까지 아픔으로 남아 있음을 느낀다. 민보디에서 테르스콜로 가는 중간 한적한 식당에서 늦은 점심으로 닭백숙을 맛있게 먹었다.

우리를 태운 버스는 평야지대를 지나 박산계곡으로 접어들었다. 코카서스산맥의 연봉들이 마치 성곽처럼 둘러싼 비좁은 협곡으로 박산강이 용트림하듯 빠르면서도 웅혼하게 굽이쳐 흐른다. 그 옆으로 실처럼 2차선 도로가 끝없이 계곡 속으로 빨리 들어갔다. 중간 마을인 티르니아우즈의 작은 전통시장에서 야채와 고기 등 찬거리를 구입했다. 테르스콜에 도착하여 체겟봉 아래 호텔에 투숙했다.(해발 2,100m)

12일 오전 9시, 1단계 고소적응을 위하여 체겟봉에 올랐다. 리프트가 2단계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첫 번째 정류장(2,750m)에서 내려 걷기로 했다. 청량한 공기와 맑은 날씨가 우리를 반겨준다. 모두들 감탄을 하며 왼쪽으로 난 산길을 따라 구비를 돌아가니 말로만 들었던 돈구조룬 서봉(4,437m)과 나크라타우봉(4,277m)이 구름과 만년설을 머리에 인 채 웅장한 모습을 나타내고, 오른쪽 멀리로는 국경 너머 그루지아공화국의 낸스카라봉(3,700m)이 히말라야의 8천 미터 산봉인양 의젓하게 자리하고 있다.

1시간여를 오르니 리프트의 종점(3,050m)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돈구조룬봉을 구경하며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고, 다음날 엘브루즈를 오를 예정인 사람들은 체겟봉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종점에서 정상까지는 표고 차이 300m정도에 거리도 그리 멀지 않다. 고소 적응을 위해 우리는 길을 멀리 돌아 서서히 정상을 향했다. 체겟봉은 몇 개의 봉우리

로 이루어져 있다. 정상은 이 길보다 더 멀리 돌아야 된다. 우리가 실제로 오르는 봉우리는 체겟봉의 어깨에 해당한다. 체겟봉은 테르스쿨을 가운데 두고 엘브루즈와 마주 보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 마치 오색을 사이에 두고 설악산과 점봉산이 마주보고 있는 것과 같다.

고소적응을 위해 사진도 찍고 간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다 리프트 종점으로 내려섰다. 옆 카페에서 맥주를 한 잔씩 마시고 3,050m에서 2,750m를 거쳐 2,107m까지 직선으로 리프트를 타고 내려오는데 코카서스산맥의 웅장한 봉우리에 둘러싸인 박산계곡이 실처럼 가늘게 이어지며 협곡을 이루고 있어 자연에 대한 경외와 스틸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늦은 점심으로 양 꼬치구이가 나와 보드카에 맥주를 곁들이며 등정을 기약했다.

8월 13일 나흘째, 테르스쿨의 아자우(2,180m)로 이동하였다. 케이블카를 갈아타며 미르역(3,470m)으로 이동한 후 다시 리프트를 타고 가라바쉬(3,800m)에서 내려 예약된 숙소에 짐을 풀었다. 대부분 이 정도 높이에 오르면 고소증세가 나타난다. 고소적응훈련이 잘된 덕분인지 아니면 팀닥터(윤현식)가 처방을 잘해서인지 크게 고소증상을 느낀 대원은 없다. 최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박스형 숙소 두 개가 우리에게 배정되었다. 이층으로 된 내부에는 12명 정도까지 잘 수 있는 면적이다. 우리는 8명이 한 숙소를 쓰게 됐다. 라면으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프리웃산장(4,157m)까지 고소적응 훈련을 다녀오기로 했다.

정상등정 하는 날과 같은 복장으로 고소적응훈련을 한다. 플라스틱등산화에 열 발 아이젠을 하고 안전벨트에 우모복을 입었다.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길을 걸어 올라갔다. 1시간 쯤 걸었을까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안개로 뒤덮였다. 빗발이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여벌의 옷이 많지 않은 우리는 아쉬움을 안고 되돌아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숙소에 돌아오자 하늘이 다시 맑아지며 햇볕이 내리쬐어 옷을 말릴 수 있었다.

14일 새벽 5시쯤 해돋이를 보러갔다. 김훈봉 선배와 장희, 장영주 후배 이렇게 네 사람이 부근의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여명에 보이는 코카서스 산맥의 영봉들이 살아 꿈틀거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온다. 오랜 기다림 끝에 구름 사이를 뚫고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었다. 많은 곳에서 해돋이를 봤지만 이곳은 또 다른 감회를 가져다주었다. ‘우리 대원들이 무사히 정상 등정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마음으로 빌었다. 가족들의 건강도 소원했다. 이곳은 5시 반쯤 여명이 밝기 시작해 저녁 9시경 어두워지는 낮이 밤보다 훨씬 긴 지역이다.

하늘은 높고 맑았다. 오히려 오늘 같은 날 등정을 해야 한다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산은 하얀 구름에 얼굴을 숨기고 있었다. 마지막 고소적응훈련이 시작했다. 어제와 같은 복장으로 설상차를 파스투코바락 인근 4,700m지점에서 내렸다. 대열을 갖추고 지그재그로 해발 4,900m까지 올랐다. 그곳에서 삼삼오오 모여 준비해간 간식으로 점심을 대신하고 사진도 찍으며 시간을 보냈다. 30여분 해찰을 하다 하산을 시작했는데 김영필 부대장이 배경이 좋은 곳을 골라 날씨가 나쁠 것에 대비해 기념사진을 찍자고 해서 여럿 컷의 단체사진을 찍었다.

하산을 재촉했다. 눈이 녹고 있다. 발을 디디면 눈이 밀려 신체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다. 스틱에 힘을 주게 되어 다리보다는 팔이 힘들어한다. 경사가 심한 곳은 발을 디디면 얼

음이 통째로 함께 내려흐르는 등 하산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서너 명씩 그룹으로 나뉘어 선두와 후미의 차이가 상당한 벌어지게 되었다. 프리웃산장을 지나자 곳곳에 작은 크레바스 등이 자리하고 있다. 날씨가 나빠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면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었다.

고소적응 훈련을 통해 장비의 중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다. 플라스틱 등산화를 구입하기가 부담스러워 김영필 부대장의 것을 빌려왔다. 발이 너무 꽉 끼어 걸을 때면 무척 부담스러웠다. 또한 스틱 두 개 중 하나가 조립과정에서 고장이 났다. 스틱 하나를 대어줬는데 길이가 맞지 않아 불편했다. 그런 와중에 급경사를 내려오다 미끄러지면서 무릎 아래를 다치게 되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으나 이내 부담이 되었다.

오늘 훈련은 원래 계획으로는 BC에서부터 걸어서 파스튜코바락을 왕복할 예정이었다. 정상등정일을 앞두고 무리한 훈련은 오히려 체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하였다. 그래서 상행은 설상차를 이용하고 하산은 걸어서 하였다. 그래도 일부는 지친 표정이 역력했다. 간식으로 닭백숙 한 조각을 주어 맛있게 먹고, 저녁은 오후 5시쯤 일찍 먹기로 했다. 내일 새벽 한 시에 일어나야 하기에 저녁시간을 앞당겨 가급적 일찍 취침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한국과의 시차가 다섯 시간이니 이곳의 새벽 1시는 한국에서 6시에 해당된다. 한국식으로 오늘을 자자고 농담을 나누며 잠자리에 들었다.

15일 새벽1시, 잠자리에서 깨어나니 밖에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벌써 일어난 사람들 역시 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다. 화장실도 갈 겸 기상상태를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더니 비가 제법 굵게 내린다. 엘브루즈 정상 역시 먹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이내 비는 우박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렇게 맑은 날씨를 빌었던건만 최악의 날씨를 맞게 되니 과연 정상등정이 가능할까 의문이 들었다.

식당으로 가니 오성개 대장, 김영필 부대장, 정오승 혜초 광주지점장이 모여 있다. 날씨에도 불구하고 산행을 강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내일 날씨가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개교 60년을 기념한 원정인데 그냥 물러설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뜻을 담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와 오늘 산행은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알리고 식당으로 모이도록 했다. 일반 산악회의 원정이라면 정상등정을 못하더라도 문제는 없겠지만 ‘개교 60년을 기념하는 7대륙 최고봉 등정’이기에 정상을 목표로 한 우리의 책임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누룽지로 간단히 아침을 마치고 장비와 복장을 갖춘 후 설상차에 올랐다. 날씨가 좋지 않아 긴장을 했는지 모두들 말이 없다. 좋았던 어제 날씨에도 정상을 못 올랐다고 하는데 오늘의 날씨에 정상을 오른다니 긴장할만하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4,900m 지점까지 최대한 올라갔다. 날씨가 좋지 않은 만큼 등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미 한 팀이 정상을 향해 오르고 있었다. 세찬 바람에 눈보라가 우리를 맞이한다. 장갑 위에 병어리장갑을 겹쳐 끼고 헤드랜턴에 의지한 채 앞사람의 뒤를 따라 어둠이 짙은 길을 걸었다.

바람소리와 거친 숨소리 뿐,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난의 길ियो, 자신과의 싸움이였다. 고소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지그재그로 천천히 걸으며 올랐다. 한 사람이라도 정상에 올라야 한다. 그 생각만이 머리에 맴돌았다. 정상등정을 위해 어제 오성개 대장과

김영필 부대장과 상의했던 역할을 되새기면서 일부러 제일 후미에서 걸었다. 정상에 오르자 하는 욕심이 누군들 없겠는가? 그러나 전원이 오르기에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않다. 누군가의 정상등정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그것이 고산원정대의 기본이라 생각한다.

5,000m 지점에서 잠시 휴식을 가졌다. 또 다른 고소에 대한 한계지점이다. 지금까지 모두들 고소에 대한 적응을 아주 잘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BC에서 고소증세를 나타낸 사람도, 적응훈련 중 고통을 느낀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출발을 하려는데 막내인 재학생 윤상화 대원이 갑자기 고소증상을 나타냈다. 더 이상의 등반은 상태를 악화시킬 것이다. 하산 시켜야 한다. 고민이다. 가이드도 없이 고소에 걸린 사람을 혼자 내려 보낼 수는 없다. 김훈봉 선배께 상화를 테리고 우리가 내려가자고 말씀드렸다. 우리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올라간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후배를 돌보는 마음 역시 소중하다. '진정한 용기란 상황에 따라 오르려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수 있는 결단이다'고 판단했다.

엘브루즈는 정상인 서봉과 마주한 동봉은 멀리서 보면 마치 여인의 젖가슴처럼 솟아있다. 두 봉우리 사이가 새들(5,416m)이다. 이곳은 훨씬 더 세찬 바람이 불었다고 한다. 6명의 대원과 정오승 지점장, 두 사람의 산악 가이드만 정상에 오르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산을 결정했다. 정상을 오르는 동안에도 위험한 순간은 계속되었다고 한다. 눈보라 때문에 고글이 얼어붙어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어 절벽으로 가고 있더라는 끔찍한 상황, 청빙과 강풍으로 인해 정상을 기어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아렸다. 기다시피 정상에는 올랐으나 정상 사진을 찍지도 못하였다. 김영필 부대장에게 귀국하는 날까지도 꾸중을 들어야 했던 정상 등정자들, 오죽하면 정상에 오른 죄인들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고산원정대는 누가 정상에 올랐는지 밝히지 않는다. 오른 사람만의 노력이 아니라 전체 대원들의 희생과 노력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전남대학교 엘브루즈 원정대는 목적을 이뤘다.

정상등정을 자축하는 테르스콜에서의 파티도, 모스크바에서 클레몰린 궁이나 붉은 광장, 전승기념관 등의 관광도 후일의 소중한 추억이 되어 남아있을 것이다.

엘브루즈 등정을 위한 계획에서부터 여러 차례의 훈련, 장비점검, 그리고 실행에 고생했던 김영필 부대장의 노고와 행사를 후원해 주신 총동창회 최상준 회장님, 허정 이사장님, 김국웅 직전회장님, 정인채, 노동일 상임부회장님, 박승현 부이사장님 그리고 서울동창회 김성전 회장님께도 감사드린다. 4년간 모교를 위해 수고하시다 퇴임하신 김윤수 총장님의 퇴임선물로 엘브루즈 정상등정을 드리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다.

또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참석하신 김훈봉 선배님과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참여한 동료 대원들께도 감사드린다. 늦게 합류하여 좋은 경험을 했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봉우리 오세아니아의 칼스텐즈, 남극의 빈슨매시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용봉인의 기개가 2016년 새해의 알람이 되어 우리 잠을 깨우리라. 웅혼한 가슴을 두드리리라.

## 폭풍설을 뚫고 유럽최고봉에 오르다.



오성개

(원정대장, 전남대 OB산악회장, 살레시오중학교 교사)

많은 원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회자되었고,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나눈 결과로 김영필 부대장의 엘브루즈 계획 초안이 처음 나온 때가 작년 5월이었지만 진척이 없이 몇 개월을 허비하였다.

8월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개교60주년 기념행사로 신청을 하고, 대원선발, 훈련, 행사준비로 바쁘게 움직이느라 많은 시행착오와 수정이 잇따르게 되어 이정옥 원정단장님과 실무진은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

모든 전남대 구성원을 아우르는 대원선발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또한 고산과 설산등반에 필요한 기술을 짧은 기간에 훈련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1월에 대원선발공고를 하고, 2월 7일 원정설명회에서 첫 대면을 하였다. 반드시 거쳐야 할 설상훈련 시기를 놓쳐서 고민하던 중 김영필부대장이 고심 끝에 찾아낸 병풍산 북벽은 완벽한 훈련 대상지였다. 2월 18~19일 첫 훈련에서 아이젠웁, 안자일렌, 활락정지, 하강훈련 등을 짧은 시간동안 알차게 해냈다. 이 훈련이 없었다면 숙달되지 않은 대원들은 원정기간 중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이 후 5차례의 훈련으로 다져진 팀웍을 통해 이뤄낸 소중한 성과이기에 모든 전남대학교 구성원과 함께 기쁨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원정을 떠난다. 기대와 설렘 한편으로 걱정이 밀려온다. 대원들이 짧은 기간에 고소적응을 잘 해낼지, 날씨가 잘 맞추어 줄지 되뇌어본다. 한편으로 내 자신의 능력을 믿고 대원들을 믿어보자는 다짐도 한다. 산에서는 겸손해야하지만 이번에는 너의 능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 걱정말라고 다그친다. 능력에 비해 타고난 적응력을 제대로 발휘할 때라고 생각도 해본다. 평소 생각하지 않은 것을 떠올리는 것을 보면 긴장하고 있나보다. 자꾸만 다른 팀들이 쉽게 성공했다는 것이 부담이 된다. 어떤 산이든 쉽게만 오를 수 있는 산은 없는 법인데....

새벽 5시에 광주를 출발하여 48시간의 긴 여정 끝에 테르스쿨의 에센호텔에 여장을 푼다. 피로감을 느낄 여유도 없이 공해가 없는 상쾌한 공기가 코끝에 느껴져 기분이 새로워지고 적당한 긴장도 느껴진다. 저녁을 먹고 사슬릭(양고기 구이)에 가볍게 맥주를 한 잔 하면서 등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고소적응요령, 고소에서 행동과 마음가짐, 대원들의 팀웍, 장비 다루는 요령 등 실제로 할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들을 이론으로나마 공부를 한다. 한편으로 조금 긴장이 풀린 대원들을 보면서 내심 긴장이 되기도 한다. 무사히 마치고 사랑스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지.

3일째 : 오늘은 체켓봉을 오르는 날이다. 리프트로 빠르게 고도를 올려 2,700m 중간부분

부터 걸어 올라간다. 3,400m에서 최대한 오래 머무르면서 엘브루즈를 바라다 보며 의지를 다진다. 불행히도(?) 오늘 엘브루즈 날씨가 좋다. 3일 뒤에 날씨가 나쁠 수 있을지 몰라 노심초사한다. 다행스럽게 모두 고소적응이 순조로워 보인다.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는 모습 뒤로 나의 긴장하는 모습이 겹쳐진다. 나는 모든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탈이다. 내려오는 길목 식당에서 양고기 사슬릭 만찬을 즐긴다. 술을 적당히 먹도록 주의를 준다.

4일째 : 드디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BC로 향하는 날이다. 짐을 운반하기 쉽게 카고백 하나에 포장하고, 남은 짐은 호텔에 맡긴다. 만년설이 있는 설산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환경이지만 대원들이 잘 적응해주리라 믿고 싶다. 케이블카 2회와 리프트 1회를 이용해 BC에 도착해서 8인용 컨테이너에 짐을 풀 다음, 점심을 먹고 프리아웃 산장까지 적응 훈련에 나선다. 3,900m의 고소이다 보니 숨이 차고, 장비 적응이 덜된 대원들은 더욱 힘들어한다. 2시간 동안 오르다보니 날씨가 나빠진다. 비가 오고 번개가 쳐서 후퇴를 결정한다. 잠시 휴식을 취하며 장비점검을 하는 동안 날씨가 맑아진다. 정상공격을 하는 날도 이렇게 좋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그동안 러시아식 식사를 주로 했지만, 등반하는 동안의 식사는 한식으로 준비해서인지 대원들의 식욕과 컨디션은 아주 좋아 보인다. BC에는 등반팀을 위한 식당과 식사준비를 위한 러시아 아주머니가 있어 불편함이 없다. 고소적응을 위해 나눠준 다이어모스와 혈행개선제 기넥신은 대원들 각자 컨디션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먹도록 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도록 한다. 자다가 화장실을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견뎌내야 하는 과정이다.

5일째 : 오전 9시30분 설상차에 몸을 싣는다. 빠른 고소적응을 위해 설상차로 파스튜코바 락 아래까지 고도를 올린 상태에서 걸어서 고도를 더 올린다. 힘들어하는 대원들이 나타난다. 자신의 생애 최고 고도를 갱신하고 있는 대원들이라 보니 적응 속도가 느리면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날씨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어 정상공격 계획을 짜는데 머리가 복잡해진다. 장시간에 걸쳐 사진을 찍다보니 짜증이 섞인다. 고소이다 보니 하산길에서도 대원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내일 정상을 등반하고 나서도 날씨가 나쁘면 탈진한 대원들이 설상차를 이용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BC에 도착했다. 다양한 개인의견이 표출된다. 일치가 어렵다. 몇 번의 회의를 거쳐 수정된 계획으로 내일 정상공격을 알리며 수습을 한다. 머리가 복잡해진다. 5시에 이른 저녁을 먹고, 내일 새벽 1시에 기상, 2시 출발을 위한 최종 준비를 마치고 잠을 청한다. 걱정이 밀려오고 쉽게 잠이 오지 않는다. 10시부터 날씨가 나빠지더니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진눈개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결정을 했으니 출발은 해야지? 조금 지나면 날씨가 좋아지겠지?

6일째 : 걱정과 위안을 반복하며 잠자리에서 일어나 누룽지를 먹고 출발준비를 마친다. BC에서는 비가 섞여 있어 불편하지만, 고도를 올리니 눈보라로 바뀌어 오히려 등반하기는 낫다. 대열을 유지하되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추월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지시를 내린다. 어제 밤에 잠을 제대로 못자서인지 졸음이 밀려온다.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차리려한다. 나는 대장이다.

5,000m를 넘어서면서 3명의 대원을 하산시킨다. 동봉을 지나가는데 날씨가 점점 더 나빠진다. 5,100m 지점에서 다시 2명을 하산시킨다. 본인들로서도 매우 아쉽겠지만 날씨가 나빠서 함께 할 수 없어 미안하다. 이제 남은 인원은 8명이다. 지금까지 쏟은 체력소모로 인

해 오늘 후퇴하면 내일 다시 공격하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내일 날씨가 더 나쁘다는 예보도 있으니 배수진을 치기로 결단을 내린다. 한편으로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5,350~5,400m의 새들에서 대원들의 상태와 각오를 묻고 최종 대원을 결정한다. 2명의 대원이 하산하기로 하고 6명의 대원은 정상으로 향한다. 날씨만 좋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대원인데 강풍으로 하산하니 아쉽고 미안하다.

힘차게 서봉 능선을 향해 전진한다. 바람이 너무 세고 날씨가 매우 춥다. 눈보라가 휘날려 안경에 입김이 서려 시야가 흐리다. 내려간 대원과 스키고글로 바꿀 것을 하는 후회가 오지만 이미 늦었다. 설 곳도 없고 눈보라가 심해 앞 팀을 앞지르며 갈 수 밖에 없다. 오르다보니 정상부위 설원이다. 초속 35m 정도의 바람 속에 체감온도가 영하 30도 정도가 되는 것 같다. 바람에 맞서 대원들이 안전벨트를 잡고 발 맞춰 나간다. 힘들게 한 발 한 발 전진한다. 20분정도 되는 거리를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시야가 흐리고 힘이 달리다 보니 대원들은 저만치 가고 있다. 시야확보를 위해 마스크를 내리고, 이를 악물고 걷는다. 마스크를 내리자마자 코와 입에 동상 기운이 느껴진다. 보이지 않으면 걸어야 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이 없다. 정상부위에서는 바람을 피하기 위해 기어서 올라간다.

#### **2012년 8월 15일 광복절 오전 11시경, 엘브루즈 정상에 서다.**

짧은 감흥이 밀려온다. 해냈다. 함께한 14명의 대원이 자랑스럽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영광을 돌린다. ‘고맙습니다.’ 기쁨을 잠시 뒤로 하고 안자일렌을 하며 서둘러 하산 준비를 한다. 강풍과 눈보라로 인해 줄을 매는 것도 쉽지 않다. 흐린 시야로 인해 위험하고 미끄러운 설벽을 한 줄 자일에 의지하며 서로 밀고 당기며 하산을 한다. 많은 생각이 오간다. 엘브루즈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 강풍과 눈보라에 대한 준비가 안되었다. 경험해보지 않은 산에 대한 대비의 어려움 등... 앞으로 좀 더 겸손하게 산을 올라야겠다.

서로 의지하며 걷다보니 새들에 도착한다. 안도의 한 숨이 쉬어진다. 모두 무사히 등정을 허락하신 엘브루즈 신께 감사드립니다. 바람이 약해지니 마스크를 올리고 얼어붙은 코와 입에 따뜻한 입김을 불어 넣으며 심한 동상이 아니기를 바라며 BC로 하산을 한다.

BC에서 기다리는 대원들과 기쁨의 재회를 나누고 ‘전남대학교 만세!!!’를 외치며 그동안의 갈등과 고뇌를 날려버린다. 대원들에게는 이 순간이 영원히 기억되는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기대해본다. 부족한 대장을 믿고 따라준 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등반을 통해 저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특히 정상등정의 결정이 무리한 것이 아니었는지? 등반과정에서 나타난 대장의 지휘력과 판단과정이 적절했는지?)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겠다.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의 기간을 개교 60주년 기념, 2012 전남대학교 세계 7대륙 최고봉 원정등반(유럽 엘브루즈)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영광을 돌린다.

감사합니다.

## 유럽 최고봉 엘브루즈(5,642m)



김경선

(의료담당, 살레시오중학교 보건교사)

### 프로로그 .....

1월 대원 선발을 시작해서 8월 출발할 때까지, 간다고 했다가 빠지고 다시 들어오는 등 대원의 변동이 계속되었다. 그 와중에도 설산등반을 처음 해 보는 대원들을 위해 아이젠웍이나 안자일렌 훈련 등 기술등반과 장비 사용법을 배우고, 비오는 날 야간 등반과 야영을 하며 꾸준히 팀웍을 다지는데 애썼다.

처음 만나는 대원들은 잘 알지 못하고 낯설어 어떻게 같이 등반을 할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다. 실력도 능력도 적어서 크게 도움이 될 순 없지만, 있는 듯 없는 듯 튀지 않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자고 다짐했다. 그러다가 정오승과 윤현식이 합류했을 때,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였다. 다른 대원들과는 함께한 경험이 없지만, 오승이는 낭가파르밧을 함께 갔고, 현식은 안나푸르나의 락시피크를 함께 오른 터라 두 사람의 고소 적응력과 등반 실력을 잘 알고 있어 참 믿음직스러웠다.

### 1일: 8월10일(금) 광주 - 인천공항 - 모스크바

새벽4시. 설렘과 기대로 자는 등 마는 등 해마다 멍해진 몸으로, 몇 번이고 넣고 빼고를 반복하며 꾸러놓은 카고백을 메고 길을 나섰다. 새벽부터 나와 주신 회태형님의 차에 짐을 싣고 전대로 모였다. 환송 나오신 분들과 인사하고 5시, 인천공항으로 출발. 드디어 인천공항에서 나연형님과 최희동선배님까지, 이번 팀 대원 전원이 처음으로 다 모였다. 동행하시는 세 분(박원빈, 유신열, 정완진)도 만났다. 앞날에 신의 뜻이 함께하기를 빌어본다.

인천공항에서 9시간10분을 날아 현지시간 5시50분, 모스크바 쉼레메티에보 공항에 도착했다. 여기도 덩다.(시차 5시간) 한글 다음으로 그림같이 아름다운 러시아 문자를 보니 '왔구나' 실감이 났다. 자본주의를 받아 들였다고는 하나 자존심 때문인지 영어를 전혀 쓰지 않아 자력으로 뭔가를 찾기는 어려울듯하다. 알파벳을 닮은듯하나 전혀 다른 키릴 문자.

우리가 내린 곳은 모스크바에 있는 5개 공항중 하나로 작고 허름하고 칙칙했다. 옆에 있는 출국장은 새 건물이다. 유학생 현지 가이드 미스터 권의 안내로 한식당으로 가서 김치찌개로 저녁을 먹고 호텔로 이동. 이동 중에 간단한 러시아 말을 배웠다.

< 아침인사- 도부라에 웃더라, 오후인사-도부리 쯤, 저녁인사-도부리 배쳐라,

물-바다, 감사합니다-스파씨발, 우유-말라꼬, 라이터-자지갈까, yes-다, no-엣> 등등 연기를 배우는 사람답게 비유로 얘기를 하니 귀에 쏙쏙 들어온다. 금요일 오후라 다차(지방에 있는 별장)로 가는 차들로 길이 거의 정지상태다. 창밖의 모스크바 풍경은 회색이다. 화려한 치장이나 넘침 없이 그저 묵직하게, 꼭 있어야 할 것들만 있는 도시. 회색 건물에 매달린

LG실외기가 오히려 장식품 같다.

숙소배정 후 올림픽 한일전 축구(3,4위전)를 함께 보자고 야단이다. 세기의 빅 이벤트라 한국에서 왠지떨 요란 떨며보면 딱!인 게임인데.... 아쉽다.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든 나로선 널 일찍 모닝콜이 오는 관계로 컨디션 조절을 위해 자기로 했다.

## 2일: 8월11일(토) 모스크바 - 미네랄니예보디 - 테르스콜(체갯마을)

4시30분. 모닝콜과 함께 들은 한일전 승리 소식. 족쇄처럼 늘 병역문제를 달고 다니는 우리나라 남정네들...여러 면에서 정말 잘 됐다^^

민보디(알고보니 '미네랄니예-보디'로 '미네랄'이라는 단어가 유래된 곳이라고 한다)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본다. 잔의 크기에 따라 커피 값이 다른 것이 특이하다. 커피 마시는 척 카페에 앉아 이쁜 러시아 여인들을 훑쳐보는 즐거움을 누린다. 김태희가 발맨다는 러시아 아닌가?ㅋㅋ 그러나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아무 곳에서도 흡연을 하니 곳곳에 담배냄새가 찌들어 있고 사방에서 연기공습이 일어난다. 이쁜 얼굴로 날씬한 몸을 사랑살랑 흔들며 들어와 담배를 척!물면, 예고, 팔팔킴~~~

2시간정도 걸려 민보디에 11시20분 도착, 마중 나온 가이드 '빅토르'를 만나 인사하고 차 두 대에 나눠 타고 출발했다. 테르스콜로 가는 길은 서울탈출 주말 도로처럼 꽉 막혔다. 도시를 벗어나자 평야에 펼쳐진 옥수수밭과 수수 그리고 해바라기. 일하는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이 끝없는 밭의 수확은 뉘 손으로 할까? 자원 대국의 풍요 속에서 도스토예프스키 소설 속의 힘들고 어려운 러시아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차도는 우리식의 노란 중앙선이 없고 흰 점선으로 되어있어 다들 적당히 알아서 편하게 추월을 한다. 앞 차가 늦게 간다고 짜증내는 사람도, 추월한다고 화내는 사람도 없는 듯했다. 길가 주유소 화장실에 들렀는데 시멘트가 발라진 바닥에 크기가 발 하나쯤 밖에 안 되는 작은 구멍만 뚫어져 있다. 큰일 볼 땐 구멍 조준을 잘 해야 할 듯ㅋ

출발하고 두어 시간이 지나자 평야지대를 지나 초록의 야트막한 언덕과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길가 음식점에서 닭백숙으로 점심을 먹고 동네 아이들, 개들과 잠시 휴식. 4시 15분, 드디어 엘브루즈가 있는 러시아 연방의 '카바르디노-발카리아 공화국'에 들어섰다. 국경지역답게 초소엔 군인과 탱크가 서있다. 석회물이 희뿌옇게 흐르는 박산계곡으로 들어서니 아파트단지처럼 이룬 듯 제법 큰 동네가 나타났다. 티르니아우즈 시장에서 감자 양파등을 사고, 치즈에 눈 먼 오대장님은 생치즈를 사서 회회낙이다. 그러나 나중에 생치즈엔 부르셀라균이 많으니 먹으면 안된다고 강조하는 수의과 박사님 말씀에 따라 치즈는 가이드에게 선물로 줬다. 무척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ㅋㅋ

드디어 5시40분 숙소인 테르스콜 체갯마을의 에센호텔에 도착. 바로 옆에 만년설 모자를 쓴 산이 둘러있어 신기하다.

저녁 식사 후 주변 산책. 앞마당처럼 작은 광장을 두고 그 둘레로 음악소리가 요란한 음식점 겸 카페가 호기심을 자극한다. 길은 녹색이 가득한 야트막한 산색깔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 산을 바라보며 사슬릭(양고기 꼬치구이)과 함께 마시는 맥주 한 잔에 괜히 가슴이 울컥

하다. 이제 내일부터 고소적응에 들어갈 것이다. 심맥이 빠르다. 알콜 때문일까? 설렘일까? 로비에서 '빅토르'에게서 러시아 알파벳을 배웠다. 생각보다 쉬워서 로비에 쓰인 'CAyHA 사우나'란 글자를 읽으니 참 신기하다. 종이를 펴 놓고 알파벳 공부를 했다. ㅎㅎㅎ

### 3일: 8월12일(일) 체겟봉 (Cheget 3,404m) 고소적응 산행

아침에 일어나보니 가져온 커피믹스가 빵빵하게 부풀어있다. 이곳이 2,100m라는 실감이 났다. 오늘은 고소적응을 위해 체겟봉으로 가는 날이다. 체력소모를 줄이기 위해 중간까지는 리프트를 타기로 했다.

고소증세를 호소하는 대원들도 없고 날씨가 맑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자연을 만끽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다. 올라가는 동안 병풍처럼 둘러싼 주변 산군이 너무 아름답고 또 아름답다. 산 넘어가 그루지야라고 한다. 체겟봉에서 사진을 찍으며 한 참을 놀다 하산.

### 4일: 8월13일(월) 테르스콜 - BC - 프리웃산장(4,157m) - BC

드디어 BC로 가는 날. BC에서 필요치 않은 것은 호텔에 맡기고 카고백 하나만 들고 차에 탔다. 이제 또 다른 환경에서 고소 적응을 잘 할 것인지 조금은 염려가 되었지만 모두 컨디션이 좋아 큰 걱정은 안됐다.

아자우에서 곤도라를 2회, 미르역에서 리프트를 타고 가라바쉬로 이동, 11시 BC에 도착했다. 각자 짐과 장비와 식량까지 무거운 짐을 내리고 올리느라 대원들의 수고가 많았다. 우리 숙소는 배럴산장과 마주보고 있는 콘테이너인데 내부는 2층 구조로 12명이 잘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 팀은 한 개에 8명씩 두 개를 쓰고, 부대장과 오승은 따로 떨어진 곳에 숙소를 정하게 되었다.

바로 아래에 식당 콘테이너가 있고 위쪽에 간이 화장실이 있어 한 세트를 이룬듯했다. 비록 좁고 열악한 숙소지만, 문을 열면 눈 앞에 카프카스 산맥 연봉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창문으론 별들이 지천으로 쏟아지니 맘에 딱 든다.

점심을 먹고 고소적응차 프리웃까지 등반하기로 했다. 2시05분, 이중화, 우모복, 안전벨트, 아이젠까지 등반 때와 같은 복장으로 출발했다. 그동안 고소적응이 잘되고 (팀닥터의 제대로 된 처방 덕인지도?)날씨가 좋아서인지 덥다. 이런 날씨만 되어준다면 등정은 별로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잠시 후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과 함께 비바람이 치면서 싸라기눈이 오기 시작했다. 빨리 하산하자는 대장님 말씀에 따라 3시35분, 하산 시작했다. 길은 눈이 녹으며 흙과 모래 등이 섞여서 상태가 안 좋고 설상차에서 나온 기름과 섞여 시커멓게 흐르기도 했다.

5시가 되니 날씨가 갠다. 젖은 옷들을 말리고 배럴산장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휴식. 대부분의 물은 빙하물을 끓여서 사용하고 생수는 사서 먹어야 한다. 당연히 씻을 물이 없으니 겨우 얼굴과 발만 물티슈로 닦는다. 전기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만 켜진다고 한다. 환경이 열악한 곳에 들어왔으니 그 정도의 불편은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환경을 지키는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배럴산장 주변엔 시설물을 짓거나 전기 수송철도를 세우고 남은 자재 쓰레기가 너무 많고 건축물을 세우는데도 계획없이 세운듯 어지럽

다. 아직은 환경까지 생각하진 못하는 모양이다. (머칠 머물면서 쓰레기 좀 치워주고 싶었다.)

저녁에 김치찌개가 나오니 모두들 환호성. 각자 가져온 밀반찬(멸치볶음, 매실장아찌, 김장아찌, 굴비절임등등)까지 더하니 이보다 더 좋은 식단은 없을 것이다. 이대로 좋은 날씨와 컨디션이 계속되길 빌어본다.

#### 5일: 8월14일(화) BC - 프리아웃 - 파스튜코바락(4,690m) - BC

새벽에 나오니 동쪽 하늘이 뿔뿔에 빛나는 모래알처럼 반짝인다. 은하수를 보는 순간 왜 Milky way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이유를 알겠다. BC는 생각보다 춥지 않아 지낼만하다. 우리 방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들 아침 일찍 일어나 일출을 보고 사진을 찍느라 종달새처럼 바지런하다. 그 속에 나는 잠으로 컨디션 조절을 해야 하는 올빼미다.

오늘은 파스튜코바락까지 고소 적응하는 날이다. 맛있는 감자된장국으로 속을 채우고 9시, 설상차를 탔다. 설상차는 '스노우캣'이라고 부르는데 지붕이 없는 것과 있는 것(캐빈)이 있다. 우리 팀은 두 대에 나눠 타고 중간에 한번 내려서 바꿔 타면서 11시 목표지점 아래까지 갔다. 오르막 각이 세서 몸이 뒤로 제껴지니 넘어지지 않으려고 잡고 버티며 앉아있는 것도 꽤 힘들었다. 오늘은 고소적응만을 위한 것이라 최대한 높이 올라가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고산이 처음인 대원들은 한 발 한 발이 자신의 신기록을 내는 것이라 힘들어 하면서도 신나한다.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고소증세도 없고 컨디션도 좋아 내심 자신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다.

사진도 찍고 서로 재밌는 말도 하고 간식도 먹으며 적응하다가 하산. 조금 내려오다 부대장님의 지시로 플랑카드와 각자 소속 깃발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몇 명씩 무리지어 각자의 페이스대로 속속로 하산하는데 눈이 녹고 있어 발이 쪽쪽 미끄러진다. 눈이 녹아서 만들어진 작은 도랑들과 군데군데 입 벌린 크레바스를 보니 발밑이 조심스럽다. 신경을 바짝 세워 집중하며 내려왔다.

내일 정상공격은 예정대로 하기로 하고 5시에 이른 저녁을 먹고 휴식. 나이를 먹으면 고소증세도 둔해진다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이번 등반에선 고소도 안 느끼고 밥도 잘 먹고 잠도 너무 잘 잔다.

#### 6일: 8월15일(수) 정상등정일 : BC - 파스튜코바락 - 새들 - BC

빗소리에 잠이 깼다. 창문을 열어보니 비도 그냥 비가 아니라 주룩주룩 굵은 비다. 이런!!! 오늘 갈 수는 있을까? 밤새 뒤척였을 대장님의 눈치가 보인다. 암담하다.

\* 새벽 1시 기상, 오늘 등정을 위한 준비를 하라고 불이 켜진다. 어둠속에서 헤매지 않아도 좋을 이런 배려가 감사하다.

\* 1시30분, 누룽지에 '파워웰'을 섞어 먹고, 옷을 입고 장비를 챙긴다. 다행히 빗줄기가 가

늘어진다. 위로 올라가면 눈으로 바뀔테니 비보단 나올 것이라 기대해 본다.

\* 2시, 설상차를 탄다. 모두들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처럼 비장하다. 중간에 대원

3명당 1명씩 의무적으로 동행해야하는 전문가이드들도 탄다. 모두 무사히, 성공해야 할 텐데...

\* 3시20분. 4,800m쯤에서 설상차에서 내린다. 어둡고 눈보라가 심해서 인간 사슬을 지어 앞서사람만 따라간다. 해가 뜨면 날이 좋아지겠지 기대하면서... 안전벨트를 너무 꼭 뗐는지 숨쉬기가 힘들어 조금 느슨하게 고쳐 맨다. 여러 겹 끼입은 옷때문에 뭔가 교정하기도 힘들다. 다른 팀들도 줄줄이 서서 조금이라도 눈보라를 피해보려 애쓰며 굴비처럼 따라온다. 한 팀 전체가 겨우 2~3m인데도 앞쪽에서 전하는 말이 뒤까지 들리지 않아 우왕좌왕하다. 눈보라 속에서 어스름하게 줄지어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영화 속의 한 장면 같다.

\* 6시경, 어떤 분이 고소증세로 맥없이 주저 않는다. 상화도 고소가 왔다고 한다. 두 선배님이 같이 내려가시기로 한다.

\* 6시30분, 5,066m지점에서 2명이 하산한다. 이미 해는 떴을 시간이건만 주변은 여전히 컴컴하고 좋아질 기미가 없다. 휘몰아치는 눈보라와 강풍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앞서사람과의 거리가 좀 멀어지면 놓쳐서 길을 잃을까 노심초사, 아무 생각없이 발만 옮긴다. 우모복까지 옷을 단단히 입어서인지 다행히 춥거나 발이 시리진 않는다. 다들 손을 써야 할 때마다 오버미튼을 벗느라 힘든데 난 장갑만으로 참을만해서 앞 뒤 대원의 마스크도 올려주고 지퍼도 올려주고 사진도 찍어준다. 물론 오버미튼은 가지고 오긴 했지만 결국 쓰지는 않았다. 심한 눈보라로 주변을 한번도 살펴 볼 수 없고, 시계는 5m~10m정도 밖에 안된다. 바로 옆이 깎아지른 급경사인데 그 끝이 안 보인다. 바람이 한번씩 휘몰아쳐서 몸이 휘청거릴 때마다 미끄러질까봐 겁이 난다.

\* 8시40분, 새들5,416m에 도착한다. 바람은 더 거세지고 후퇴하는 다른 나라 팀들이 돌아오는 것이 보인다. 가이드가 강제로 하산명령을 내리면 어쩌나 걱정이 된다. 이제 우리 팀도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대장님이 한 명씩 괜찮은지 갈 수 있는지 묻는다. 장희대원과 유신열씨가 내려간다고 한다. 순간 무척 망설였지만 내려가기로 한다.

아직은 괜찮지만 가다가 같이 속도를 못 맞출 경우, 같이 내려가 줄 가이드도 없고 대장님의 고심도 깊어질 것이며 등정에도 방해가 될 것이다. 아쉽지만 여기까지가 내 자리라는 생각이 든다. 바람만 조금 덜 불었으면, 시야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조금 뒤쳐지더라도 갈 수 있을텐데... 아쉬운 마음이 한없이 든다.

정상을 향해 팀은 떠나고 1분도 안되어 대장님 선글라스와 내 스키고글을 바꿀걸 하는 생각이 났다. 이미 팀은 보이지 않고 소리쳐도 들리지 않는다. 내려오는 내내 고글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내려오는 길은 여전히 강풍에 눈보라로 맑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스키타듯 눈 위에서 발이 짹짹 미끄러진다. 눈사면을 바로 걸으려 해도 바람이 밀어대니 저절로 갈지자가 될 수밖에 없다. 눈 위에 꽂힌 표식기의 깃발이 찢겨져 날아간 채 깃대만 꽂혀있다. 이제 이 길을 내려가면 다신 못 올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에 같이 내려가는 대원에게 천천히 내려가자고 했

다. 우리가 고소 때문도 아니고 체력이 부족해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니, 쉬엄쉬엄 가다보면 정상에 등정하고 내려오는 대원들과 프리웃 산장 정도에서 만날 수도 있으니 그때 설상차를 같이 타고 가자고 했다. 그러자고 내려오는데 장희대원이 자꾸 처진다.

새벽 1시 반에 누룽지 먹은 후로 거의 먹은 것이 없어 배는 고프는데 바람 때문에 배낭을 열고 뭘 꺼내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바람을 피해 등 기댈 바위하나 없는 산등성이가 스키장 같다.

\* 11시 파스튜코바락 위에 도착해서 작은 호떡빵 하나와 '과워젤'을 먹는다. 가이드는 뭘 줘도 안 먹는단다. 뭘 물어보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한다. 프리웃 산장까지 얼마나 걸릴까 시계를 가리키며 물었더니 눈 위에 '1'자를 쓰는데 1시간 걸린다는 말인듯 하다. 여전히 하늘은 눈구름과 눈보라와 바람으로 덮여있고 파란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설상차 소리가 났다. 프리웃 가서 기다려보자고 해놓고, 타고 가자고하며 설상차 기사와 흥정한다. 알고 보니 아이젠에 스노우볼이 생겨서 자꾸 털어내느라 뒤쳐진 것이다. 스노우볼이 안 생기는 아이젠을 써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했을까!

설상차엔 이미 다른 팀이 타고 있는데 자릴 비켜주면서 엄청 싫은 표정을 했고 내려오는 내내 쳐다보지도 않는다. 자리가 비좁아서 화 난걸까 아님 동양인이라 알보는 거였을까?

\*11시45분 BC도착. 반갑게 맞아주는 상화에게 '새들팀' 사진을 부탁하고 서로 축하를 한다. BC에서 기다리고 있던 선후배님들께 인사하고, 정상으로 향한 대원들이 무사히 등정하기를 기도하며 새들까지 경과 얘기를 했다. 정상에 올랐을만한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조금은 걱정이 되었지만, 대장님이하 모든 대원의 능력을 믿었으므로 실패했을 염려는 조금도 안한다. 다만 너무 힘들어 탈진한 대원이 생기진 않을까 염려는 된다. 통신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2시20분, 대원들이다. 올라간 사람 모두 정상등정에 성공했다고 한다.

우와!!! 와와와~~~~~ ~~~~~ ~~~~~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며 목이 멘다. 눈보라에 까맣게 타고 그을린 얼굴이 자랑스럽기 그지없다. 선배님들께 정상등정 보고를 한다.

\*5시, 저녁을 먹으며 등정축하 잔치가 벌어졌고 숙소 앞 작은 마당에서 정상등정에 대한 얘기가 끝없이 이어졌다. 다들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럽다.

이제 내려가는 짐을 꾸리는 시간. 그동안 애써준 '레일라' 식당아줌마께도 감사인사를 전한다. 하산을 생각하면 .....기쁘고도 서운하다.

### 7일: 8월16일(목) BC - 테르스콜로 하산

새벽1시, 천둥소리에 잠이 깼다. 창문을 열어보니 우박과 함께 천둥 번개가 요란했다. 멀리 카프카스 산맥으로 번갯불이 튜다. 고도가 높으니 내 발 아래에서 번쩍인다. 다시 잠들었다가 일출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구름에 가렸다가 어느 순간 나와 버렸다. 사방이 흐리다.

9시50분 하산시작. 리프트 1번, 케이블카 2번 바꿔 타면서 내려와 11시17분 버스를 타고

11시 25분 에센호텔에 도착, 방 배정을 받았다. 성공하고 돌아온 다른 팀(프랑스, 일본)과도 엄지를 치켜들며 서로 축하해 줬다. 점심 후엔 장비 대여점을 돌아보며 장비구경을 하고 각자 자유 시간을 가졌는데 나는 근처 벼룩시장에서 지인들에게 줄 선물 몇 가지- 'Elbrus'가 쓰인 모자, 티셔츠, 작은 칼등-를 샀다. 말도 안 통하는데 나연형님은 흥정도 잘 하신다^^  
6시30분 동네 카페에서 사슬릭에 맥주 한 잔으로 등정축하파티를 했다. 모두들 각자의 방법으로 축하파티가 이어졌고, 난 이 곳에서의 마지막 날을 조용히 생각하며 보내고 싶어 방으로 들어왔다.

#### **8일: 8월17일(금) 테르스콜 - 민보디 - 모스크바(참새언덕과 모스크바 국립대학 관광)**

7시20분 테스콜을 떠나 민보디로 가는 길은 들어갈 때보다 훨씬 빠르다. 내리막이라 썩썩 달렸다. 모두들 여전히 어제 등정의 흥분이 가시질 않아 즐거운 마음이다. 양파같은 설낙순 대원과 우리의 엔터테이너 김태중 대원의 얘기로 웃음이 그치질 않는다. 길가 해바라기는 더 멋있고 야생화와 나무열매와 도로를 걷는 소들과 동네 대문까지도 자세히 보는 여유가 생겼다.

길가 주유소 화장실은 구멍에 쇠창살이 세로로 두 개 박혀있어 (사람이 빠지지 않게 해 놓은 모양이다) 신기하기만 하다. 사춘기 여학생처럼 조그마한 것에도 까르르 깔깔 모두 즐겁다. 다들 뭔가 해 낸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민보디 새 건물 출국장에서 식당에서 싸준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고, 모스크바로 돌아왔다.

현지 가이드의 안내로 지금은 참새언덕이라고 불린다는 레닌언덕에 내려 시내구경을 하고 모스크바 국립대학을 한 바퀴 돌며 구경했다. 사과나무가 많이 심어져있고 꼬맹이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이 이채로웠다. 숙소로 가는 길에 지구의 1/6을 차지하고 한반도의 90배라는 러시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저녁으로 한식당에서 먹은 육개장은 모두를 100% 만족시켰다.

처음 모스크바에 들어온 날이 금요일인데 오늘도 금요일이다. 그 한 주일동안 우린 무엇인가를 해 냈다. 지난 일주일엔 우리 모두 가슴에 평생 함께 할 일주일이다.

#### **8일: 8월18일(토) 모스크바 관광 - 한국으로 출발**

예약된 시간에 '크레믈린궁'에 들어가기 위해 9시 숙소를 출발했다. 넓은 땅 때문에 제일 기대했던 것이 '붉은 광장'이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작아 실망했다. 레닌이 미이라화되어 있다는 '레닌묘'를 멀리서 봤다. 모스크바의 상징처럼 알고 있는 '성바실리성당'은 양파모양으로 웬지 놀이동산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고, 바닥의 조각들과 입구에 있는 조그마한 성당이 훨씬 아름답게 느껴졌다.

'크레믈린 궁'으로 가는 길엔 '레닌묘'를 보려는 사람들 줄이 한참이나 길게 서 있었다. 궁 입구엔 격전지 이름을 쓴 돌들과 꺼지지 않은 불이 있어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 '트로이츠키야 탑'을 지나 들어간 궁은 베르사이유 궁전보다 훨씬 크고 화려할 거라고 생각한 내 기대를 저버리고 아담하고 소박하고 규모도 작았다. 궁 안엔 몇 개의 성당이 있는데 지붕에 금칠을 한 것이 반짝일뿐 화려하지는 않았다.

'성모승천성당'에 들어가 벽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고 나오니 군인들이 열병식을 하려고 입

장하는 모습이 보여 구경을 하려고 했는데 가이드가 다른 곳 설명하려고 못 가게 했다. 난 러시아역사보다 열병식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더 보고 싶었는데 무슨 중을 설명한다고 못 가게 했다.

점심은 레스토랑에서 러시아식 식사를 했다. 스프가 좀 독특하게 시큼달콤 맛있었다. 참새 언덕이나 무명용사를 위한 꺼지지 않는 불 앞에서 예복을 입은 신혼부부를 여러 쌍 봤다. 러시아에선 결혼을 하면 자신의 나라를 지켜준 선열들을 찾아 인사하는 것이 순서라고 한다. 그것이 관습처럼 하는 것이라 해도 순국선열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우리도 배워야할 정신이란 생각이 든다.

전승기념공원에서 전승기념탑을 구경하는 중에 장대비가 쏟아졌다. 천막 친 카페 같은 곳에서 비를 피하다가 지하철역으로 뛰어갔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로 무척 깊이 내려갔는데 역과의 간격도 길고 속도도 빠르듯하다.

두 정거장쯤 가서 '아르바트거리'에 내렸다. '푸쉬킨'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자유시간을 주었으나 기념품가게에서 구경 좀 하다 보니 돌아다닐 시간도 없이 집합이다. 공항까지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빨리 출발해야 한다고 한다.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공항으로 출발. 비행기 시간이 될 때까지 공항 바닥에 둘러 앉아 치맥을 즐기며 등반의 추억을 되새겼다.

#### **10일: 8월19일(일)/인천공항-광주**

10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내렸다. 공항까지 마중 나온 단장님과 대원 가족들을 만나 감자탕 집에서 회포를 풀었다. 그리곤 버스로 광주로 내려와 전남대학교에 마중 나온 선후배님들과 인사하고, 길고도 짧은 등반을 마쳤다.

#### **에필로그....**

어렵게 시작하고 준비했지만, 7,8천대 산에 비해 조금은 쉬운 산으로 생각해서 조금은 자만했고 조금은 오만했다. 그러나 어려운 날씨 때문에 제각각 생과 사를 넘는 상황을 겪으면서 소통의 중요성과 자만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다.

시작부터 끝까지 어려움을 떠안아주신 이정옥 단장님과 물질로 마음으로 등반을 도와주신 선후배여러분, 함께 있어 든든했던 정오승 그리고 대원들. 고맙고 사랑합니다.

## 나를 찾아 떠난 엘부르즈



### 설 낙 순

(전남대병원 산악회 총무, 전남대병원 교육연구행정팀장)

어느 날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에서 유럽 최고봉 간다고 하는데 산 이름이 생소하여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 어차피 2012년에는 개인적으로 킬리만자로를 등반하기로 되어있어서 다른 곳은 별 신경을 쓰지 않은 탓도 있다. 잊고 지내고 있는데 얼마 후 병원 산악회로 연락이 온다. 엘부르즈가 만년설로 덮힌 산인데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다. 우선 신청하고 나중에 취소해도 된다는 달콤한 유혹에 신청서를 선뜻 보낸다. 상견례를 겸한 자리에서 이중화, 12발 아이젠, 안전벨트, 오버트라우저 등을 보면서 포기할까 하는 유혹이 든다.

담양 병풍산에서 아이젠 착용하고 설벽 산행 및 레펠을 하면서 당장이라도 엘부르즈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괜히 우쭐해진다. 몇 번의 훈련산행으로 대원들과 우의를 다지기는 하였지만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대원도 있다. 윤현식 선생도 팀닥터로 동참하게 된 것이 가장 기쁜 일이었다.

시간은 금방 지나 어느덧 7월 31일 원정대 발대식을 한다고 정명호 전남대학교병원 교육연구실장님께서 우리직원들과 꽃다발까지 준비해서 격려하러 오셨다. 황송하게...

#### 드디어 8월 10일

04:20 저절로 눈이 떠진다. 대충 씻고 잠결인 가족과 인사하고 전남대학교 대강당 앞에 도착. 원정대가 출발한다고 하니 산악반 선후배님들이 나와서 환송해주신다. 고맙고, 뜨거운 우의가 부럽다. 전체가 기념사진을 찍고 인천으로 황금마차(교직원용이라 황금색은 아니다) 출발이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09:10이다. 수화물 갯수가 사람 숫자와 안 맞다고 추가요금 내지 않으려고 공통집 들어있는 카고백을 풀어서 나눠담는다.

12:10에 비행기에 올랐으나 문제가 있는지 계속 이륙을 하지 않고 있어 불안하지만 속으로 삭히고 있는데 드디어 1:46에야 이륙한다.

4:00경 기내식을 먹다가 불현듯 딸 생각이 난다. 오늘 영서가 정형외과에서 부러진 팔 깎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10년전 에베레스트 B.C 트레킹 갈 때는 영서 돌이었는데 올해는 팔이 부러져서 걱정을 시킨다. 아빠가 해외 산에 가는 게 반갑지 않은 모양이다. 미안하다. 우리 딸. 사랑해

현지시각 오후 6:00경 모스크바 외곽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쉐레메티에보 공항에 도착한다. 습기 가득했던 한국과 달리 이곳은 서늘하고 건조한 바람이 이방인을 반긴다. 모스크바 모대학에서 연극 전공하는 유학생 권정택 가이드를 만나 숙소로 이동하는 중에 간단한 러시아 말을 배운다. 가장 인상적인 말은 라이터(자지 깔까)고, 감사하단(스파씨발) 말과 지하철(밀으로)도 압권이다.

9:16 호텔방을 배정받아 밖을 보니 아직 환하다. 책이나 영화에서나 보던 백야다. 휴대폰 충전하려고 콘센트를 보니 우리나라와 사이즈가 똑같다. 간단히 씻고 최희동선배님 방에서 조니위커 블루와 함께 한일전 올림픽 축구경기 응원을 한다. 이국땅에서 축구의 승전보를 들으니 감회가 남다르다.

## 8월 11일

민보디(미네랄니예보디의 줄임말)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기상해서 도시락으로 아침을 때우고 쉼메티에보 공항으로 이동한다.

8:50 출발하는 비행기인데 6:00에 공항 수속이 완료되어 할 일이 없다.

공항내 커피숍에서 커피마시며 무료한 시간을 달래는데 러시아 미녀가 앞자리에 앉는다. 눈을 땔수가 없다. ㅋㅋ 비행기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일찍 공항에 밀어넣은 것은 가이드가 여자친구와 데이트 약속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성토했는데 불만이 속 들어가 버린다.

민보디 공항에 도착하여 미니버스 2대에 짐과 사람이 나눠타고 이동하는데 우리 차는 에어컨이 없다. 완전 찜통이다. 중간에 길가의 가게에서 김훈봉 선배님께서 맥주를 사주셨다. 2:40경 토마토와 오이가 곁들여진 소스와 백숙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4:30 과거 탄광촌의 영화를 간직하고 있는 티르니아우즈에 도착해서 BC에서 먹을 시장을 보는데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데도 시장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5:20 테르스쿨 체켓마을 에센호텔에 도착해서 방 배정하고 저녁식사 시간까지 자유시간이다. 국내에서는 문제없던 비염이 이곳에 오니 계속 말썽이다. 따뜻한 물도 마시고 약도 먹어보지만 효력이 없다. 저녁식사로 빵, 함박스테이크(?), 스프가 나오는데 점심에 많이 먹어서인지 고소로 소화력이 떨어진 것인지 입맛이 없다. 고소적응을 위해 윤현식 팀닥터가 다이나믹스와 징코민을 나눠주면서 오늘부터 먹으라고 한다. 에베레스트 B.C 트레킹할 때 아무 이상 없어서 약을 안 먹고 최대한 버텨볼 요량이다. 그때와 체력도 다르고 나이도 달라졌는데 가능할지?

저녁식사 후 로비에서 담소하는데 김훈봉 선배님께서 정상 가는날 별도 개인 가이드를 고용하시겠다고 한 모양이다. 그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전남대학교 산악반에서 그럴 수는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선배님 짐을 자기가 메고 가겠으며 선배님께서 못가시면 등정을 포기하고라도 자기가 모시고 내려오겠다는 윤성룡 대원의 말이다. 약간은 무모한 주장으로 보이지만 선후배간의 뜨거운 우의와 희생정신을 배울 수 있는 자리다. 나는 저렇게 따뜻한 맘을 가지고 있는지 반성해 본다.

## 8월 12일

08:00 아침을 먹고 09:00 고소적응 1차 훈련을 위해 리프트를 타고 체켓봉으로 향한다.

왼쪽으로는 코카서스 산군 중 하나인 둔구조룬이 보이고 오른쪽 멀리 구름에 덮혀있는 엘브루즈가 보인다. 이 삭막한 땅에 먹을 것이 뭐가 있다고 양떼가 돌아다닌다. 체켓봉에 올라 엘부르즈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간식도 먹고 고소 적응 위해 한참을 머물다 하산한다. 하산길 리프트 중간 기착지에서 맥주도 한잔하고...

오후 4:00경 체켓마을에 도착해서는 호텔 인근 식당에서 사슬릭(양고기 꼬치)과 몇 잔의 보

드카에 바로 행복해진다.

오후 8:00 저녁식사 시간에 정오승 사장이 내일 일정에 관해 설명하는데 김태중 교수가 술에 취했는지 궁시렁 궁시렁 시비를 건다. 분위기가 불편해 질 뻔 한다. 내가 10년 전에 조석필 선생님께 저렇게 보이지는 않았을까? 애까심..

## 8월 13일

아침에 눈을 뜨니 머리가 아픈 듯, 아닌 듯, 불안하다.

다이하목스 1/2알과 징코민 1알을 먹고, 며칠간 샤워를 못할 것이라 구석구석 깨끗이 씻는다.

08:00 어제와 같은 메뉴로 식사를 하고 김영필 부대장이 스케치북을 1장당 5만원에 판다. 재학생인 윤상화 대원 장학금으로... 나는 어제 체rpt봉에서 선불로 줬다고 하는데 모른 체 한다. 이게 고소가 온거야, 모른체 하는 거야?

09:35 체켓마을을 출발하여 아자우(2,350m)에 도착해서 케이블카를 두 번 타고 10:58 BC로 가는 리프트에 몸을 싣고 앞을 보니 저 멀리 눈 쌓인 엘부르즈가 구름으로 가슴을 가리고 있다. 눈을 돌려보니 빙하가 바로 앞에 있고, 멀리는 눈덮힌 코카서스가 나의 눈을 사로잡는다. 아! 정말 좋다.

11:10경 종착역인 가라바쉬역에 도착하니 우리가 숙소로 사용할 곳은 배럴산장이 아니고 건너편 컨테이너란다. 게다가 3개를 예약했는데 2개만 우리 전용이고 나머지는 같이 써야 된단다. 정사장이 등반기이드 빅토르에게 노발 대발이다. 뭔가 매끄럽지 못해 우리에게 미안해서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먼저 콘센트부터 확인하니 우리 것과 같다. 러시아 좋은 나라다.(서유럽은 우리 것이 바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오후 2:00 고소적응 훈련차 프리웃 산장까지 가기로 하고 얼마가지 않았는데 비가 쏟아진다. 금방 그칠 비가 아닌지 빅토르가 내려가잔다. 속옷까지 몽땅 젖었다. 옷 갈아 입고 나니 비 맞은 몸이 노곤해서 침낭에 들어가 한숨 자려고 하니 주변에서 말린다. 고소온다고...

5:00경 비가 그쳐서 저녁식사 기다리면서 밖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윤성룡 선배가 눈을 찡긋찡긋하면서 부른다. 전복장조림에 소주 한 잔 하자고. 순수하고 맘이 따뜻한 선배다. 전복장조림이 맛있어서 선배님들이 주시는 잔을 한 잔씩 받다보니 여러 잔을 마신 듯 하다.

오후 7:00 저녁식사를 하고나니 뒤늦게 술이 확 취해 온다. 머리가 하얘지고 토할 것 같고 고소가 오면 이러는가? 먹지 말라는 술을 괜히 먹어가지고... 따뜻하게 옷을 입고 천천히 걷는다. 차츰 나아진다. 아까 머리 아픈 것에 놀라서 잠자기 전 다이하목스를 1알 먹었더니 화장실을 5번이나 가느라고 잠을 설친다. 하늘에는 별도 많다.

## 8월 14일

07:40 쌀밥에 미역국이다.

09:00 아이젠 차고 설상차에 오른다. 선배님들은 뚜껑 있는 차, 우리는 열린 차. 올라가는 길에 보이는 크레바스와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설상차에 불안해 지는 마음. 이렇게 겁이 많으면서 어떻게 산에는 가겠다고 하는지..

2:50경 닭볶음 간식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다들 하산이 힘들었던 모양이다. 오늘따라 환자가 많다. 우리 팀닥터 고생이 많다.

오후 5:00 쌀밥에 김치찌개가 맛있다. 식사 후 등반대비 회의를 하는데 새들 지나 청빙구간이 있어 위험할 수 있다고 한다. 뭘 모르는 내가 올라갈 때 안자일렌하고 가면 어떻냐고 질문한다. 오대장님이 내려올 때는 하는데 올라갈 때는 각자 체력이 달라서 안자일렌하고 가면 더 힘들 수 있어서 각자 올라갈 예정이란다. 겁난다. 내가 과연 정상에 올라갈 수 있을까? 설레임 때문인지, 걱정인지, 아니면 커피 때문인지 잠을 한숨도 못잔다. 500부터 거꾸로 세기를 여러번.. 그러나 결국 실패했다.

## 8월 15일

01:00 기상, 밖에 빗소리가 요란하다. 비가 와도 강행한다. 누룽지에 요거트로 간단히 때우고 02:20 설상차에 오른다.

03:40 파스튜코바락 지점에 도착해서 산행시작이다. 아래의 비바람은 어느덧 눈보라로 바뀌어 있다. 영하 27도 혹한에 바람은 어찌나 쎄지(나중에 들어보니 초속 35m 라네). 눈보라 속을 랜턴에 의지하고 견노라니 5,000쯤에서 윤상화 대원이 고소가 온단다. 김훈봉 선배님도 내려가시겠다고 하고 최희동 선배님도 동행하기로 한다. 오대장님이 또 고소증세가 있는 사람 있냐고 묻는다. 아직 다른 사람은 말이 없다.

잠시 쉬는 사이에 장희 선배님이 쌍화차를 마시고 나에게도 한 잔을 건넨다. 또 한 잔을 주시길래 거절했더니 “떡어” 하고 소리친다. 마시고 나니 한결 낫다. 나중에 보니 그 두잔이 오늘 산행 중 먹은 물의 전부다. 출발 전에 오대장님이 다시 묻는다. 고소증세 있는 사람 말하라고. 내 상태가 고소인지 잠이 부족한 건지 구분이 안된다. 그냥 끝까지 가보자고 스스로 되뇌인다.

새들에 도착해서 일부가 하산하기로 하고 정상조를 구성한다. 오대장님이 나에게 묻는다. 너 갈 수 있냐? 예. 저 가겠습니다. 오대장님, 정사장님, 윤성룡선배, 나, 김태중, 윤현식, 이재국 총 7명이다. 현식이가 준 에너지젤과 쏘세지 하나를 먹고 짐을 챙기는데 6명은 이미 출발한다. 나만 남아 짐을 챙기는데 젊은 가이드가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한다. 금방 출발한 일행이 보이질 않는다. 맘이 바쁘다. 허겁지겁 쫓아 얼마 가지 않아 따라 잡았지만 숨이 턱에 찬다. 눈보라를 피하기 위해 버프로 얼굴을 가렸는데 덕분에 숨쉬기는 2배 이상으로 힘들다. 드디어 청빙지역에 다다른다. 앞서간 다른 팀들이 쉬고 있는 사이를 비집고 빅토르가 쉬지 않고 끌고간다. 바닥에 아이젠이 먹지 않고 아래로 자꾸 밀린다. 오른쪽이 낭떠러지인데 아까보다 훨씬 심한 경사다.

바람은 왼쪽에서 불고 오른쪽은 낭떠러지라 다리를 곧게 펴고 걸으려고 하는데도 무릎이 굽어진다. 무섭다. 앞의 윤성룡 선배만 보면서 바짝 긴장하고 올라간다. 가다가 선채로 쉬는 팀을 제치고 정상 부근 평지에 서니 바람이 아까보다 훨씬 심하고 얼음 알갱이가 얼굴을 때린다. 잠시 쉴 때 손은 시렵고 꺼내기 귀찮은데 배는 고프고 가장 간단한 에너지젤 하나를 또 꺼내 먹는다. 다시 정상을 향해 출발하는데 정사장이 앞사람 벨트를 잡으란다. 바람에

날아갈 것을 대비하라는 모양이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벨트를 잡아 앞사람에 의지함으로써 눈보라를 피해보라는 것이었다) 안전벨트 확보율을 늘려서 김태중 대원에게 건다. 오른쪽을 언뜻보니 깎아지른 낭떠러지다. 빅토르가 자꾸 오른쪽으로 진행하려는 것을 보고 정사장이 왼쪽으로 가라고 악을 쓴다. 다리에 힘은 빠지고 숨은 안 쉬어지고 정상은 저 앞인데 바람 때문에 한 걸음이 힘들다. 천천히 가자고 소리치지만 막무가내다.

**2012년 8월 15일 10시 54분 (한국시각 오후 3시 54분) 드디어 엘부르즈 정상에 섰다.**

아니 엎드렸다고 해야겠다. 언뜻 봐서 그리 넓지 않고 바람 때문에 서 있기가 너무 무섭다. 엎드려서 김태중 대원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우모복 아래에서 어렵게 카메라를 꺼내서 정상석을 찍고, 정상석을 배경으로 사진 찍어달라고 일행을 찾으니 아무도 없다. 덜컥 겁이 난다. 나만 두고 내려가 버렸나? 올라올 때 봤던 곳을 나 혼자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 부산나게 정리해서 정상에서 내려오니 낭떠러지에 대비해서 안자일렌 중이다. 안자일렌하고 얼마 운행하지 않아 윤성룡 선배 아이젠 한쪽이 망가진다. 내려갈 수 있을까? 썬글라스 없다고 해서 내꺼 드렸더니 이번엔 아이젠이 고장이다. 웬수다. 그래도 걱정은 덜 된다. 아이젠이 없어도 안자일렌해서 가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하산 길에 눈보라는 정면에서 얼굴을 때리고 우모복 후드는 바람에 벗겨져서 찬바람을 머리로 그대로 맞으니 너무 아프다. 이것을 뒤에서 본 윤현식 대원이 개인 장비 점검해 가자고 하는데 거의 무시하고 씩씩이 내려간다. 다리에 힘은 없고 아이젠 때문에 발바닥이 아파서 걷기가 너무 힘들다.

4,700m 지점에 이르니 드디어 눈보라가 멈추고 시야가 트인다. 맥이 풀리고 걷기가 힘들어 빅토르에게 설상차를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저쪽에서 협조적이지 않는 것 같다. 여하튼 몇 번의 전화 끝에 설상차가 오기로 해서 1:50경 BC에 도착한다. 오늘 나의 생사를 책임져 준 대원들과 뜨거운 포옹을 한다. 가슴이 뭉클하고 괜히 눈물이 흐를 것 같다. 산장에서 기다리는 선배님들께 정상 등정 보고를 하고 선배님들과 악수를 하는데 눈물이 겹잡을 수가 없다. 아, 쪽팔려

등정성공을 병원과 국내에 문자로 알린다. 보고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 흥분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김영필 부대장이 들어와서 정상 사진 찍었냐고 물어본다. 눈보라로 인물사진은 못 찍었고 정상석만 찍었다고 하자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 정상석 사진만 찍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타박을 한다. 등정 무효라고... 글른 지가 가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다. 우리 일행이 없으면 외국인에게라도 찍어달라고 할 걸. 번잡하더라도 휴대폰을 꺼내 셀카라도 할걸. 후회 막급이다. 다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도 다른 카메라는 얼어서 못 찍고 내 것으로 정상석이라도 찍어온 것이 얼마나 대견한데...

오후 5:00 저녁식사 때 보드카로 정상 등정 기념 건배를 한다. 저녁식사 후 맥주를 사와서 숙소 밖에서 정상등정 기념 파티를 하는데 서울서 오신 정선생님이 윤현식 팀닥터의 왕진비라면서 맥주를 더 사오신다.

새벽 1시에 화장실 가다 하늘을 보니 별이 많지 않다. 내일 산행할 사람들 쉽지 않겠다. 다시 잠에 빠져든다.

## 8월 16일

07:00 눈이 떠진다. 다른 사람들은 먼저 일어났는지 자리에 없다.

08:00 아침식사는 된장국에 쌀밥이다. 밥먹고 나서 그동안 우리 식사를 책임져준 주방 아줌마 레일라와 기념촬영을 한다. 정상등정 마치고 내려왔을 때 일부러 축하해주러 나와서 악수 했던 소박하고 수더분하게 생긴 이웃집 아주머니 같은 분이다.

08:40 9시부터 운행하는 리프트를 기다리지 않고 선배님 네 분이 걸어서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 걸어가신다고 하신다. 나도 따라 걸어가고 싶지만 짐을 옮겨야 할 군번이라... 케이블카를 기다리는데 멋진 할아버지 사진이 있어 빅토르에게 물어보니 가이드인데 엘부르즈를 206회 등정했고, 1968년 110세에 마지막 등정했다나? (믿거나 말거나)

11:35 에센호텔에 도착해서 맡겨두었던 짐을 찾고 점심식사 하러 1층 로비에 내려왔더니 어제 체코 등정팀원 중 1명이 악천후로 사망사고가 나서 구조대가 수습하러 간다고 한다. 어제 날씨로는 사고가 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사고가 났었구나. 우리가 아니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안됐다. 오후 자유시간에 장비대여점도 둘러보고 쇼핑도 한다. 김나연 선배님의 흥정 솜씨가 가히 세계적이다. 러시아 이 시골 장터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데 꺾아서 물건을 사신다. 나도 엘부르즈가 적힌 털모자와 이슬람 칼, 우편엽서, 티를 산다. (저녁먹을 때 칼 샀다고 했더니 가져갈 수 있니, 없니 설왕설래다. 걸리면 뺏기지 뭐..)

저녁식사는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이사장님이신 허정 선생님께서 사신 닭고기에 쌀밥인데 맛이 기가 막히다. 사슬릭도 주문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최희동 선배님이 사오신 꼬냑으로 각자 돌아가면서 폭탄주를 만들어 건배사를 하는데 나도 한 잔 말아서 건배제의를 한다. 또 감정이 차올라서 말이 안나온다. 대장님의 클로징멘트가 없었는데 이탈자가 있다고 김나연 선배님께서 쓴소리를 하신다. 속으로야 나는 자리에 있었는데 하지만 부끄럽다.

1차 자리가 파하고 카페로 자리를 옮겨 맥주 한잔 하는데 저 건너편 술집이 나이트클럽 수준이다. 답사를 가보니 술 주문과 관계없이 모두 음악에 맞춰 즐겁게 춤추고 있다. 선배님들을 모시고 나이트로 가서 신나게 춤을 춘다. 그렇게 박산 계곡에서의 마지막 밤이 지나간다. 다음날 나연 선배님이 한 말씀 하신다. 설낙순이는 냉철하고 얌전한 줄 알았더니 춤출 때 보니까 끝내주더라고... 아이고, 선배님 오해합니다.

## 8월 17일

05:30 기상해서 우선 짐부터 챙기고 대충 세수한다.(어제 늦게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잠든 탓에 세수만 한다)

비행기 시간 때문에 07:00 테르스콜을 출발해서 고도를 낮추어가면서 버스가 달리다 보니 굉장히 빠르고 험하게 운전을 한다. 갈 때 본 기억이 없는데 길 가에 길 양옆으로 동상이 서있는 곳에 도착한다. 한쪽은 엘부르즈 동봉 길 건너편은 서봉 초등자이다. 장거리 버스 이동 중 김태중 대원의 입담에 지루한 줄 모른다. “해군이 수영도 못하냐?”에 “글쁜 공군은

나냐?” 하하하, 대박이다.

09:40 민보디 공항에 도착한다. 경찰이 공항 출입 검문 중인데 우리 버스 기사가 내려 악수를 하며 아는 체를 한다. 그냥 반가워서 했으려니 했더니 손바닥 안에 돈이 들어있다. 악수 하자마자 우리 차는 통과다. 와, 대단하다. 먼저 온 다른 차는 아직 검문 중이다.

12:40 모스크바를 향해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기류가 좋지 않은지 완전히 경운기 탄듯하다. 오후 3:10 경 웨레메티에보 공항에 도착. 짐을 기다리는데 한참을 나오지 않고 있는 와중에 동행하는 만화가 선생님이 전자수첩을 비행기 안에 두고 나오셨단다. 권정택 가이드가 연결해서 찾는데 없다는 답변이다. 후진국에서 뭘 잃어버리면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모스크바 도착해서 레닌 언덕(참새언덕)과 모스크바 국립대학을 둘러본다. 저녁식사를 하러 가는 차안에서 권가이드가 러시아의 유명한 노래 “백만송이 장미”와 “백학”에 관해서 설명해준다. 아름답지만 슬픈 멜로디에 가슴이 찢어져 온다.

엘브루즈 지역에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을 거라면서 오늘은 육개장과 비빔밥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 육개장을 먹는데 아주 맛있다. 호텔로 가는 길이 러시아워에 걸려서인지 엄청 밀린다. 최희동, 윤현식 대원 방에서 맥주와 보드카로 러시아에서의 마지막 밤을 불태운다.

## 8월 18일

호텔 2층 뷔페에서 아침을 먹고 09:11 호텔출발이다. 오늘은 모스크바 시내 관광이다. 칼 마르크스 동상을 보고 붉은 광장에 갔는데 한창 공사 중이어서 인지 별로 넓어 보이지도 않고, 붉지도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다. 레닌묘를 보고 싶은데 시간이 안되서 외관만 보고, 양파모양 지붕의 바실리성당을 본 후 검문을 받고 크렘린 궁으로 들어간다. 성모승천 성당을 보고 나오니 열병사열식이다. 이런걸 보라고 해야 되는데 가이드가 다른 것만 소개하고 있다고 투덜거리며 몰래 빠져나와서 구경한다.

12:35 빵, 스프, 돼지고기+감자에 몰래 소주를 먹고 커피와 디저트 빵을 먹는다. 식사 후 버스로 이동하는데 바실리성당 뒷모습이 훨씬 잘 보이고, 긴 리무진을 타고 결혼식 피로연하는 팀들이 많이 보인다. 근데 웨딩드레스가 흰색보다 색깔이 들어있는 드레스가 많다. (신부 드레스가 순백색은 초혼, 색깔이 있으면 재혼 이상이란단다)

전승기념관 관람 중 소나기를 만난다. 비 안 오는 오전 내내 우산 들고 다니다가 점심 먹고 배낭에 꽂았는데 소나기라니... 재수도 이렇게 없을까? 비를 피해 중간 커피숍에서 한참을 기다려도 비가 그치지 않는다. 그냥 지하철역까지 뛰는데 주머니가 허전하다. 휴대폰이 없다. 예구 예구, 다시 되돌아 달려오는데 저만치 떨어져 물에 잠겨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깊이가 장난이 아니다. 가이드 말이 모스크바는 지반이 약해 약 150m 정도를 파고 내려간단다. 또 지하 주차장도 없단다. 지하철에서 내려 아르바트 거리에서 자유시간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의 신촌 대학로쯤이라고 할까? 푸시킨의 신희집이 있었던 곳이란단다.

오후 4:00 어제의 신라식당에서 육개장으로 이른 저녁을 먹는다. 저녁식사 후 버스 이동 중에 권가이드가 아르바이트로 가이드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첫째, 학비

둘째, 한식을 먹을 수 있다.

셋째, 손님들께 연극을 사랑해주시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란다.

힘들게 이국땅에서 공부하고 있는 31살의 젊은이가 생각이 너무 많다. 감동이다.

박수 짹짹

공항에 도착해서 수하물 부치고 면세점에서 선물 몇가지 사고 나왔더니 맥주와 닭다리로 러시아와 이별을 고하고 있다.

안녕 러시아, 안녕 엘브루즈

비행기 안에서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질 않는다.

### 8월 19일

오전 10:54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무사히 도착했음을 전화로 알리고 카고백을 기다리는데 내 것이 나오질 않는다. 다른 사람들 것이 모두 나오고 난 후 내 것이 나오는데 수갑을 차고 있다. 결국 칼을 뺏기고 짐을 찾아 나오니 도검선생님이라고 놀리고 있다. 환영 나오신 이정옥 단장님 외 여러 선후배님들과 함께 인천 공항 근처 감자탕집에서 거나하게 환영식을 한다.

김나연, 최희동 선배님과 작별을 하고 오후 2:00 광주로 출발한다. 전남대학교 대강당 앞에 도착하니 많은 선후배들과 가족이 나와있다. 원정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헤어진다. 헤어지기 싫다.

내 생애 첫 만년설산 산행은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

생과 사를 같이한 여러 대원들

생면부지에서 어느새 가족 같고 형제같이 된 나의 동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원정대를 이끄신 오성개 대장님, 59학번으로 칠순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훈련산행부터 어느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으로 임하셨던 큰형님 김훈봉 선배님, 멀리 서울에서 훈련산행을 빠지지 않고 오셨고 샤프하시고 최강 동안을 자랑하시는 김나연 선배님, 구수한 입담으로 좌중을 휘어잡는 최희동 선배님, 누나같이 감싸주시던 김경선 선배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오는 나의 룸메이트 장희 선배님, 특이한 캐릭터의 장영주 선배님, 순수하고 귀여운 윤성룡 선배님, 이번 원정대의 엔터테이너 김태중 대원, 원정대 부대장으로 살림을 도맡아 해준 김영필 부대장, 팀닥터로서 많은 고생하고 고산 산행을 지도해준 후배지만 존경스러운 윤현식 대원, 무거운 카메라 메고 원정대 사진찍고 굶은 일 마다하지 않은 이재국 대원, 막내여서 귀엽고 안쓰러운 윤상화 대원, 그리고 우리의 생사를 위해 같이 고생해준 정오승 사장님.

모두 잊지 못할 형제이고 동지들입니다.

보고 싶다.

엘브루즈여, 그리고 나의 형제들이여!!!

## 엘브루즈 등반기



김태중

(동영상담당, 교수산악회 총무, 수의과대학 교수)

### 출국전

2011년 초여름의 일이다.

전남대학교 총동창산악회에서 연합해외원정 산행을 기획한다.

전남대학교 (재학생) 산악회, OB산악회, 병원산악회 그리고 교수산악회도...

교수산악회의 총무를 맡은 터라 그날 각 산악회의 회장단과 함께 광주 모처의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거기에서 알게 되었다. 총동창회에서 개교60주년 기념 공식행사로 유럽최고봉 엘브루즈 등정을 가며 대원을 모집중에 있다고...

그 날, 그 모임에서 나는 내 삶에 중요한 획을 그을 기회를 준 친구를 만났다. 이번 산행의 총괄운영 및 관리를 맡고 각종 훈련을 담당할 김영필 부대장을...

부대장은 내게 각 산악회에서 몇 명을 선발하여 산행을 기획하는데 교수중에서도 누군가 갔으면 하니 교수산악회에 전해달란다.

난 그 자리에서 말했다. “나는???”

그렇게 시작된 엘브루즈행이다. 시작은 참 어이없고 볼품없다.

대원들이 하나 둘 모이고 있단다. 얼추 20-30명 수준에서 출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원들 사이에는 그 실력차이가 천차만별이라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엘브루즈 대비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총 7차례에 걸쳐 각종 훈련이 준비되었다. 암벽, 빙벽, 자일, 하중, 동절기 기타 등등...

오성개 훈련대장님 (원정대장)의 지도하에 각종 훈련을 마치고 출발일을 기다린다.

날짜가 느린 듯 빨리 지난다.

### 정상공격, D-day

오늘이다.

이 날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결과를 보는 바로 그 날이다.

그래서인지 전날부터 아마 대원들 모두 잠을 편히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밤늦게 코카서스 산맥, 박산계곡에 비가 내린다.

물론 베이스 캠프인 이곳도 그렇고 체켓봉 너머도 비구름이 가득하다.

전날밤 해가 지고 깊어진 하늘엔 은하수가 쏟아질 듯 아름다운 하늘이었는데 자정 부근부터 폭우가 온다. 흥미로운 건 내 발아래에서도 번개가 친다는 것이다. 고도가 높다보니 비구

름이 발아래에도 있다.

01:00 기상과 함께 등반을 준비한다.

간단한 조식 후 장비를 꾸리고 대원들의 등반이 시작된다.

02:00에 준비되어야 할 설상차(snow cat)가 비와 여러 사정으로 인해 02:30에 출발한다.

문제는 여름비다. 비가 많이 온 것 때문에 상하의가 젖어든다. 물론 방수기능이 있는 옷이지만 많은 비에는 장사가 없나보다. 흠뻑 젖은 몸으로 어제까지 2차 고소적응을 했던 4,690m의 파스투코바-락(Pastuhova Rocks)에서 등반을 시작한다. 설상차에서 내리니 비가 눈보라로 바뀌어 있다. 어둠도 어둠이지만 눈보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

현지 산행가이드인 Victor의 목소리가 커진다.

"Let's go, hurry!!!"

고소적응을 위해 Victor는 side step을 이용하여 지그재그로 고도를 높인다.

5000m에 가까와 질 때, 막내 대원이 고소증세를 보이면서 주저 않는다. 고령의 대원들도 하나 둘 고소증세가 나타나 하산을 한다. 쉽게 자신을 허락하지 않는 엘브루즈답다. 새들(Saddle)까지는 고도차가 약 600m이다. 한국에서 이 정도의 높이라면 1시간 이내에 쉽게 도착했으리라. 엘부르즈에서의 600m는 상상을 뛰어 넘는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눈보라, 점점 더 희박해 저가는 산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 조금만 발걸음을 서둘러도 고통이 밀려온다. 새벽에 일어나 산행을 하는 터이라 잠이 쏟아진다. 산소가 점점 줄어들어 두통이 밀려온다. 참자!!!

4시간 이상의 산행 후 드디어 새들이다. 천지가 눈보라로 보이지 않지만 경사가 갑자기 없어지고 평지가 나온다. 한참을 걷고 나니 Victor가 새들이라 알려준다. 많은 대원들이 추위와 눈보라, 그리고 고소증세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원정대장님의 결정이 내려진다. 6인의 대원을 제외하고 전원 하산 결정이 내려진다. 이제 남은 건 메인 가이드인 Victor, 그리고 또 한사람의 젊은 러시아인 가이드, 그리고 여행사에서 오신 가이드인 정대표님, 그리고 6명의 대원들.

서봉을 오른다. 바람이 너무 세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초속 35m였단다.사람이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였다. 서봉의 동쪽사면은 "청빙"지역이라는 유명한 곳이다. 여름을 제외하고는 늘 얼어있는 급경사의 절벽길이다. 실제로 가보니 러셀로 확보한 약 30-40cm의 좁은 길만이 있고 우측은 낭떠러지이다. 그런 와중에 서쪽에서 절벽쪽으로 엄청난 속도의 눈보라가 분다. 떨어지면 그야말로 죽음이다. 다음날 들은 이야기인데 체코에서 온 등반객이 그 날 그곳에서 밀려 떨어져 실종되었다. 선두에 선 Victor도 사뭇 앞으로 쉽게 나가지 못하고 왼손에 든 픽셀로 좌벽을 짚어가며 전진한다. 그 바로 뒤인 나와 내 바로 뒤에 있는 팀 닥터 윤현식 대원은 바람에 몸이 밀릴까 두려워 몸을 바짝 엮드리고 쭈그린 자세로 조금씩 앞으로 간다. 평지에서도 낮은 자세로 쭈그려 걸으면 다리에 힘이 들어 전진하기 힘든데 하물며 고산에서... 조금씩 전진하다보니 그래도 길이 약간 넓어져 일어서서 전진이 가능해 보인다.

얼마나 갔을까? 눈보라와 절벽의 공포와 사투를 벌이고 나니 경사가 완만해 지면서 좌로 굽은 조그만 언덕이 나온다.모든 대원이 배낭을 등에 깔고 눕는다. 죽을지경이다. Saddle에서

여기까지 두시간 정도 온것같다. Victor가 다시 외친다.

"Water!!!"

배낭을 풀기가 어렵다. 아니 싫다. 눈보라와 추위에 장갑을 벗기는 더 싫다. 하지만 뭔가는 먹어야 한다. 02:00이후 먹은 것 없이 계속 강행이었기 때문이다. 배낭에는 팀닥터인 윤현 식대원이 개인적으로 준 에너지젤이 있다. 쉽게 그거라도 짜서 먹는다. 숨쉬기도 어렵고 바람에 몸이 흔들린다. Victor의 지휘하에 다시 대원 모두 몸을 일으킨다. 근데 바람이 세도 너무 세다. 몸이 자꾸 밀린다. 급해진다. 혜초 정오승 사장이 외친다.

"확보줄로 서로 묶어!!!"

자일을 꺼내 안자일렌을 할 시간이 없다. 서로의 확보줄을 앞사람의 비너에 걸어 서로서로 한 줄, 한 덩어리가 되어 전진한다. Victor는 안전벨트를 차지 않아 나는 할 수 없이 Victor의 배낭 하단 고리를 부여 잡는다. 장갑은 이미 몇시간 전부터 푹푹 얼어서 딱 부여 잡히지도 않는다. 그래도 살려니까 잡는다. 그것도 아주 세계...

한참을 이리저리 흔들리다보니 저 앞에 희미하게 튀어나온 작은 봉우리가 보인다. 정상이다. 반갑기도 하고 시시하기도 하다. 약 3-4m의 사다리꼴 모양의 조그만 봉우리일 뿐이다. 확보줄을 풀고 기어오른다. 그야말로 벽면을 기어오른다. 몸을 세우면 바람에 밀려 떠내려간다. 벽에 딱 붙어서 올라 정상의 바닥에 엎드린다. 옆으로 대원들이 하나 둘 올라온다.

10시 54분.

눈앞에 설낙순 대원이 보인다. 정상정복의 기쁨에 하이파이브를 한다. 좀 있으니 오성개 대장님도 올라온다. 하이파이브. 다른 대원들은 뒤쪽에 있어서 볼수 없다.

정상 바로 밑에서 고함소리가 들린다. 위험하니 빨리 내려오라는 Victor와 정오승 사장의 외침이다. 뭔가 꺼내 사진을 찍거나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 정상의 측면을 미끄러지면서 내려온 다음 Victor가 서있는 곳으로 간다. 정오승 사장이 Victor에게 외친다.

"자일!! 자일!! 로프!!!"

함께 온 젊은 러시아 가이드가 배낭을 푼다. 자일이다. 자일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8자 매듭으로 고리를 만들어 서로 연결한다. 안자일렌(Anseilen)이다. 내려가는 언덕도 너무 무섭다. 바람은 여전히 무섭게 불고 하산길도 화이트 아웃(white-out). 완만하게 굽었던 언덕에 도착하니 또다시 청빙지역의 절벽길이다. 윤성룡대원이 미끄러져 절벽쪽으로 미끄러진다. 힘을 주며 대원들 모두 윤대원을 끌어올리고 윤대원도 발버둥을 치며 다시 오른다. 조금 있다가 오성개 대장님도 미끄러진다. 다들 힘을 주며 대장님을 끌어올린다. 반복되는 공포와 추위를 얼마나 지냈을까? 다시 saddle이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짧은 시간의 휴식. Victor의 외침이 또 다시 들린다.

"Let's go!!!"

탈진 직전이다. 내려가는 길에 다리가 풀린다. 윤현식 팀닥터가 뒤를 돌아보며 아미노젤을 하나 더 건넨다. 이런 감사할 일이... 순간 다시 조금 힘이 난다.

어라?

점점 밝아지는 느낌에 하늘을 보니 가끔 파란색의 하늘이 보이다가 사라진다. 많이 내려왔나보다. 약 5,000m 지점에 이르니 하늘이 좀 더 보이기 시작한다. 또 내려간다. 동료들이 안자일렌(anseilen)으로 끌어 당기니 발이 조금 더 쉽게 미끄러지며 내려가진다. 동료들의 힘

깨함으로 부터의 힘이구나. 파스투코바-락(Pastuhova Rocks) 부근에 다시 이르니 하늘이 보이기 시작한다. 뽀뽀 얼었던 스틱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눈꽃 아닌 눈꽃이 점점 사라진다.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짐을 느낀다.

하늘이 파랗다. 이제 위험한 곳은 다 벗어났다. 까마득히 아래에 프리아웃 산장이 조그맣게 보인다. 이제 남은 힘을 다해 내려가면 된다.  
엘부르즈야. 이렇게 힘들게 나를 받아준 것에 감사한다.

BC에 도착한다. 함께 정상은 가지 못했지만 동료들이 뜨겁게 우리를 반긴다. 오성개 대장님의 구령이 들린다.

"전원 차렷! 오성개 외 5명 무사히 정상을 등정하고 돌아왔습니다!"

대원들의 박수가 쏟아진다. 59학번 김훈봉 대선배님의 환호가 들린다.

"전남대 만세!!! 만세!!!"

감격의 눈물이 흐른다. 대장님을 부둥켜 안고 잠시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등을 토닥거리 주시는 대장님. 넓은 가슴이다.

"그래!! 이제 집으로 가자."

오성개 대장 외 5명의 대원. 화이팅!!! 전남대 파이팅!!!

## 총평

KBS 영상앨범 “산”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등반대 출발 2주전 엘브루스의 등반에 관한 방송이 있었다. 맑고 청명한 날씨에 남녀 산악인 여럿이 산을 오른다. 마지막 정상에서는 손으로 “V”를 그리며 사진촬영을 한다. 멋진 장면이었다. 우리 대원들도 다들 그 방송을 보았다. “어렵지 않겠구나!!”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었다. 어느 대원은 우스갯소리로 “산에 다니는 아주머니들 갯돈 부어서 다녀온 것 같더라”라고도 말할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고산은 역시 달랐다. 산책가거나 트레킹 가는 산이 아니었다. 나중에 가이드인 Victor에게 물으니 그런 좋은 날씨가 일 년에 며칠은 있단다. 방송국에서는 그날을 위해 며칠을 머무르며 촬영하기 좋은 날을 기다리면서 방송을 위한 준비를 했으리라. 그러니 그런 사진이 가능했을 터이다.

우리가 올랐을 그 때를 기억해보면 카메라도 다 열어서 열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방송용 ENG 카메라를 들쳐 업고 그곳까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그 영상을 보고 산행을 준비했던 것이다. 자만이였다. 방심이였다.

산은 거기에 있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그곳에 서있다.

인간의 방자함을 경고하면서...

더 머리를 숙이라고 타이르면서...

## 엘브루즈 여신이어



디오메데스(윤현식)

(팀닥터, 전대의대산악회원, 전대병원 재활의학과 전임의)

엘브루즈 여신이어!!!  
당신의 품에 안기기 위해  
수만리를 날아왔건만

당신의 품에 안기는 게  
어찌 이리 힘이 듭니까?

여기에 오기까지  
겪어 온 수많은 시련과  
또 당신의 가슴에  
안기기까지의 여정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몸을 지치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당신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당신은 못내 뿌리치고 있지만  
한걸음 한걸음 우리의 의지들은  
당신의 가슴 끝에 닿게 하였습니다.

당신과의 짧은 만남 속에  
긴 아쉬움들이 많이 남지만

이제는 기약할 수 없는  
재회의 순간을 깊이 아쉬워하며  
이제 당신의 품에서 떠나려 합니다.

엘브루즈 여신이어!!!  
엘브루즈 여신이어!!!  
오늘 당신의 품에서  
프로메테우스가 되었습니다.

# 제4장 분야별 보고

## 4-1. 행정

담당 : 김영필 부대장

### 1) 출국전 준비사항

#### (1) 국내 대행사 선정

국내 대행사를 이용하면 입산신청, 초청장발급, 비자발급, 현지 대행사 선정 및 현지 행정업무, 항공권 예매 등 거의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원정대에서는 국내 대행사를 선정하여 일을 추진하였다.

대행사는 해외 트레킹, 원정 경험이 풍부한 혜초여행개발(주) 광주지점(점장 정오승)으로 정하였다. 정 점장은 호남지역의 중견 전문산악인이다.

회사명 : 혜초여행개발(주) 광주지점	전 화 : 062-511-6959
점 장 : 정오승 (010-3645-7986)	팩 스 : 02-6918-6959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4-1 (2층)	홈페이지 : www.trekking.co.kr 이메일 : worldmountain@gmail.com

#### (2) 대행사와의 주요업무일지

(2012년)

2/18 대행사 선정(구두계약)

3/20 대행사의 조건표(견적서) 제출

4/30 항공권 예매를 위한 여권 사본제출

5/08 대행사에 1차 대금(계약금) 송금 : 1인당 50만원

7/27 대행사에 2차 대금(중도금) 송금

7/27 비자발급을 위한 여권원본 및 사진 제출

8/07 대행사에 3차 대금(잔금) 송금

8/10 출국

#### (3) 대행사에서 보내온 조건표

항 목	여행경비(1인당)	인원조건
구 분	3,800,000원	15명 이상

구 분	내 용
여행지역	인천 - 모스크바 - 미네랄리보디 - 테르스콜 - 엘브루즈 - 테르스콜 - 미네랄리보디 - 모스크바 - 인천
포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일정 이동 차량, 호텔, 숙박, 식사(현지식&amp;캠프식)</li> <li>* 엘브루즈 전문 등반가이드 및 자일 등 구조장비</li> <li>* 체크봉 등반시 리프트 1구간 왕복</li> <li>* 아자우-배럴 이동구간의 리프트, 케이블카.</li> <li>* 모스크바 관광시 가이드 &amp;입장료.</li> <li>* 국제선 항공료 (인천/모스크바 왕복 항공료,공항세)</li> <li>* 국내선 항공료 (모스크바/미네랄리예보디 왕복 항공료,공항세)</li> <li>* 정상 등반시 설상차 (상행 1회)</li> <li>* 모든 고용인의 임금과 팁, (등반가이드/관광가이드/기사)</li> <li>* 여행자보험 1억원.(동부화재)</li> <li>* 15명이상 고산등반 유경험 인솔자 동행.</li> <li>* 80리터, 고급 카고백증정.</li> </ul>
불포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공격 실패 시, 2차 공격 추가 비용</li> <li>-설상차 : 400유로/대(11명 부터는 추가요금 발생)</li> <li>-등반가이드 : 200유로/명</li> <li>-위의 비용을 인원수로 나누어 지불합니다.</li> <li>-설상차 비용은 등반 전날 오후에 예약과 동시에 선지급한 후 변경 불가</li> <li>* 러시아 비자 (초청장 포함)</li> <li>-1주후 발급 : 84,000원.</li> <li>-1/2일 발급(급행) :132,000원.</li> <li>-비자 접수 후 여권회수불가.</li> <li>-면세점 이용시 여권사본 보관바랍니다.</li> <li>-준비서류(6개월이상유효). 사진2장(흰색배경)</li> <li>* 유류할증료: 375,000원 (유가변동에따른 인상/인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민보디 중식 2회</li> <li>* 개인 화물 오버차지 (항공 규정상 개인 화물은 20kg까지입니다. 현지에서 필요한 공동 화물(음식재료 등)이 있으므로 가급적 15kg 정도로 맞춰주셔야 합니다.</li> </ul>
신청방법	출발일 기준 6개월 기간이상 남은 여권 사본을 보내주십시오.
준비서류	러시아 비자 서류 : 여권, 사진 2매, 집주소, 전화번호 상기 서류를 출발 최소 1달전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입금안내	예약금 50만원. (농협:301-0068-7929-41) 혜초여행개발.
상담안내	트레킹팁 (Tel: 062-511-6959)

※ 대행사에서 보내온 기본금액과 불포함사항 등을 종합하여 대원 1인당 450만정도가 대행사에 지급되었음.

(3) 환전 : 유럽지역임을 감안하여 약 500만원 정도를 광주은행 일곡지점에서 유로화로 환전하였다.

## 2) 현지 진행사항

기본 행정업무는 국내 대행사의 한국인 총괄가이드(정오승 점장)이 처리하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었으며, 모스크바 호텔에서 가져간 유로화의 절반 정도를 루블화로

환전하였다.

현지 가이드는 지역에 따라 세분화되어 우리의 여행을 돕게 된다. 모스크바는 한국인 유학생이 안내하며, 미네랄니예보다 이후부터는 현지 대행사를 총괄하는 러시아인 여성 가이드가 안내하였고, 등반시에는 러시아인 전문등반 가이드들이 돕는다.

등반이 끝나고 나면 현지대행사의 가이드와 등반가이드의 확인이 들어간 등정증을 받게 되며, 필요하면 새들(5,416m)까지 등반한 것도 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 3) 문제점 및 대안

#### 1) 언어

러시아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어가 잘 통용되지 않았다. 거리의 간판도 영어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가이드들은 그나마 외국인을 상대하느라 영어를 잘 사용하였으나 현지 주민이나 상점, 식당 등에서는 거의 대화가 힘들었다.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대원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 2) 환전

한국에서 환전하여 가져간 유로화는 등반시 설상차를 사용하는데 지불하는 것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루블화로 충분히 환전하는 것이 좋다.

현지에서 유로화가 널리 통용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잔돈을 많이 준비하였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유로화는 설상차 사용시에만 사용되므로 잔돈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다. 루블화로 환전할 큰 단위의 지폐와 설상차 사용시 필요한 50유로, 100유로 단위의 지폐 몇 장이면 충분하다.

### 4) 총평(결론)

엘브루즈는 테러 위협 등 러시아 내부의 사정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교부에서 수 년간 여행을 금지해온 곳이다. 이번에 여행 금지에서 해제되어 많은 한국팀이 몰려가게 되었다. 일찌감치 등반을 준비해온 우리 팀은 등반가능성이 가장 높은 8월 초중순으로 예약하게 되었으나, 뒤늦게 신청한 다른 팀들은 할 수 없이 7월이나 심지어 6월에 가게 되었다. 늦게 신청한 팀이 오히려 빨리 가게 된 것이다. 6월에 등반한 팀은 추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들었다.

국내 대행사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여행상품이므로 사실 행정과 관련된 사항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었다. 오히려 항공권 구입과 비자신청을 위한 여권사본, 원본 제출시 일부 대원이 늦게 제출하여 전체 대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뻔 하였다.

행정 관련사항은 전반적으로 국내 대행사의 능숙한 처리 덕분에 별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다. 지면을 빌어 정오승 지점장을 비롯한 혜초여행개발(주)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4-2. 회계

담당 : 김영필 부대장

### 1) 자금 수입지출 총계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잔 액
73,564,000	73,564,000	0

### 2) 항목별 수입내역

연번	항 목	금 액	비 고
1	훈련대원 신청금	1,700,000	
2	대원분담금	42,300,000	
3	훈련대원 훈련비 납부	1,060,000	
4	지원금	24,000,000	
5	찬조금	4,504,000	
	합 계	73,564,000	

※ 지원금 : 학교에 지정기탁한 후원금 또는 학교의 지원금

※ 찬조금 : 원정대에 직접 기탁한 후원금

※ 지원금 및 찬조금 상세 수입내역은 <5-2장 원정에 도움주신 분> 참조

### 3) 항목별 지출내역

연번	항 목	금 액	비 고
1	훈련비	1,423,271	
2	발대식 및 준비비	1,548,330	
3	대행사 (항공, 등반, 체제비 등)	60,131,000	
4	장비, 식량	806,535	
5	교통비	200,000	
6	체제비	554,724	
7	등반비	3,198,000	
8	의료비	422,000	
9	사진비	830,610	
10	환차손	163,530	
11	보고서 (발행 및 발송)	4,286,000	
	합 계	73,564,000	

#### 4) 총평

##### (1) 자금의 조달

역시 자금조달은 어려운 부분이다. 2011년 1월에 본 원정 기획을 시작하였으나 출발 몇 개월 전까지도 필요한 자금이 모두 조달되지 않아 가슴을 졸여야했다.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대원의 분담금으로 진행하였다. 훈련대원신청금, 훈련시마다 거출하는 소액의 참가비 등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였고, 대원들과 후원자들의 자발적 찬조로 훈련은 잘 진행되었다.

2011년 말에 이정옥 단장과 김윤수 총장의 면담을 계기로 본 원정이 학교의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정식 인정됨에 따라 자금조달 등 모든 면에서 활기를 띠게 되었다.

특히, 최희동 부단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총동창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찬조를 받아 부족했던 자금을 모두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대원들 중에서도 선배들을 위주로 분담금 외에 자발적으로 찬조금을 내주어서 재정의 어려움을 크게 덜어주었다.

##### (2) 자금의 지출

자금은 국내에서 이미 대행사를 통하여 대부분 지출하였으며, 현지에서는 등반에 필요한 추가경비와 식량구입비 등이 일부 사용되었다.

##### (3) 환전

환전은 국내에서 약500만원을 유로화로 바꾸어 출국하였으며, 모스크바 숙소 호텔에서 루블화로 절반 정도 바꾸었다. 현지 마을에서는 유로화가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비는 충분히 루블화로 환전하는 것이 좋다. 유로화는 등반시 설상차비용, 가이드 인건비 등에만 제한적으로 쓰인다.

##### (4) 맺음말

“기술과 자금이 의해서만 가능한 해외원정은 그 조직의 활동을 단적으로 대변해준다. 원정 그 자체보다는 원정에 이르기까지의 준비와 노력은 활성화에 기여하는바 크다.”

우리지역 산악계의 정신적 지주이신 정순택 선배님의 말씀으로 대신한다.

회계 담당자로서 본 원정이 잘 성사되도록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4-3. 장비

### 1) 개인장비

아래는 출국 전 최종 장비점검시 작성했던 개인준비물 목록이다. 대행사에서 준 목록표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여기에 대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분류하고, 꼭 필요한 것들은 일부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개인 준비물 목록표>

구분	품 목	준비 여부	비 고
트레킹복장	챙이 넓은 모자		
	고글		
	썬크림		
	반팔티, 쿨토시		
	반바지(또는 칠부바지)		
	경등산화(또는 등산용샌달)		
	파일자켓		
등반복장 (정상등정시)	헤드랜턴		건전지 확인
	바라크라바 또는 털모자		
	내복 상,하		
	긴팔셔츠(겨울용)		
	긴바지(겨울용)		
	고어텍스(상,하의)		
	장갑(파일)		
	장갑(병어리)		
	우모복(상의)		
	중등산화		
	스패츠		
	크램폰		스노우볼 방지장치 부착
	스틱 1조		바스켓 부착
	안전벨트 세트		하강기, 확보줄 포함
피켈		대장, 부대장만 준비	
등반장비 (배낭 속)	배낭		40리터 이상 권장
	보온물통		
	행동식(2끼분)		얼지 않는 식품(비스켓 등)
	깃발		
숙박	여벌 양말, 속옷		
	침낭		
	개인그릇, 숟가락 세트		
기록구	카메라		
	기록장, 볼펜 등		
반찬류	1~2가지		각자 좋아하는 반찬

- ※ 카고백의 무게는 공동장비와 식량을 넣을 수 있도록 15kg이 넘지 않도록 한다.
- ※ 의복을 너무 과도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
- ※ 기내반입이 가능한 물품(옷 등)을 핸드캐리어(소형배낭)에 최대한 담는다.

## 2) 공동장비

### (1) 피켈

만일의 경우를 위하여 총 2개의 피켈을 가져갔다. 오성개 대장과 김영필 부대장이 각각 자신의 것을 챙겨왔다. 정상등정시 또는 하산시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추락하거나 크레바스에 빠졌을 때 탈출하려면 반드시 피켈이나 아이스바일이 있어야한다. 인원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조(2개)는 되어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행히 피켈을 사용할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 (2) 무전기

러시아는 사회주의 전통이 많이 남아 있어 통신장비의 사용이 까다롭다고 들었다. 그래서 생활무전기 3대와 충전기를 가져갔다. 전남대학교 총동창산악회의 장비이다. 산업용에 비하여 뛰어난 성능은 아니지만 등반중에 대원 상호간에 훌륭한 교신 수단이 되어 주었다. BC생활에서도 숙소마다 1개씩 비치하여 편리하게 사용하였다.

가라바쉬 지역에는 여러 종류의 대여용 숙소가 있다. 각자 자체 발전기로 전기를 사용하였다. 하루에 두시간 정도만 취침 직전에 전기가 들어온다. 무전기를 충전하기에는 부족한 전기량이었다. 충전지로만 작동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건전지를 준비하지 않아 정상공격시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나중에 귀국하여 батери리를 분해해보고서야 일반 건전지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최적조건에서

**5km**



**MOTOROLA TALKABOUT**

**모토로라 생활용 무전기**

- ◎ 주파수 대역 : 448.7500MHz ~ 449.2625MHz
- ◎ 채널 : 25채널
- ◎ 크기 : 157mm(H) 50mm(W) X 23mm(D)
- ◎ 무게 : 166g (배터리 장착시)
- ◎ 사용전압 : DC 3.6V
- ◎ 출력 : 500mW
- ◎ 채널간격 : 12.5KHz

FV726R 휴대용 생활무전기



전용 배터리팩을 충전하여 사용하시면 되며, 배터리가 충전이 안되어 있다면, 급할때는 시중에 판매중인 건건지 AAA 사이즈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 (3) 깃발

정상등정시 사진촬영에 사용할 깃발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우리 원정대를 위하여 도움을 주신 분들과 관련된 회사 등의 깃발을 제작하였다. 깃발은 가로 약45cm, 세로 약 35cm 정도의 크기로 총 50여장이 제작되었다. 세 번째 고소 적응일에 파스튜코바락 부근에서 배경이 좋은 곳을 골라 주관사 및 후원사들의 깃발을 들고 단체사진을 촬영하였다. 막상 정상 등정일에는 강풍과 눈보라로 정상에서 사진을 찍지 못하였다.



### (4) 안전벨트

등정일에 심한 강풍과 눈보라가 몰아쳤다. 정상부근에서 상행시 안전벨트의 확보줄을 이용해 대원들간 서로 몸을 연결하였다. 하행시에는 정상과 새들 사이에서 대원들간 안자일렌을 하였다. 덕분에 목숨을 부지한 대원이 있다. 안자일렌을 하기 위해서는 대원들 모두 안전벨트를 차고 있어야한다. 그리고 암벽장구의 사용법, 기초 매듭법을 미리 숙지 해놓아야 가능하다.

자일은 현지 등반가이드가 준비한다.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

## 3) 문제점 및 대안

개인장비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발생하였다.

(1) 신발

크랩폰을 착용하기 위하여 빙벽화 또는 이중화를 착용해야한다. 일반등산만을 위주로 산행을 해왔던 대원들은 빙벽화를 타인에게 빌려서 왔다. 우선 일반등산화에 비하여 무겁고 딱딱하다보니 적응에 힘들어하는 대원이 있었다. 타인 신발을 빌려온 대원은 자기의 발과 잘 맞지 않아 불편해했다.

결국 국내에서 평상시에 꾸준히 착용해 익숙해지는 것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2) 크랩폰(원정용 10발~12발 아이젠)

4발, 6발, 덧신형 아이젠만 착용해본 일부 대원들은 크랩폰을 부담스러워 했다. 신발과 마찬가지로 무겁고, 워킹의 자세가 어색해진다. 역시 국내에서 충분한 착용훈련이 필요하다. 스노우볼이 많이 생기므로 안티스노우플레이트를 꼭 부착하여 사용해야 한다.

(3) 스틱

이번 원정에서 스틱 고장으로 마음고생한 대원이 몇 명 있다. 고장이 일찍 발견되어 테르스콜에서 임대할 수 있었던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다. BC에서 고장을 발견한 대원은 등반 내내 불편함을 감수해야했다.

(4) 정상등정 복장

정상등정시 어떤 복장이어야하는지 고민이 많았다. 날씨가 좋은 날 너무 많은 보온의류를 착용하면 안된다. 하산시 더워 때문에 큰 고생을 하게된다. 특히 하의는 이중화와 크랩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벗을 수 있어야 체온조절이 가능하다.

막상 정상등정하는 날에 고민이 없어졌다. BC는 비바람, 정상 부근은 강풍과 눈보라로 매우 추운 날씨였다. 최대한 따뜻하게 입고 등반했다.

(5) 스키고글

정상등정시 강한 바람이 불었다. 일반 고글(썬글라스형)로는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스키고글은 꼭 준비해야 한다.

#### 4) 총평(결론)

출국 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개인장비와 공동장비를 꼼꼼히 점검하였다.

젊은 OB산악회원이나 재학생산악회원들은 암벽, 빙벽 등의 훈련과 경험이 풍부하여 스스로 알아서 장비를 잘 챙겼다. 그러나 몇몇 대원들은 평상시 해보지 못한 등반이라서 암,빙벽장비의 착용과 적응에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았다.

개인장비는 미리 국내에서 충분히 적응해야하며, 자기 몸에 익숙하고 늘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가지고 가야한다.

아래는 해외원정을 준비하는 필수 훈련 과정이다.

- (1) 적설기 야영 - 눈 덮인 산에서 며칠간 연속적으로 텐트생활하기
- (2) 암벽등반 - 암벽등반의 기본원리와 장비사용법 숙지
- (3) 설,빙벽등반 - 설사면제동법, 빙벽등반의 기본원리와 장비사용법 숙지

2월에 대원모집을 하여 훈련을 시작하니 눈에 대한 적응 훈련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한라산은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설악산은 너무 멀고, 지리산을 입산통제였다. 고심 끝에 찾아낸 곳이 가까운 병풍산 북면이었다. 제법 많은 눈이 남아있었다. 아쉬운대로 암벽장비, 빙벽장비의 착용과 사용법을 익힐 수 있었다.

## 4-4. 식량(음식)

### 1) 출국전 준비사항

#### (1) 행동식

고소적응을 위한 등반과 정상등정시 사용할 행동식을 각자 준비해야한다. 다음 식품을 위주로 각자 준비하였다.

비스킷	너무 달지 않고 무미건조한 것이 오히려 잘 먹힌다. 건빵도 좋다.
건과일류	말린 과일, 건포도 등
견과류	땅콩, 아몬드, 호두 등
빵	제과점에서 파는 딱딱한 빵(변질되는 않는 제품을 말한다.)
포	귀포, 오징어포, 육포 등

고소적응 등반시 일부가 사용되었으나, 막상 정상 공격시에는 강풍과 눈보라로 행동식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되가져 내려왔다. 행동식은 이후 술안주로 적극 활용되었다.

이와 별도로 팀닥터인 윤현식 대원이 몇가지 스포츠 간식을 준비했다. 포카리 분말, 파워젤, 파워웰 등.

#### (2) 구입식량

국내 대행사에서 라면, 김치캔, 반찬류 등을 준비하였다.

원정대에서는 비장의 기호식을 구입하였다. 소주팩 40개들이 1박스.

#### (3) 반찬류

대원 각자가 우리 입맛에 맞는 반찬을 한 두가지씩 준비하였다. 화물의 무게를 고려하여 너무 중량이 나가는 것은 피해야한다. BC에서 각자 준비한 반찬들을 한 데 모아 적당히 안배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대원들 식욕을 돋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고추장볶음, 창란젓, 된장과 풋고추, 전복절임, 굴비무침, 김부각 등등

### 2) 현지 진행사항

(1) 모스크바

모스크바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기 때문에 한식당이 있다. 모스크바 참새언덕 부근의 코스톤호텔(Korston Hotel) 지하에 있는 한식당에서 식사하였다. 육개장을 주문하였는데 맛이 일품이다. 한국에서도 손색없는 수준이다.

(2) 박산지역

이후 미넬랄니예보디에서 박산계곡으로 향하는 도로변의 식당에서 백숙을 주문하여 먹었다. 박산계곡의 티르니아우즈의 전통시장에서 과일, 돼지고기 등을 구입하여 BC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테르스콜의 체겟마을에서 쌀, 과일캔 등을 추가로 구입하였다. 체겟마을의 숙소(호텔) 식당에서는 나름대로 한국인의 식성을 고려하여 요리를 하였으나 대원들의 입맛에는 잘 맞지 않았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다소 불편하였다.

(3) BC

BC에서는 점오승 점장의 지도 아래 현지 요리사 아주머니가 한식으로 정성껏 요리를 하였다. 혜초여행사에서 대포해 놓은 압력솥으로 쌀밥을 하였고, 대원들이 가져온 반찬들로 식사를 하였다. 고도가 높아 물이 낮은 온도에서 끓는다.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BC에서 식사중인 대원들

BC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식수이다. 옆 배럴산장의 매점에서 1리터짜리 생수를 판매하며 이마저도 물량이 쉽게 바닥난다.

할 수 없이 빙하수를 떠다가 식당에 사정하여 끓여 먹어야한다. 그러나 물은 쉽게 끓지 않는다. 고소에서는 수분을 계속 섭취해야하는데 특히 밤에 따뜻한 물을 계속 섭취해야 추위도 이기고 고산병을 이겨낼 수 있다.

<원정대 식단표>

일차	날짜	조식	중식	석식	비고(숙소)
1	8 / 10(금)			김치찌개	모스크바
2	11(토)	도시락	닭백숙	현지식	체겟마을
3	12(일)	현지식		양고기 사슬릭	체겟마을
4	13(월)	현지식	라면	백반, 김치찌개	BC
5	14(화)	백반, 된장국	행동식	백반, 김치찌개	BC
6	15(수)	누룽지	행동식	백반, 미역국	BC
7	16(목)	백반, 된장국	현지식	닭찜, 사슬릭	체겟마을
8	17(금)	현지식	기내식	육개장	모스크바
9	18(토)	호텔부패	현지식	육개장	기내
10	19(일)	기내식	감자탕		

(4) 술

국내 훈련때부터 워낙 멤버쉽이 좋았고 단일 대학팀 원정대이다보니 눈치 보지 않고 술을 즐겼다. 국내에서 준비해간 맥소주 40명은 원정 초반에 이미 동이났다. 정상 등정 후 체갯마을로 하산하여 성공 자축연을 할 때에는 최희동 부단장이 준비한 꼬냑이 인기 그만이었다. 이마저도 금새 동이 나 현지 최고의 술인 보드카와 함께 밤이 무르익었다.

(5) 정상등정시 사용된 행동식

강풍이 불었다. 각자 준비해온 행동식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였고 팀닥터가 준비하여 나누어준 파워겔 등 스포츠간식이 사용되었다.

(6) 행동식 평가

포카리 분말	물에 타서 쉽게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어 좋았음
파워겔	물 없이 먹을 수 있고 칼로리가 높아 매우 좋았음
파워젤	메디푸드에서 만든 미수가루 형태의 시제품 3봉지를 선물받아 시험해보았는데 낫았음
비스킷	생각보다 많이 먹히지 않았음
건조과일	현지에서 구입한 건조 살구, 건과류가 값이 저렴하고 맛이 좋았음

3) 총평

우리 원정대는 연령층이 20대 초반부터 70대 까지로 식성과 입맛이 매우 달랐다. 소장층은 현지식에 비교적 거부감이 적었지만, 노장층은 한식이 아니면 상당히 어려워했다. 대행사의 정오승 점장이 대원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하여 새벽부터 직접 밥을 하기도 하고 요리사에게 잔소리도 많이 하였다. 노심조사 애쓰신 정오승 점장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BC의 현지인 요리사 아줌마

사실 음식과 식량은 대행사를 통한 여행인 관계로 담당자가 특별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다. 단지 국내에서 준비한 반찬류 등은 대원들에게 무조건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영양과 맛을 고려하여 계획성 있게 안배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는 김치가 부족하였다.

한편, 중앙한의원(박헌주 원장)에서 쌍화탕을 분말형태로 조제하여 플라스틱병에 담아 지원해주었다. 원정 내내 전 대원이 따뜻한 물에 타 차처럼 즐겨마셨다. 박헌주 원장은 에베레스트와 초오유 정상을 등정한 정통 알피니스트 한의사이다. 최근에는 양방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동상을 한방과 침술로 완치시켜 산악 의학계를 놀라게 하고있다. 고소 경험이 풍부한 한의사가 조제해 준 쌍화차를 충분히 섭취한 덕분인지 고산병으로 크게 고생한 대원이 없었다. 우리 원정대의 훈련 부대장을 맡아 고생하였고, 거

금의 찬조금을 쾌척하여 원정이 무사히 이루어지도록 물심양면 지원하였다. 지면을 빌어 중앙한의원 박헌주 원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



## 4-5. 수송

### 1) 출국전 준비사항

출국을 며칠 앞두고 전남대 대강당 앞에서 개인장비에 대한 점검을 하였다. 수송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카고백의 무게이다. 항공기에 실을 수 있는 대원들 각자의 수화물 한계는 20kg이다. 초과되면 상당한 금액의 overcharge를 지불해야한다. 점검때 카고백의 무게를 15kg 정도로 조정하도록 대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초과되는 짐들은 배낭에 담아 핸드캐리어로 기내로 반입하도록 하였다. 그래야 공동장비와 식량 등을 나누어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항공화물의 중량은 대원 각자 20kg을 넘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전체대원의 총중량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약간의 혼란을 겪어야했다.

### 2) 현지 진행사항

<구간별 운송수단>

구간별	운송수단	비고
모스크바공항 - 숙소호텔	40인승 대형관광버스 1대	
미네랄리보디 - 체겟마을 - 아자우역	15인승 승합차 2대	
아자우역 - 가라바쉬역	케이블카 2회 + 체어리프트(1인용)	

도시에서의 운송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본격적인 등반을 위하여 BC까지 입성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했다. 차량 카라반이 끝



케이블카와 체어리프트로 BC에 입성하는 대원들과 짐

나는 아자우역에서 BC를 향하여 대원과 짐이 올라가게 된다. 케이블카 2회, 체어리프트 1회를 타고 종착역인 가라바쉬역에 도착하게 된다.

먼저, 2회의 케이블카는 사람 3~5명과 대원 각자의 짐, 공동식량 등이 같이 이동한다. 마지막에 타는 체어리프트는 1인용이다. 짐을 내릴 대원 몇 명이 먼저 올라간다. 1개의 리프트에 짐을 하나씩 올려보낸다. 중간 중간에 사람이 탄다. 마지막에 점검자가 타고 올라가게 된다. 대원과 짐이 많은 우리팀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가라바쉬역에서 숙소(BC)까지는 100m 이내의 짧은 거리이지만 아직 고소 적응이 덜 된 상태이므로 무거운 짐들을 나르면서 조금 힘들어한다.

나중에 등반이 끝나고 하산할 때는 역순으로 했다. 식량 등 공동 짐이 줄어들어 훨씬 수월했다.

### 3) 총평(결론)

수송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화물항공의 대원 각자 한계중량이 20kg이라는 것이다. 국제선이나 러시아 국내선이나 동일하다.

대원들의 개인짐 포장은 엘브루즈 등반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카고백보다는 대형 배낭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사실 카고백은 인력운반 측면에서는 매우 불리한 구조이다. 엘브루즈 등반시에는 손으로 짐을 날라야하는 구간이 꽤 많다. 외국의 등반팀들을 보니 거의 큰 배낭을 활용하였다. 80리터 정도의 배낭이면 충분히 여유있고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별도의 등정용 배낭은 따로 있어야한다. (40리터 내외)



## 4-6. 의료

담당 : 윤현식

### 1) 의료목록 효능 효과

#### ※ 약물치료 이전에 고려해야할 체크리스트

##### ① 증상 점수

두통(1), 오심이나 식욕상실(1), 수면장애나 불면증(1), 어지러움(1), 아스피린에 반응하지 않는 두통(2), 구토(2), 휴식 시의 호흡곤란(3),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심각한 피로(3), 현저한 요량감소(3)

##### ② 평가 및 중재

1~3점: 계속 진행

4~6점: 고도 획득 중지 및 관찰

7점 이상: 하산

#### (1) 고산병 예방 및 치료

상품명	성분명	수량		효과
		총량	대원별	
다이아막스	Acetazolamide 250 mg	200 정	각 대원 14정	고산병 예방 및 치료
기넥신 80mg	Ginko biloba 80 mg	200 정	각 대원 14정	고산병 예방 및 치료, 혈액순환
덱사메타손정	Dexamethasone	100 정		뇌부종, 각종 염증 등 효과다양
아달라트	Nifedipine	10 정		폐부종
이레나필 등	Sildenafil 100 mg	14 정	각 대원 1정	폐부종, 고소 두통
씨베리움	Flunarizine	10 정		편두통
보나링 에이	Dimenhydrinate	30 정		어지럼증
니트로글리세린	Nitroglycerine	30 정		협심증

① **다이아막스**: 고산병 예방 및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물이며, 여러 가지 복잡한 기전이 있지만 주요 작용기전은 신장에서 소변으로 더 많은 중탄산염을 배출하게 함으로써 대사성 산증을 일으켜, 과호흡에 의한 호흡성 알칼리증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과호흡을 가능하게 해준다. 결론적으로는 부작용을 적게 하면서 수면 중에도 호흡수를 늘릴 수 있어서 저산소증에 의한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격적인 고산등반이 시작되기 이전인 테르스쿨(약 2100미터)에서부터 0.5정(125 mg)을 1일 2회 복용(아침 식사 후, 오후 3~4시: 저녁식사 후 복용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잦은 배뇨증상의 완화)으로 시작하여 특별한 부작용이 없

는 경우 다음날 1정(250 mg)으로 증량하여 등정일 전일(등정일에는 새벽 2시에 출발)까지 복용하였다. 기본적으로 이노작용을 하는 약물이어서 잦은 배뇨로 인한 불편감이 있었지만, 고소적응을 위해서는 잦은 수분섭취 및 배출이 필수이니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부분이며, 손저림 등은 심한 정도가 아니면 참을 만한 부분이다.

② **기넥신**: 다이아막스와 함께 1일 2회 복용하였다. 혈액순환개선을 위한 보조적 요법으로 용하였고, 출혈성 경향의 약물(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등)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③ **덱사메타손**: 고소에서 두통 및 어지럼증, 경도의 뇌부종 증상(중등도 이상의 경우는 하산이 원칙이다), 전반적인 컨디션의 회복 등을 위해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대원의 경우 고소에 대한 적응력이 좋아서 사용할 경우가 거의 없었고, 전신 컨디션 회복을 위해 사용한 경우는 있었다. 한 대원의 경우에는 다른 대원에 비해 증상이 조금 나빠서 주사제를 근육주사한 경우는 있었지만, 특별한 후유증상이 없이 호전되었다.

④ **Sildenafil**: 비아그라의 특허 기간의 만료에 따라 국내의 제약회사에서 수많은 복제약들이 출시되었다. 작용기전이 폐동맥압 강하로 인한 폐부종의 감소 등이므로 아달라트(Nifedipine) 등으로 대체복용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고소증상을 완화시킨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으나 정확한 기전은 검증되지 않는 상태이며, 이를 고산병의 주 치료약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인거 같다. 본 원정대의 경우 50mg을 저녁시간에 복용하였으며, 등정 2일전, 일부 대원은 등정 전일까지도 복용하였다. 일부 보고에서는 작용시간을 늘리기 위해 25mg씩 분할 복용하는 방법을 권하기도 하고 있다. 부작용(?)으로는 수면 중 발기가 되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였다고 한다.

## (2) 내복의약품

### ① 진통소염제

상품명	성분명	수량	효과
타이레놀 ER	Acetaminophen	100 정	두통 및 각종 통증, 해열
아스피린	Aspirin 500 mg	50 정	진통, 소염, 해열
Soleton	Zaltoprofen 80 mg	30 정	진통, 소염
Mulex	Eperisone 50 mg	30 정	근이완
오팔몬	Limaprost 5 ug	42 정	척추협착증, 폐색성혈전혈관염
투스단	Ascorbic acid etc.	30 정	잇몸질환

일반적인 두통에는 타이레놀 1~2정을 복용하였고, 근육통 등을 수반한 통증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인 Soleton과 근이완제인 Mulex를 복용하였는데, 근이완제의 경우에는 근무력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척추협착증 등으로 인한 요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오파몬을 사용해볼 수 있으며, 그 외의 약들은 이번 등반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 ② 소화기계

상품명	성분명	수량	효과
베아제	Pancrelipase ss	30 정	소화불량
부스코판	Scopolamine	30 정	진경제, 복통
Motilium-M	Domperidone	30 정	복부팽만감, 복통, 소화불량
스티렌	유파틸린	30 정	속쓰림, 위염
란스톤	Lansoprazole	14 정	위염, 위궤양
스멕타현탁액	Smectite	15 팩	급성설사
로페린	Loperamide	50 정	급성설사
핑큐	Bisacodyl	20 정	변비
스티몰	Citrulline	9 팩	식욕부진

고소증상에서 흔한 증상 중에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소화불량, 복부팽만, 속쓰림, 설사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났었고, 증상에 맞추어 약물을 복용하였다.

### ③ 호흡기계

상품명	성분명	수량	효과
프리비투스	Levocloperastine	15 팩	기침
암브렉트	Ambroxol 30 mg	30 정	기침, 가래
페니라민	Pheniramine	50 정	알러지, 비염, 소양증

심하게 증상을 호소하는 대원은 없었으나, 일부 대원에서 기침, 가래 등을 호소하여 소량의 약품을 사용하였다. 이전의 원정에서는 다량이 사용되던 약품들이지만, 그 지역의 기후와 원정 기간을 고려하여 약품을 준비하도록 해야겠다.

### ④ 항생제

상품명	성분명	수량	효과
Moxicle	Amoxicillin, Clavulanate	20 정	그람 음성, 양성균, 호흡기계염
Banan	Cefpodoxime	20 정	그람 양성, 음성균, 호흡기, 창상

외상 및 염증, 호흡기계 감염 증상을 위한 약품으로 준비를 하였고, 안면부의 작은 염증과 외상에 대해 소량 사용하였다.

### (3) 안과용제

상품명	성분명	수량	효과
플루메트론	Fluorometholone	3 병	외안부 전안부 염증성질환
레복사신	Levofloxacin	3 병	광범위 항생 점안액
리퀴필름 점안액	*인공눈물	3 병	안구건조
히알루 미니	*인공눈물	10 개	안구건조

다행히 이번 등반에서는 사용할 일이 없었으나, 고산등반 시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소량이라도 꼭 준비해야하는 약품들이다.

### (4) 외용약품

상품명	수량	효과
미보 연고	1 개	화상
실마진 크림	1 개	화상
항생제 연고(테라마이신, 오큐라신)	각 1개	외상, 피부(특히 안면부) 감염
마데카솔 연고	1 개	각종 외상
아시클로버 크림	1 개	단순포진, 대상포진
페리텍스 크림	1 개	구내염
케펜텍(파스)	3 팩 (팩당 7매)	진통소염제(패치형)

고소적응을 위해 올라갔던 체겟봉 등반 시 선블락을 제대로 안한 부위 (귀, 손등 등의 노출부위)에 일부 대원에서 일광화상이 발생하여 화상연고가 사용되었고, 일광화상의 방지를 위해서는 얼굴 전면부 뿐만이 아니라 목과 귀에도 충분한 양의 선크림을 발라야하며, 챙이 넓은 모자와 목 부위를 감쌀 수 있는 스카프나 게이터, 장갑 등의 착용을 습관화해야 하며, 이번 원정 중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설맹 방지를 위한 썬그래스, 고글 등의 착용이 필수이다.

나머지 외용약품은 안면부 염증과 동상에 대해 항생제 연고가 사용되었고, 입술에 발생한 단순포진에 아시클로버 크림이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외상연고와 패치형 진통소염제가 소량 사용되었다.

#### (5) 주사제

상품명	성분명	수량	효과
텍사메타손주	Dexamethasone	2 앰플	뇌부종, 각종 염증 등 효과다양
페니라민주	Chlorpheniramine	2 앰플	콧물감기, 알러지, 소양증
디클로페낙주	Diclofenac	3 앰플	진통소염
에피네프린주	Epinephrine	5 앰플	심정지, 쇼크, 천식, 두드러기
아트로핀주	Atropine	2 앰플	경련성 동통, 부정맥, 중독
5% D/W 500cc	5% D/W	1 Bottle	심장질환, 천식, 정맥유지
N/S 500cc	Normal saline	1 Pack	당뇨, 혼수, 뇌졸중, 간질
N/S 20cc	Normal saline	5 Bottle	주사제 혼합용
Lidocaine		1 병	국소마취
Triamcinolone		1 병	염증, 통증 국소 주사

다행히 증상이 심한 대원이 없어서 많이 사용할 일은 없었으나, 한 대원의 경우 고소증상과 요통이 심하여 텍사메타손, 진통소염제 등이 일부 사용되었다.

#### (6) 외상용품(외상처치용 등)

상품명	수량	용도
포타딘 스왑	5	소독
알코올 스왑	5	소독
알코올 솜	1 통	소독
소독거즈	2 팩	소독
일회용 밴드	5 갑	상처 보호 및 치료
종이 반창고	1 개	처치, 고정
실크 반창고	1 개	처치, 고정
드레싱세트 (트레이, 핀셋)	1 세트	소독
수술용 장갑	5 쪽	소독 및 시술
Poly-Glove	1 팩(다수)	청결 진료 또는 시술
듀오덤	1 장	상처치료(wet dressing)
압박붕대 4"	2 롤	외상 처치 고정 압박
압박붕대 6"	2 롤	외상 처치 고정 압박
주사기 3cc, 5cc, 10cc	각 2개	주사 시
수액세트(라인, 메디켓, 커넥터)	3세트	수액 연결 시
토니켓	1 개	주사 시 정맥 압박
Dry needle	30 개	압통점 자극 시
면봉	50 개	외용약 도포 시

외상이 많거나 심한 경우가 아니어서 많이 사용할 일이 없기는 하였으나, 원정등반의 특성 상 청결한 처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맞게 준비를 잘 해야 하며, 다양한 외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수 품목 또는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 (7) 진료장비

상품명	수량	용도
청진기	1 개	심음 또는 폐음청진
혈압계(바늘)	1 개	혈압측정
체온계(수은)	1 개	체온측정, 측정법 익힐 것
펜라이트	1 개	동공반사, 구강내 병변확인
설압자	5 개	편도, 인두 관찰
동맥혈 산소포화도 측정기	1 개	산소포화도 측정

뇌졸중, 고혈압 등의 기왕력을 가진 대원들이 몇 분 있으셔서 중간 중간 활력징후를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고, 심한 경우는 아니었지만 평소보다 혈압상승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지속적인 자가약 복용이 필요하였다.

## 2) 대원 건강검진

### (1) 원정 전 건강검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원정대원의 건강검진을 원정 전 시행하여야 하나 본 원정대의 특성과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있는 각 대원의 개별적인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였다. 뇌졸중 기왕력을 갖고 있는 대원에 대해서는 원정 수개월 전 자기공명영상 검사 등의 영상검사, 약물 복용력, 신경학적 검사, 면담 등을 통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였다.

### (2) 원정 후 건강검진

원정등반 중 특별히 심한 증상을 호소하는 대원은 없었으나, 일부 대원의 경우에 지속적인 혈압 상승, 요통의 악화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와 치료 중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지속적인 등반과 건강관리를 위해 이후 개별적인 면담 및 진료를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

### 3) 총평

의사 면허증을 따고 2번째 가는 원정등반이었다. 첫 번째 원정등반은 2006년 초모랑마(에베레스트) 원정대 그리고 이번 2012 엘브루즈 원정대...처음 갔던 2006년 원정에서는 여러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우여곡절이 많았던 등반이었다. 하지만 원정등반 후 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때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짧은 기간 동안 준비를 하였다.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임상경험은 늘었지만, 여전히 고산등반이라는 큰 산은 등반뿐만이 아니라, 의료인으로써 커다란 부담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다. 의사가 따라가는 원정대의 대원은 그래도 마음이 조금 더 편하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원정등반에 따라가는 의사의 마음은 무겁고 답답하지만 하다. 그 무거운 마음은 아무 일 없이 하산하여 집에까지 돌아오게 되면 시원한 맥주 한 잔과 함께 잊히겠지만, 어쩌면 나에게서는 또 한 번의 성장의 과정이 될 것이다.

정말 아무 일 없이 돌아온 이 자리가, 큰 탈 없이 지내준 대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참고자료

- 필독서 : 조석필 저 “10살짜리 아들을 히말라야에 데려가도 될까요?”
- 보고서 : Great Karakoram (99 경남 G2 원정대), 05 양정 에베레스트, 03 서울 에베레스트, 87 렌포강 하늘길(전남의대), 05 한양대 에베레스트, 06 전남대학교 초모랑마(에베레스트) 원정보고서 등

#### ☆ 도움주신 분

우선 무엇보다도 이번 원정을 준비할 수 있게 지원과 격려 등 큰 도움을 주신 전남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이삼규 교수님을 비롯한 최인성 교수님, 한재영 교수님, 이외 모든 의국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약 및 안과용품 등을 정성스레 준비하여 준 안과 오한진 교수, 수액 및 수액세트, 주사제, 주사기, 드레싱 세트 등을 준비해준 차희정 간호사, 약품구입을 위해 도움을 주신 중앙약품 이오근 이사님,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겠지만, 필수 약품 처방 환자가 되어주신 우리 어머니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5장 부록

## 5-1. 코카서스(Caucasus = 카프카스 Kavkas)산맥의 산

< 참고문헌 : (사)대한한약연맹 발행 “새천년 7대륙의 정상” >

### 1. 불쇼이(大)코카서스 산맥

구분	위치 및 내용
서부	흑해 연안 타만(Tamam)반도에서 엘브루즈봉 정남쪽의 Jiper-Azau(3268m)까지
중부	엘브루즈에서 카즈벡(Kazbek, 5047m)까지 등반성 높은 고봉들 대부분이 여기에 있다. 5000m급 봉우리 14개와 4000m급 봉우리 12개가 솟아있다. 대표적 고봉은 엘브루즈(Elbrus, 5642m), 돈구조룬(Dongusorun, 4454m), 나크라타우(Nakra-Tau, 4277m), 스킨다(Shkhelda, 4320m), 우쉬바(Ushba, 4707m) 등이다.
동부	카즈벡 남쪽의 Krestovoy pass(2382m)에서 카스피해 서안의 산유도시 바쿠(Baku)까지

### 2. 말리(小)코카서스 산맥

쿠라강 하곡을 끼고 불쇼이카프카스산맥 남쪽과 나란히 뻗으며, 3000~4000m의 산들이 이어진다. 산맥의 남쪽 부분은 아라크스강 하곡으로 이어지며 아제르바이잔의 국경에 해당한다.

#### ▲ 돈구조룬(Dongusorun, 4454m)과 나크라타우(Nakra-Tau, 4277m)

‘돼지 울타리“란 뜻의 돈구조룬은 테르스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체갯봉과 돈구조룬계곡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테르스콜에서 볼 수 있는 돈구조룬 정상은 서봉이다. 왼쪽으로 작은 피라미드처럼 솟아있는 두 봉우리는 고구타이이며, 고구타이와 돈구조룬 사이에는 고구타이빙하(Kogutai Glacier)가 위치해 있다. 설원과 빙하, 암벽과 빙벽을 넘어 등반해야 하기 때문에 고산등반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극복해야 한다. 첫 등정은 1938년에 이루어졌다.



돈구조룬(왼쪽)과 나크라타우(오른쪽)

서봉에서 추천할 만한 등반로는 이트콜 호

텔(Itkol Hotel) 약간 하류쪽 박산강과 고구타이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합류지점에서 고구타이강을 따라 리틀 고구타이 빙하로 오른 후 고구타이 빙하를 가로질러 돈구조룬의 북동릉을 따라 오르면 서봉에 오르게 된다. 합류점에서 서봉까지 20시간 정도 걸린다. 서봉에서 동쪽으로 가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하산은 주봉과 동봉을 거쳐서 한다.

동봉 등반은 이트콜 호텔 하류쪽 테게네클리(Tegenekli) 마을 직전의 박산강과 유센기강(Yusengy River)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두 강의 합류 지점에 박산 캠프가 있고, 이곳에서 유센기강의 왼쪽을 따라 상류로 오르면 북부 숙소에 도착한다. 이 숙소 직전에서 오른쪽 길을 따라 모레인(Morain) 지대를 지나 이스트 돈구조룬 빙하(East Dongusorun Glacier)의 오른쪽으로 올라간다. 돈구조룬 동릉으로 올라서면 동봉 정상으로 향하는 능선이 이어진다. 박산캠프에서 동봉까지 15시간 정도 걸린다. 하산은 올라온 길을 이용한다.

### ▲ 스킨다(Shkhelda, 4320m)와 우쉬바(Ushba, 4707m)

주봉인 엘브루즈가 ‘행복의 산(Mountain of happiness)’으로 불리는 반면, 우쉬바는 ‘불운한 산(Mountain of Misfortune)’으로 불린다. 약 4000m의 우쉬바 고원(Ushba Plateau) 위에 스킨다(Shkhelda, 4320m)와 함께 나란히 어금니처럼 서있다. 코카서스 연봉들 중 가장 등반이 어려운 산으로 알려져 있다. 산악인들은 그다지 높지 않은 이 4700m의 고도를 ‘의지와 용기의 고도’라고 부른다.

### ▲ 바쉬카라(Bashikara, 4241m)와 잔투간(Jantugan, 3991m)

아들수 계곡(Adylsu Valley) 최상류에 서면 구마치(Gumachi, 3810m), 잔투간(Jantugan, 3991m), 바쉬카라(Bashikara, 4241m), 체겟카라(Chegetkara, 3770m) 등의 고봉들이 연이어진다. 이들 중 잔투간과 바쉬카라가 접근이 쉽고 등반성도 높아 보인다.

잔투간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들수 계곡 상류의 ‘드잔투간’까지 차량으로 이동한 후 최상류 지점까지는 걸어간다. ‘드잔투간’에서 잔투간 북벽 아래 모레인 지대를 지나 정상에 오르는 길은 8~10시간 걸리고, 잔투간 패스(Jantugan Pass, 3460m)로 올라 동릉을 타고 정상에 오르는 길은 10시간 걸린다. 잔투간 북벽은 1961년 초등 되었다.

### ▲ 트레킹코스 - 체겟(Cheget, 3404m)과 돈구조룬 계곡(Dongusorun Valley)

테르스콜(Terskol)의 호텔에서 포장 도로를 따라 하류 쪽으로 20분쯤 걸으면 체겟 호텔(Cheget Hotel)로 들어서는 갈림길이 나온다.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다리를 지나 10분쯤 걸으면 호텔 앞에 도착한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만년설을 머리에 이고 있는 돈구조룬의 웅장한 모습이다. 호텔 앞에는 넓은 공터와 작은 시장, 음식점, 버스정류장 등이 위치해 있다. 이곳은 체겟봉을 오르려는 관광객들로 항상 붐빈다. 체어 리프트(Chair Lift)는 최고 3050m까지 설치되어 있고, 2700m에 중간역이 있다.

이곳에 오르면 춘,하계에는 온통 고산초원이며, 동쪽으로는 끝없는 박산 계곡이 내려다보이고, 남쪽으로는 나크라타우와 돈구조룬, 그리고 고구타이로 이어지는 중앙 코카서스의 거봉들이 눈에 들어온다. 북쪽으로는 마치 전망대처럼 엘브루즈의 육중한 모습이 한눈에 들어

오고, 그 아래로는 테르스콜이 위치한 분지가 내려다보인다. 여름에는 3050m의 리프트 중착역에서 체겟봉 정상까지 1시간이면 오를 수 있고, 겨울에는 북면과 동면이 스키장으로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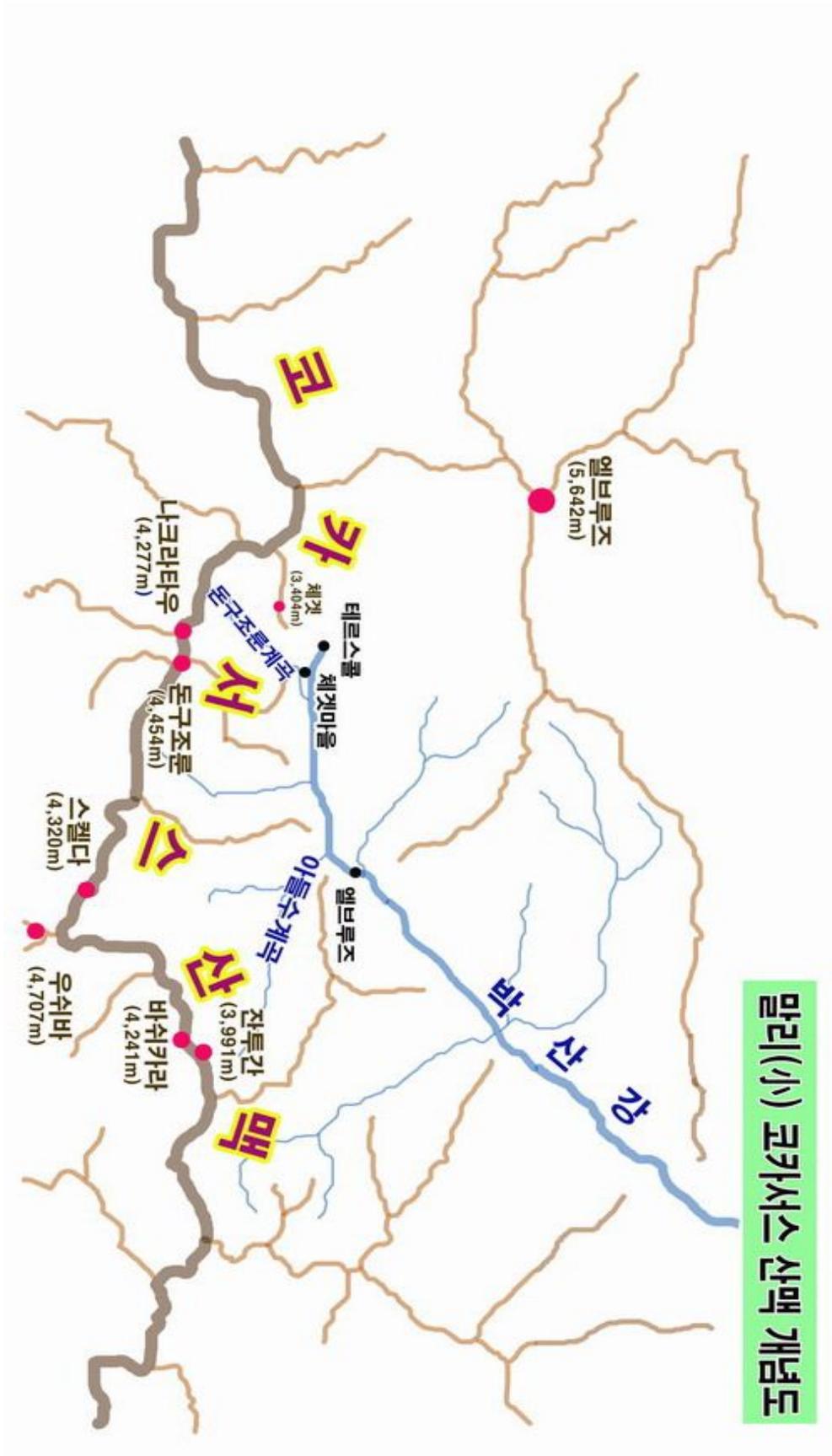
체겟봉과 돈구조룬 사이의 골짜기가 돈구조룬 계곡이다. 2700m의 리프트 중간역에서 초원 길을 따라 남서쪽으로 체겟봉을 1시간쯤 돌아서 가면 빙하호인 돈구조룬 호수에 도착한다. 트레킹로를 따라서는 야생화가 만발해 있고, 계곡 건너편으로는 돈구조룬의 북동벽이 보는 이를 압도한다. 돈구조룬 호수는 계곡이 막혀 형성된 호수로 주변에는 모래인지대가 형성되어있다. 일반적으로 트레킹은 이 호수에서 끝난다. 이 길을 따라 상류쪽으로 계속 가면 돈구조룬 패스를 넘어 그루지아(Georgia)로 가게 된다. 하산은 온 길을 되돌아 리프트를 이용해도 되고, 계곡 아래 길로 내려서 체겟 호텔까지 계곡을 따라 내려갈 수도 있다.

### ▲ 트레킹코스 - 아들수 계곡(Adylsu Valley)

아들수 계곡은 최상류까지 오르려면 멀기 때문에 차량을 타고 이동한다. 테르스콜의 호텔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하류쪽으로 약 20분쯤 내려오면 엘브루즈(마을 이름) 마을 직전에 박산강과 ‘아름다운 강’이란 의미의 ‘아들수강(Adylsu River)’이 합류하는 지점에 이른다. 이곳에서 우회전하여 아들수강을 따라 경사진 산길을 곡예 하듯 힘겹게 달리면 커다란 대포가 서있다. 이 대포는 낡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용 가능하며 인위적으로 눈사태를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된다고 한다. 그대로 두면 더 큰 눈사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포를 지나 계속 달리면 제법 큰 호텔이 방치되어 있는 곳에 도착한다. 이곳이 ‘드잔투간’으로 도로가 끝나는 지점이다. 호텔 잔해 옆에 배럴(Barrel) 형태의 숙소가 있으며, 몇몇 주민들이 기념품과 구운 양고기를 판다. 이곳부터는 걸어서 간다. 트레킹로는 계곡 왼쪽을 따라 이어지고 숲과 야생화 핀 초원이 번갈아 이어진다. 숲속에는 방목하는 소들이 보인다. 강물은 흐름이 빠르고 진한 잿빛이다.

만년설이 바로 앞에 가까워질 때쯤 지류를 건너게 되는데 으외로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흘러내린다. 모래인지대 바로 앞에 서서 바라보는 만년설 덮인 코카서스의 주능선은 한마디로 ‘선계(仙界)’이다. 바로 앞 정면에 보이는 마터호른을 닮은 봉이 잔투간(Jantugan, 3991m)이고, 멀리 마치 작은 혀처럼 솟아있는 봉이 구마치(Gumachi, 3810m), 잔투간의 오른쪽 능선을 따라다 솟아오른 봉우리가 바쉬카라(Bashikara, 4241m)이다. 뒤돌아서 계곡의 하류쪽으로는 최고봉인 엘브루즈도 볼 수 있다.



말리(小) 코카사스 산맥 개념도

## ★ 알렉산드로 세르게예비치 푸시킨

(1799. 6. 6 ~ 1837. 2. 10.)

러시아의 위대한 시인이자 소설가이다.

러시아 근대문학의 창시자로서 문학의 온갖 장르에 걸쳐 그 재능을 발휘했다. 과거 100년간 러시아 시분야에서 그의 간결하고 평이 명료한 시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지 않은 시인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산문에 있어서도 19세기 러시아 리얼리즘의 기초는 그에 의해 구축되었다.



푸시킨은 ‘러시아 국민 문학의 아버지’, ‘위대한 국민 시인’ 등으로 불린다. 막심 고리키의 말대로 ‘시작의 시작’이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비평가 역시 푸시킨의 작품을 심도 있게 연구하면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보편성’ (도스토옙스키의 표현)을 강조했다. 그의 문학작품은 모든 예술사조(ism)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예술사조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의 모든 요소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모든 것을 부정하는 아이러니한 대화를 하고 있다.

그는 1812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로 고무된 러시아 민족의 애국주의 사상, 민족적 자각과 민족적 기운이 고조되는 역사적 시기에 창작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러시아 국민 사상과 감정을 훌륭히 표현한 러시아 국민 문학의 창시자이자 러시아 문학어의 창시자다. 국민 생활과의 밀접한 유대, 시대의 선구적 사상의 반영, 풍부한 내용 등의 측면에서 그를 따를 러시아 작가는 없다. 투르게네프가 푸시킨 이후의 작가들은 그가 개척한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처럼 그의 문학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한게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은 한없이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한리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 5-2. 원정에 도움주신 분

### 1) 지원금 (학교에 지정기탁하여 원정대로 넘어온 자금)

이 름	소 속	금 액
	전남대학교	3,000,000
김성진	전남대학교 서울동창회	5,000,000
김국용	우리로광통신(주) 대표이사 / (주)무등 회장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제28대 회장/ 고문)	2,000,000
허 정	에덴병원 대표원장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이사장)	2,000,000
정인채	새천년종합건설(주) 회장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2,000,000
노동일	(주)민코코리아 대표이사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2,000,000
박승현	영진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부이사장)	2,000,000
최희동	(주)지오투정보기술 부사장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2,000,000
박현주	중앙한의원 원장 (전남대학교 OB산악회 부회장)	2,000,000
김훈봉	김훈봉회계사무소 대표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1,000,000
장영주	베네치아 월드컵점 대표 (전남대학교 총동창산악회 부회장)	1,000,000
합 계		24,000,000

2) 찬조금 (원정대에 직접 찬조한 자금)

이 름	소 속	금 액
김윤수	전남대학교 총장	1,000,000
최상준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2,000,000
박종현	전남대학교 OB산악회	150,000
국연근	전남대학교 OB산악회	100,000
이은수	전남대학교 OB산악회 총무	100,000
정태영	전남대학교 OB산악회	200,000
송희태	전남대학교 OB산악회	100,000
정순택	전남대학교 OB산악회	100,000
박향식	전남대학교 OB산악회	100,000
최동식	전남대학교 OB산악회	100,000
최경석	조선대학교 산악회OB	50,000
이정현	순천대학교 산악회OB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전무이사	50,000
정우연	송원대학교 산악회OB	50,000
박헌주	전남대학교 OB산악회(훈련간식)	54,000
김훈봉	전남대학교 OB산악회(훈련식대)	150,000
김나연	전남대학교 OB산악회(훈련식대, 찬조금)	700,000
이명숙	전남대학교 OB산악회	100,000
김수영	전남대학교 OB산악회	100,000
합 계		5,204,000

### 3) 발대식 화환

이름	소속	비고
최경주	(사)대한산악연맹 광주광역시연맹 회장	
신옥철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회장	
	조선대학교 산악회OB	
	전남대학교 OB산악회	
이도형	남도기업사 대표	이재국 부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윤현식 직장
정오승	해초여행개발 광주지점 점장	
	해병대 335기 동기회	오성개 해병전우회

### 4) 기타후원

이름	소속 및 직책	비고
정구중	전남대학교 기획조정과 팀장	각종 행정업무 처리 협조 등
백두인	전남대학교 에코캠퍼스관리실 팀장	각종 행정업무 처리 협조 등
김용욱	전남대학교 OB산악회 운영위원장	발대식 사진촬영 등
	전남대학교 출판부	발대식 초대장 인쇄 지원

### 5) 식사제공

이름	소속	내용
이도형	조선대학교 산악회OB	훈련시 격려식사 제공 (30만원 상당)
	전남대 교수산악회 (회장 김석현)	합동산행 후 격려식사 제공 (50만원 상당)
	전남대병원 산악회 (회장 정성두)	합동산행 후 격려식사 제공 (50만원 상당)
	전남대학교 OB산악회원	발대식 후 환송연 식사제공 (100만원 상당)
허정	전남대 총동창회 이사장	등정 성공 자축연(현지) 식사제공 (50만원 상당)
최상준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장	귀국 후 해단식 식사제공 (100만원 상당)

물심양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5-3. 해단식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최상준 회장님의 배려로 즐거운 해단식을 하였다.

일 시	2012. 9. 7(금) 19:00	사회 : 김영필 부대장
장 소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66-1 “수정식당”	
참 석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 교 : 송경안(총장직무대리)</li> <li>▪ 총동창회 : 최상준(회장) 허정(이사장) 정인채(상임부회장) 이선규(사무국장) 강경민(홍보담당)</li> <li>▪ 대 행 사 : 정오승(해초여행개발 광주지점장)</li> <li>▪ 대 원 : 김훈봉(고문) 이정옥(단장) 최희동(부단장) 오성개(대장) 김영필(부대장) 김경선 장희 장영주 윤성룡 설낙순 김태중 윤현식 이재국 윤상화</li> <li>▪ 대원가족 : 강미라(윤성룡 부부) - 이상 총 22명 -</li> </ul>	
식 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회선언</li> <li>2. 참석자 소개</li> <li>3. 원정보고</li> <li>4. 총장 격려사 (전남대에 등정증명서 전달)</li> <li>5. 동창회장 격려사 (총동창회에 기념액자 전달)</li> <li>6. 기타 기념액자 전달</li> <li>7. 단장 인사말</li> <li>8. 대장 인사말</li> <li>9. 대행사 찬조물품 재학생에 전달</li> <li>10. 폐회선언</li> </ol> <p style="text-align: right;">건배제의 : 허정(이사장), 정인채(상임부회장) 등</p>	
특기사항	해단식 비용은 전남대 총동창회 최상준 회장님이 찬조하였음.	



해단식



전남대에 등정증명서 전달



총동창회에 기념액자 전달



대행사에서 재학생 산악회에 주는 격려물품

# 편집후기

“등산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2011년 초 <전남대학교 총동창산악회>와 <전남대학교 OB산악회>에서 모교의 개교60주년을 기념하는 해외 등반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총동창산악회 산악대장과 OB산악회 운영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던 내가 자연스럽게 실무책임을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8,000m급 자이언트봉을 염두에 두었다. 광주전남 산악인이 오르지 못 한 마지막 산 캄첸중가(8,586m)를 생각하였다. 남도인의 도전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산이다. 개교6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의 거점대학 산악인들이 14좌의 마무리를 해낸다면 의미가 클 것으로 여겼다. 거봉에 도전할 의지와 역량을 갖춘 용봉인이 2명만 있어도 당차게 밀어붙여볼 심산이었다. 포기해야 했다. 선수가 없었다.

결국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했다. 자료를 정리하다가 보니 세계7대륙 최고봉에 관심이 갔다. 용봉인이 이미 4개를 마친 상태였다. 그래서 다섯 번째 도전지로 유럽 최고봉 엘브루즈(5,642m)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번 원정이 잘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여섯, 일곱 번째로 이어지리라 기대하였다. 이번에 등정도 하였고 분위기가 이어지도록 하는데도 성공한 듯하다.

보고서를 마무리 해가면서 한 편으로는 칼스텐츠(푼각자야 4,884m)와 빈슨매시프(4,894m)를 기초조사 중이다. 엘브루즈보다 어려운 산들이다. 둘 다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다. 한 곳은 열대우림지역이고 다른 곳은 남극대륙이다. 과거 등정자와 통화하였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성 산악인 김영미이다. 故 박영석 대장 수색원정에서 막 귀국한 모양이다. 두 산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보력이 있다는 대행사를 소개받았다. 나도 잘 아는 곳이다. 차츰 통화해보며 기초정보를 알아볼 예정이다.

2008년 가셔브롬 원정대 김재를 단장님께서는 “보잘 것 없는 인간에게 한계를 요구하는 자연에 맞서 온갖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산악정신이고 인간사의 원동력이다”고 하였다. 또 <알랑 드 샤펠리우스>의 말을 인용하며 “등산은 길이 끝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도 하였다.

우리의 등산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편집담당 김영필 (부대장)

발 행 일 : 2012년 10월 11일

발 행 처 :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편 집 인 : 개교60주년기념 2012 전남대학교 세계7대륙  
최고봉(유럽 엘브루즈) 원정대 대장 오성개

인쇄편집 : 남도문화사

인 쇄 처 : 전남대학교 출판부

